

달과 6펜스

문법 노트

왜 작가가 이 구조를 선택했는가

58챕터 · 290 포인트
I1I2III3 × Claude Sonnet

이 책에서 만나는 문법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한국어도 "총리는... 장군은..."처럼 병렬을 사용하지만, 영어는 **문법적 대칭**을 더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한국어: 총리는... 장군은... (의미적 병렬)

영어: The Prime Minister... the General... (문법적 병렬)

Maugham은 병렬구조를 **대조와 아이러니**를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pompous rhetorician"과 "tame hero"의 대비는 **권력의 허상**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의 무상함을 리듬감 있게** 전달합니다.

작가가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병렬구조는 **대조 효과**를 극대화하여, 복잡한 사회 비판을 **명확하고 기억에 남는 형태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구적 효과**를 만들어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한국어는 수 일치가 없지만, 영어는 **주어와 동사의 일치**를 통해 **문법적 정확성과 의미의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한국어: 찬사가... (수 구분 없음)

영어: [adulation] is... (단수 일치)

Maugham은 복잡한 문장에서도 **정확한 수 일치**를 유지하여 **문체적 권위**를 만듭니다. "adulation of his admirers is"에서 핵심 주어 "adulation"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논리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이는 **지적 엄밀성**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작가가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정확한 수 일치는 **문법적 완성도**를 통해 **작가의 교양과 논리적 정확성**을 보여주며, 복잡한 사상을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동사 (Non-finite Verb)

한국어는 "파티에 다니던"처럼 관형사형 어미로 처리하지만, 영어는 to부정사, 분사, 동명사로 **시제와 관점**을 세밀하게 조절합니다.

한국어: 파티에 [다니던] 젊은 시절

영어: when she [used to go] to parties

Maugham은 준동사를 **의식의 흐름**과 **기억의 층위**를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holding a daffodil"처럼 분사구문으로 **동시성**을, "to go to parties"로 **습관적 과거**를 구분합니다. 이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세계**를 한 문장에 압축합니다.

작가가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준동사는 **시간의 다층성**을 표현할 수 있어,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복합 시제 (Complex Tense)

한국어는 "서서히 고조되어 왔다"처럼 어미로 시간 관계를 나타내지만, 영어는 **조동사 조합**으로 미묘한 시간 층위를 구분합니다.

한국어: 서서히 고조되어 [왔다] (완료상)

영어: [had been gradually coming] (과거완료진행)

Maugham은 복합시제를 **심리적 과정의 점진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had been gradually coming"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의식 변화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물의 내적 변화가 **갑작스럽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작가가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인간의 심리적 변화는 **점진적이고 복합적**입니다. 복합시제는 이런 **내면의 시간성**을 정확히 포착하여, 스트릭랜드의 변화를 **필연적 과정**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동태 (Passive Voice)

한국어는 "끌린 사람들"처럼 관형사형으로 처리하지만, 영어 수동태는 **행위자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어: [끌린] 사람들 (관형사형)

영어: people who [have been attracted] (수동태)

Maugham은 수동태를 **객관적 거리감**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have been attracted"는 개인의 의지보다 **예술의 힘**이 주체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예술가의 **신화화 과정**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화자의 시선을 드러냅니다.

작가가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수동태는 **인간의 능동성을 의문시**하고, 예술과 명성이라는 **더 큰 힘**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품의 **운명론적 세계관**과 일치합니다.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한국어는 "접촉했던 사람들"처럼 관형사형으로 처리하지만, 영어 분사구문은 **복합적 상황**을 한 문장에 압축합니다.

한국어: [접촉했던] 사람들 (관형사형)

영어: [such as had come in contact] (분사구문)

Maugham은 분사구문을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을 한 번에 그려내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writers who had known him, painters who had met him"처럼 **병렬 구조**와 결합하여 **파노라마적 시각**을 만듭니다. 이는 예술가의 **사후 신화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작가가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분사구문은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여, 스트릭랜드를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의 관점**을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단적 기억의 형성 과정**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관계사 (Relative Clause)

한국어는 "관심도 없는 여러 사람들"처럼 관형어로 수식하지만, 영어는 관계사로 뒤에서 설명합니다. 한국인에게 낯선 이유는 **어순의 차이**입니다.

한국어: [관심도 없는] 여러 사람들

영어: persons [whom they took no interest in]

Maugham은 관계사를 **복잡한 인간관계와 심리**를 **정밀하게 묘사**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특히 "whom they took no interest in"처럼 전치사가 뒤로 가는 구조로 **일상적 어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상류층의 위선적 사교를 **냉소적으로 관찰**하는 화자의 시선을 드러냅니다.

작가가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한 문장 안에서 **여러 층위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한 번에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t 강조/가주어 (It-Cleft / Formal Subject)

한국어는 "고통이 인격을 고상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처럼 주제를 앞에 두지만, 영어는 It으로 시작해 **강조점을 조절**합니다.

한국어: [고통이...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어: [It] is not true [that suffering ennobles]

Maugham은 It 구문을 **철학적 명제**를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It is not true that"은 **단정적 어조**로 통념을 반박하며, **작가의 확신**을 드러냅니다. 이는 **도덕적 성찰을 명제적 형태로** 제시하는 효과를 냅니다.

작가가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It 구문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명제**로 만들어, 복잡한 철학적 사유를 **명확하고 권위 있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설의 **사상적 깊이**를 강화합니다.

가정법 (Subjunctive)

한국어는 "~했을 텐데", "~했다면"으로 가정을 표현하지만, 영어 가정법은 **시제 변화**로 현실과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한국어: ~했을 [텐데] (추측 어미)

영어: [would have thought] (가정법 과거완료)

Maugham은 가정법을 **도덕적 딜레마**와 **사회적 기대**를 탐구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would have thought well of me if I had been able"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냅니다. 이는 **체면과 양심**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작가가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가정법은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탐구하여, 인물의 **내적 성찰**과 **도덕적 고민**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설의 **윤리적 복잡성**을 강화합니다.

도치 (Inversion)

한국어는 "동판화들이 걸려 있었다"처럼 자연스러운 어순이지만, 영어 도치는 **강조와 리듬**을 위해 어순을 바꿉니다.

한국어: 동판화들이 [걸려 있었다] (자연 어순)

영어: [were etchings] (도치된 어순)

Maugham은 도치를 **문체적 우아함**과 **시각적 효과**를 만드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on which were etchings"는 **공간의 묘사에 문학적 품격**을 더합니다. 이는 상류층의 **세련된 취향**을 언어적으로 **재현**하는 효과를 냅니다.

작가가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도치는 **산문에 시적 리듬**을 부여하고, 평범한 묘사를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품 전체의 **미학적 완성도**를 높입니다.

제 1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t is still possible to discuss his place in art, and the **adulation of his admirers is** perhaps no less capricious than the disparagement of his detractors; but one thing can never be doubtful, and that is that he had genius.

예술에서 그의 위치를 논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고, 그를 숭배하는 이들의 찬사가 그를 폄하하는 이들의 비난만큼이나 변덕스러울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결코 의심할 수 없으니, 그것은 그에게 천재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the adulation of his admirers is perhaps no less capricious

주어: the adulation (of his admirers)

동사: is

한국어에서는 "그를 숭배하는 이들의 찬사가"처럼 관형어가 길어져도 주어를 쉽게 찾습니다. 영어는 다릅니다 — **of his admirers** 라는 전치사구가 **adulation** 과 **is** 사이에 끼어들면서 주어-동사 일치를 방해합니다.

Maugham은 **admirers** (복수)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진짜 주어는 **adulation** (단수)입니다. 그래서 **is** 를 씁니다. 한국어 화자에게는 당연해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문법적 거리**가 실수를 유발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Maugham의 선택: 복잡한 주어로 문장의 무게중심을 앞쪽에 두고, 동사는 간결하게 처리합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The Prime Minister out of office is seen, too often, to have been but a pompous **rhetorician, and the General without an army** is but the tame hero of a market town.

관직에서 물러난 총리는 너무나 자주 허풍스러운 웅변가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군대 없는 장군은 시골 장터의 길들여진 영웅일 뿐이다.

The Prime Minister... is seen to have been but a pompous rhetorician,

and

the General... is but the tame hero of a market town

두 절이 완벽하게 평행합니다. **The** [직책] [상황] **is** [결과] 구조를 반복하면서, Maugham은 **권력의 허상**이라는 주제를 강화합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드러나고"와 "~뿐이다"로 어미가 다릅니다. 하지만 영어 원문은 **is seen... is but**로 동사 패턴을 맞춥니다. 이 평행구조가 만드는 효과: 두 예시가 **같은 원리**의 변주라는 것을 문법으로 보여줍니다.

but (단지, 불과)이 두 번 나오는 것도 의도적입니다 — 권력자들의 몰락을 **축소**하는 단어로 평행구조를 완성합니다.

3. 수동태 (Passive Voice)

It was a hazardous, though maybe a gallant thing to do, since it is probable that the legend commonly received has had no small share in the growth of Strickland's reputation; for there are many who **have been attracted** to his art by the detestation in which they held his character or the compassion with which they regarded his death; and the son's well-meaning efforts threw a singular chill upon the father's admirers.

이는 위험하지만 어쩌면 용감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설이 스트릭랜드의 명성 성장에 적지 않은 몫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인격에 대한 혐오나 그의 죽음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의 예술에 끌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들의 선의에서 우려난 노력은 아버지의 추종자들에게 묘한 냉기를 던져주었다.

many who have been attracted to his art

현재완료 수동태: have been + past participle

"끌렸다"는 한국어 번역으로는 시제가 모호합니다. 과거에 끌렸는지, 지금도 끌리는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Maugham은 **have been attracted** (현재완료 수동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의 의미: **과거에 끌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were attracted** 였다면 "과거의 일회적 사건"이 됩니다. 현재완료는 그 끌림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수동태를 쓴 이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스트릭랜드의 예술에 **이끌린 것**이라는 뉘앙스입니다. 의지보다는 **매력의 힘**을 강조하는 문법적 선택입니다.

4. 관계사 (Relative Clause)

I do not speak of that greatness **which is achieved by the fortunate politician or the successful soldier**; that is a quality which belongs to the place he occupies rather than to the man; and a change of circumstances reduces it to very discreet proportions.

나는 운 좋은 정치가나 성공한 군인이 성취하는 그런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가 차지하는 지위에 속하는 성질이며, 상황이 바뀌면 아주 초라한 규모로 축소되고 만다.

that greatness which is achieved by the fortunate politician

선행사: that greatness

관계대명사: which (목적어)

수동태: is achieved by...

한국어에서는 "운 좋은 정치가나 성공한 군인이 성취하는 그런 위대함"처럼 **관형절이 앞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영어는 반대 — 명사(**greatness**) 뒤에 관계절이 따릅니다.

Maugham이 수동태(**is achieved by**)를 선택한 이유: **위대함이 주인공**이고, 정치가/군인은 **수단**이라는 뉘앙스입니다. 능동태 "정치가가 위대함을 성취한다"보다, 수동태 "위대함이 정치가에 의해 성취된다"가 **위대함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것은 그 사람보다는 지위에 속한다"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 위대함이 **독립적 존재**라는 관점을 문법이 뒷받침합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And **when such as had come in contact with Strickland in the past**, writers who had known him in London, painters who had met him in the cafés of Montmartre, discovered to their amazement that where they had seen but an unsuccessful artist, like another, authentic genius had rubbed shoulders with them there began to appear in the magazines of France and America a succession of articles, the reminiscences of one, the appreciation of another, which added to Strickland's notoriety, and fed without satisfying the curiosity of the public.

과거에 스트릭랜드와 접촉했던 사람들, 런던에서 그를 알았던 작가들, 몽마르트르의 카페에서 그를 만났던 화가들이 자신들이 그저 또 다른 실패한 예술가로만 보았던 곳에서 진정한 천재가 어깨를 스쳤다는 사실을 놀랍게 발견하자, 프랑스와 미국의 잡지들에 연이어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회상, 다른 사람의 평가가 스트릭랜드의 명성을 더했고, 대중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는 못한 채 부채질했다.

when such as had come in contact with Strickland in the past

과거분사구: had come in contact (과거완료)

관계대명사 생략: such (people) as had come...

"과거에 스트릭랜드와 접촉했던 사람들"이라는 한국어는 관형사 "~했던"으로 간단합니다. 영어는 더 복잡합니다 — **such as** (~와 같은 사람들) + 과거완료(had come).

왜 과거완료인가? 이 문장의 주동사는 **discovered** (단순과거)입니다. **had come** 은 그보다 **더 이전**의 일을 나타냅니다.

—[had come in contact]—▶ discovered —▶ (지금)

더 먼 과거

과거

Maugham은 시간의 층위를 정교하게 구분합니다. "접촉"은 배경이고, "발견"이 사건입니다. 한국어 화자에게는 과도해 보일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런 시제 구분이 **시간의 원근감**을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제 2 장

1. 가정법 (Subjunctive)

I knew him more intimately than most: I met him first before ever he became a painter, and I saw him not infrequently during the difficult years he spent in Paris; but I do not suppose **I should ever have set down my recollections if the hazards of the war had not taken me to Tahiti.**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를 더 친밀하게 알고 있었다. 그가 화가가 되기 전에 처음 만났고, 그가 파리에서 보낸 힘든 시절 동안 자주 만났다. 하지만 전쟁의 우연한 기회가 나를 타히티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내 회상을 기록으로 남기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I should ever have set down ← 가정법 과거완료 (would have pp)

if ... had not taken ← 조건절 과거완료 (had pp)

"만약 전쟁이 나를 타히티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회상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실제로는 전쟁이 그를 타히티로 데려갔고, 그래서 이 회상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지 않았다면 ... ~지 않았을 것이다"로 표현하지만, 영어는 시제를 **두 단계** 뒤로 밀어서 비현실성을 표현합니다. **should have** (would have의 1인칭)와 **had not** 이 만드는 이 구조는 — "실제 일어난 일과 반대"라는 뜻을 문법에 새겨넣습니다.

Maugham이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유: 이 회상록 자체가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And if I may judge from the reviews, **many of these books are** well and carefully written; much thought has gone to their composition; to some even has been given the anxious labour of a lifetime.

그리고 서평들로 판단해보건대, 이런 책들 중 많은 수가 잘 쓰이고 정성스럽게 쓰인 것들이다. 구성에 많은 생각이 들어갔고, 어떤 것들에는 평생에 걸친 애타는 노력이 바쳐지기까지 했다.

many of these books are ← 복수 주어 + 복수 동사

much thought has gone ← 단수 주어 + 단수 동사

to some even has been given ← 도치된 수동태

"many of these books"에서 핵심은 **books**(복수)입니다. "many of"는 수식어구일 뿐 — 동사는 항상 실제 주어인 "books"와 일치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많은 책들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복수 개념이지만, 영어는 문법적으로 **강제**합니다. "many"이 아무리 단수처럼 보여도, "books"가 복수이면 "are"를 써야 합니다.

같은 문장에서 "much thought has gone"은 "thought"(불가산명사)가 단수이므로 "has"를 씁니다. Maugham이 한 문장에서 복수/단수를 번갈아 쓰는 것은 **리듬감** 때문입니다.

3. 수동태 (Passive Voice)

When so much **has been written** about Charles Strickland, it may seem unnecessary that I should write more.

찰스 스트릭랜드에 대해 이미 그토록 많은 글이 쓰였는데, 내가 더 쓸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has been written ← 현재완료 수동태

= someone has written (능동) → it has been written (수동)

"찰스 스트릭랜드에 대해 이미 많은 글이 쓰였다" —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여왔고, 그 결과가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was written"이었다면 "옛날에 쓰였다"는 뜻이고, "is written"이면 "지금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has been written"은 **누적된 결과**를 강조합니다.

한국어 "쓰였다"는 시제가 모호하지만, 영어는 정확합니다. Maugham이 현재완료를 쓴 이유: "이미 충분히 많이 쓰였으니 내가 또 쓸 필요가 있나?"라는 **현재의 고민**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4.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Heaven knows what pains the author has been at, what bitter experiences he has endured and what heartache suffered, to **give some chance reader a few hours' relaxation or to while away the tedium of a journey.**

하늘만이 아시겠지만, 저자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견뎠을지,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지를, 그저 우연한 독자 한 명에게 몇 시간의 휴식을 주거나 여행의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말이다.

what pains ... has been at

what bitter experiences ... has endured

what heartache [has] suffered

↓

to give ... relaxation or to while away ...

세 개의 "what" 절이 병렬로 나열되고, 마지막에 "to give ... or to while away"가 목적을 나타냅니다. 한국어에서는 "얼마나 ... 했을지, 얼마나 ... 했을지, 얼마나 ... 했을지"로 리듬을 만들지만, 영어는 **구조의 반복**으로 같은 효과를 냅니다.

"to give"와 "to while away"는 완벽한 병렬입니다 — 둘 다 부정사구이고, 둘 다 같은 목적(독자를 위한 것)을 나타냅니다.

Maugham의 의도: 작가의 고통을 **세 겹으로 쌓아올린** 다음, "고작 이런 것을 위해서"라는 대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병렬구조가 이 아이러니를 강화합니다.

5. 도치 (Inversion)

Then came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Napoleonic Wars, and the poets sang new songs.

그러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고, 시인들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일반 어순: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Napoleonic Wars came

"Then"으로 시작하면서 주어와 동사가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그러다 혁명이 일어났다"가 자연스럽지만, 영어는 보통 "Then the revolution came"입니다.

하지만 Maugham은 "**came**"를 **앞으로** 끌어내서 사건의 **갑작스러움**을 강조합니다. 마치 혁명이 무대 위로 등장하는 것처럼 — "came"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도치는 문학에서 **극적 효과**를 위해 씁니다. "Then the French Revolution came"보다 "Then came the French Revolution"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들립니다.

제 3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t is long since I frequented it, and if the **novels that describe its present singularities are** accurate much in it is now changed.

그곳을 드나든 지 오래되었고, 현재의 특이한 모습들을 묘사한 소설들이 정확하다면 많은 것이 지금은 바뀌었다.

novel₁ that describe ... are accurate

novel₂ that describe ... are accurate

novel₃ that describe ... are accurate

novels는 복수이므로 동사도 are 입니다. 하지만 한국어 번역을 보면 "소설들이 정확하다면"으로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일치가 문법적으로 강제됩니다. novels 라고 쓰는 순간 is 를 쓸 수 없습니다. 한국어는 "소설이 정확하다면"이든 "소설들이 정확하다면"이든 동사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Maugham이 novels (복수)를 선택한 이유는 — 여러 작품이 일치하는 증언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소설이라면 편견일 수 있지만, 여러 소설이 같은 변화를 묘사한다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2. 가정법 (Subjunctive)

They wished to be taken for men of the world, and could have passed anywhere for the managing clerks of a city firm.

그들은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으로 통하고 싶어 했고, 어디서든 시내 회사의 관리 사무원으로 통할 수 있었을 것이다.

wished to be taken for ... - 되고 싶어 했다 (소망)

could have passed for ... -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가능성)

wished to be taken for 는 "~로 여겨지고 싶어 했다"는 뜻입니다. 수동태(be taken)가 들어간 이유는 —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봐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could have passed for 는 "~로 통할 수 있었을 것이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직업을 가진 건 아니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는 "~고 싶어 했다"와 "~할 수 있었을 것이다"로 구분되지만, 영어는 wish + 수동태 와 could have + pp 로 더 정교하게 구조화합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 have a recollection of large, unbending women with great noses and rapacious eyes, who wore their clothes as though they were armour; and **of little, mouse-like spinsters, with soft voices and a shrewd glance.**

커다란 코와 탐욕스러운 눈을 가진 키 크고 완고한 여자들이 기억난다. 그들은 옷을 마치 갑옷처럼 입고 다녔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예리한 눈빛을 가진 쥐 같은 작은 노처녀들도 있었다.

I have a recollection of:

┆ large, unbending women with great noses and rapacious eyes

┆ little, mouse-like spinsters, with soft voices and shrewd glance

두 종류의 여성을 **대조적으로** 배치했습니다. **of large women** 과 **of little spinsters** — 전치사 **of** 가 반복되면서 평행 구조를 만듭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커다란... 여자들이 기억난다. 그리고... 노처녀들도 있었다"로 문장을 나눴지만, 원문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 대비를 만듭니다.

large/unbending vs little/mouse-like, great noses/rapacious eyes vs soft voices/shrewd glance — 크기, 성격, 신체적 특징이 모두 대조됩니다. 영어의 평행 구조가 이 대비를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It is not without melancholy that I wander among my recollections of the world of letters in London **when first, bashful but eager, I was introduced to it.**

수줍어하면서도 열정적이었던 내가 처음 런던 문단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헤매고 있노라면 우울함을 금할 수 없다.

when first, bashful but eager, I was introduced to it

↑

삽입된 형용사구

bashful but eager 가 문장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화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 수줍지만 동시에 열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수줍어하면서도 열정적이었던 내가"로 관형어로 처리했지만, 영어는 **삽입구**로 만들어서 더 즉석에서 떠오르는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first 도 흥미롭습니다. **when I was first introduced** 가 아니라 **when first... I was introduced** — 부사 **first** 가 앞으로 나와서 "처음"이라는 감각을 강조합니다. 첫 경험의 생생함을 문법 구조로 표현한 것입니다.

5. 수동태 (Passive Voice)

When we had done discussing the merits of the latest book, it was natural to wonder how many copies **had been sold**, what advance the author had received, and how much he was likely to make out of it.

최신작의 장점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부수가 팔렸는지, 작가가 얼마의 선인세를 받았는지, 그 책으로 얼마나 벌 것 같은지 궁금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how many copies had been sold ← 과거완료 수동태

what advance the author had received ← 과거완료 능동태

how much he was likely to make ← 단순과거 + 추측

had been sold 는 **과거완료 수동태**입니다. "논의를 마쳤을" 시점에서 보면, 책이 팔린 것은 그보다 더 이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에서는 "팔렸는지"로 단순하게 처리되지만, 영어는 시제로 **시간의 층위**를 구분합니다. discussed (과거) → had been sold (더 먼 과거).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was likely to make 는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 추측**입니다. 당시에 "앞으로 얼마나 벌 것 같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어는 이런 복잡한 시간 관계를 동사 형태로 정교하게 표현합니다.

제 4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Miss Waterford, torn between the aestheticism of her early youth, when she used to go to parties in sage green, holding a daffodil, and the **flippancy of her maturer years, which tended to high heels and Paris frocks, wore** a new hat.

워터포드 양은 세이지 그린 옷을 입고 수선화를 들고 파티에 다니던 젊은 시절의 미학주의와, 하이힐과 파리 드레스를 선호하는 성숙한 나이의 경박함 사이에서 갈등하며 새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 문장의 주어는 Miss Waterford 이고 동사는 wore 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50단어가 끼어있습니다.

Miss Waterford, [torn between... Paris frocks,] wore a new hat.

주어 [긴 수식구] 동사

한국어라면 "워터포드 양은... 새 모자를 쓰고 있었다"로 주어와 서술어가 문장 양 끝에 위치합니다. 영어는 주어-동사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서, 긴 수식이 있어도 동사를 뒤로 밀어냅니다.

Maugham이 이렇게 긴 삽입구를 넣은 이유는 — 워터포드 양의 **내적 갈등**을 문장 구조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의 거리가 그녀의 심리적 거리감을 반영합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Everyone **seemed to be talking, and I, sitting in silence, felt awkward; but I was too shy to break into any of the groups that seemed absorbed in their own affairs.**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고, 조용히 앉아 있던 나는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수줍어서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는 것 같은 어떤 무리에도 끼어들 수 없었다.

이 문장은 세미콜론(;)과 but 으로 세 개의 절을 연결합니다:

[Everyone seemed to be talking,]

[and I, sitting in silence, felt awkward;]

[but I was too shy to break into any groups]

한국어 번역에서는 "~것 같았고, ~느꼈다. 하지만 ~수 없었다"로 문장을 나눕니다. 영어는 하나의 문장 안에서 **대조의 리듬**을 만듭니다.

seemed... seemed 의 반복도 주목할 점입니다. 모든 것이 "~것 같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화자만 확실하게 "느꼈다(felt)"고 말합니다. Maugham이 만든 **확실함과 불확실함의 대비**입니다.

3. 도치 (Inversion)

There was a high dado of white wood and a green paper **on which were etchings** by Whistler in neat black frames.

높은 흰색 나무 벽판이 있었고, 녹색 벽지 위에는 휘슬러의 동판화들이 단정한 검은 액자에 걸려 있었다.

일반적인 어순은 **etchings were on the green paper** 입니다. 하지만 Maugham은 **도치**를 씁니다:

정상 어순: **etchings were on which** (= on the green paper)

도치 어순: **on which were etchings**

한국어에서는 "벽지 위에는 동판화들이 걸려 있었다"가 자연스럽습니다. "~에는"이라는 조사가 위치를 강조합니다.

영어 도치도 같은 효과입니다. **on which** 를 앞에 내세워서 **장소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독자의 시선을 벽지 → 그림 순서로 유도하는 **시각적 묘사법**입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Miss Waterford, torn between the aestheticism of her early youth, when she used to go to parties in sage green, **holding a daffodil**, and the flippancy of her maturer years, which tended to high heels and Paris frocks, wore a new hat.

워터포드 양은 세이지 그린 옷을 입고 수선화를 들고 파티에 다니던 젊은 시절의 미학주의와, 하이힐과 파리 드레스를 선호하는 성숙한 나이의 경박함 사이에서 갈등하며 새 모자를 쓰고 있었다.

holding a daffodil 은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분사입니다:

when she used to go to parties in sage green, holding a daffodil

파티에 가곤 했다

수선화를 들고

한국어에서는 "~하며", "~하면서"로 표현합니다. 영어 현재분사는 **주동작과 동시에** 일어나는 부수적 동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holding a daffodil** 은 단순한 동작 묘사가 아닙니다. 수선화는 **미학주의 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Maugham이 이 디테일을 현재분사로 처리한 이유는 — 그것이 파티 가는 행위의 **본질적 일부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5. 준동사 (Non-finite Verb)

Miss Waterford, torn between the aestheticism of her early youth, when she used **to go to parties in sage green**, holding a daffodil, and the flippancy of her maturer years, which tended to high heels and Paris frocks, wore a new hat.

워터포드 양은 세이지 그린 옷을 입고 수선화를 들고 파티에 다니던 젊은 시절의 미학주의와, 하이힐과 파리 드레스를 선호하는 성숙한 나이의 경박함 사이에서 갈등하며 새 모자를 쓰고 있었다.

used to go 에서 **to go** 는 **습관을 나타내는 부정사**입니다:

used to + 동사원형 = 과거의 습관

she used to go = 그녀는 가곤 했다

한국어에서는 "~하곤 했다", "~했었다"로 과거 습관을 표현합니다. 영어는 **used to** + 부정사 구조로 **반복적 과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층위**입니다. 워터포드 양의 "젊은 시절"은 이미 끝난 시기이고, **used to go**는 그 시절의 **반복적 행동을** 회상합니다. Maugham이 현재의 그녀와 과거의 그녀를 **대조**하기 위해 선택한 문법입니다.

제 5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Her flat was always neat and cheerful, gay with flowers, and the **chintzes in the drawing-room, notwithstanding their severe design, were** bright and pretty.

그녀의 아파트는 언제나 깔끔하고 밝았으며, 꽃들로 화사했고, 응접실의 무늬 있는 면직물들도 엄격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밝고 예뻐다.

Her flat was always neat and cheerful, gay with flowers,

and the chintzes in the drawing-room, notwithstanding their severe design, were bright and pretty.

여기서 주어는 **the chintzes**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in the drawing-room, notwithstanding their severe design**이라는 긴 수식어가 끼어듭니다. 한국어라면 "응접실의, 엄격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면직물들이"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영어는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어질 때 **일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Maugham은 **chintzes** (복수) → **were** (복수)로 정확히 맞춥니다. 만약 **was** 를 썼다면 문법 오류입니다. 영어는 거리가 멀어도 수 **일치**를 강제합니다. 한국어의 "~들이 ~다"는 자연스럽지만, 영어의 복수 일치는 **문법적 정밀성**을 요구합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The son—his name was Robert—was a boy of sixteen at Rugby; and you **saw him in flannels and a cricket cap, and again in a tail-coat and a stand-up collar.**

아들—이름은 로버트였다—은 럭비 학교에 다니는 열여섯 살 소년이었다. 사진 속 그는 플란넬 바지에 크리켓 모자를 쓰고 있기도 하고, 연미복에 세워진 칼라를 하고 있기도 했다.

you saw him in flannels and a cricket cap,

and again in a tail-coat and a stand-up collar

and again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플란넬과 크리켓 모자"(스포츠복), 두 번째는 "연미복과 세워진 칼라"(정장). **again**이 **대조**를 만듭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하기도 하고, ~하기도 했다"로 나타냅니다. 영어의 **and again**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강조**하는 장치입니다. Maugham은 같은 구조(**in + 의상**)를 반복하면서, **again**으로 변화를 표시합니다. 병렬 구조가 **안정감**을, **again**이 **변주**를 줍니다.

3. 가정법 (Subjunctive)

She said this not disparagingly, but affectionately rather, **as though, by acknowledging the worst about him, she wished to protect him from the aspersions of her friends.**

그녀는 이 말을 경멸조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정을 담아 했다. 마치 그의 최악의 면을 인정함으로써 친구들의 비난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듯했다.

as though, by acknowledging the worst about him,

she wished to protect him from the aspersions of her friends

as though 는 가정법을 이끎니다. she wished 는 과거형이지만, 실제로는 "마치 ~하려는 것처럼"이라는 추측입니다.

한국어에서는 "~하려는 듯했다"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지만, 영어는 as though + 과거형으로 비현실성을 표시합니다. 실제로 그녀가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화자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Maugham이 직설법(she wanted to protect)이 아닌 가정법을 쓴 이유: 그녀의 내면을 단정하지 않고, 관찰자의 추측으로 남겨둡니다. 영어의 가정법은 확실성에서 한 발 물러나는 장치입니다.

4. 수동태 (Passive Voice)

There are bosoms on which so many tears **have been shed** that I cannot bedew them with mine.

너무 많은 눈물이 흘러내린 가슴들이 있어서, 나는 그곳에 내 눈물을 더할 수가 없다.

There are bosoms on which so many tears have been shed

that I cannot bedew them with mine

have been shed 는 현재완료 수동태입니다. "눈물이 흘렀다"가 아니라 "눈물이 흘러져 왔다"—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누적을 표현합니다.

한국어에서는 "흘러내린"으로 번역되지만, 영어의 현재완료는 **결과의 지속**을 강조합니다. tears were shed (단순과거)라면 "그때 흘렀다"이지만, have been shed 는 "계속 흘러져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입니다.

Maugham의 의도: 그 가슴들은 이미 충분히 젖어있다. 내 눈물을 더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현재완료가 이 포화 상태를 전달합니다.

5. 관계사 (Relative Clause)

It is a charming faculty, but one often abused by those **who are conscious of its possession**: for there is something ghoulish in the avidity with which they will pounce upon the misfortune of their friends so that they may exercise their dexterity.

그것은 매력적인 능력이지만,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종종 남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친구들의 불행에 탐욕스럽게 달려들어 자신의 숨쉴 기회를 발휘하려는 그 열망에는 뭔가 소름끼치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those who are conscious of its possession

who 는 those 를 받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한국어에서는 "~하는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영어의 관계절은 제한적 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의식하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가리킵니다. 한국어의 "~하는"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 영어는 who 로 문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Maugham의 논리: 위로하는 능력 자체는 좋다 → 하지만 그 능력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who** 절이 이 **구분**을 만듭니다. 능력과 능력에 대한 **자각** 사이의 차이를 문법으로 표시합니다.

제 6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One morning Mrs. Strickland sent me round a note to say that she was giving a dinner-party that evening, and **one of her guests had failed** her.

어느 날 아침 스트릭랜드 부인이 쪽지를 보내왔는데, 그날 저녁 만찬회를 여는데 손님 중 한 명이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One of her guests had failed her — 여기서 **fail**은 "실망시키다, 저버리다"입니다. 한국어로는 "오지 못하게 되었다"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더 강합니다.

One of her guests (주어: 단수)

had failed (동사: 단수 일치)

her (목적어)

One of +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입니다. **guests**가 복수여도 **had failed**(단수)를 씁니다. 한국어에는 이런 수 일치가 없어서 번역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는 문법적으로 강제합니다.

fail someone은 "누군가를 실망시키다, 저버리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못 오다"가 아니라 "약속을 어기다"의 느낌이 있습니다. Maugham이 이 동사를 선택한 이유는 — 사교계의 **의무감**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2. 관계사 (Relative Clause)

The Stricklands "owed" dinners to a number of persons, **whom they took no interest in**, and so had asked them; these persons had accepted.

스트릭랜드 부부는 관심도 없는 여러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빚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초대했다. 그 사람들은 초대를 받아들였다.

whom they took no interest in — 전치사 **in**이 관계절 끝에 남겨져 있습니다. 격식을 차린다면 **in whom they took no interest**가 "올바른" 형태입니다.

격식체: persons in whom they took no interest

일반체: persons whom they took no interest in

하지만 Maugham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문장은 **사교계의 위선**을 다룹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한국어에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번역됩니다. 영어의 전치사 위치 문제는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선택이 **문체의 톤**을 결정합니다. Maugham의 선택: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위선을 폭로하기.

3. 수동태 (Passive Voice)

It was because the Member of Parliament found that he could not leave the House that I **had been invited**.

그 국회의원이 의회를 떠날 수 없다는 사정 때문에 내가 초대받은 것이었다.

I had been invited — 과거완료 수동태입니다. 왜 단순히 **I was invited** 가 아닐까요?

시간 순서:

1. 국회의원이 못 온다는 것을 알게 됨
2. (그 결과로) 내가 초대받음 ← **had been invited**
3. (지금) 그 이유를 깨달음 ← 서술 시점

과거완료는 **원인과 결과의 시간차**를 보여줍니다. 한국어 번역 "초대받은 것이었다"에서 "~은 것이었다"가 이 뉘앙스를 살리려 한 흔적입니다.

수동태를 쓴 이유: 화자는 **당한** 쪽입니다. 누군가의 사정으로 인한 **대타**로 불려온 것이죠. **had been invited** 는 문법적으로 이 상황의 **수동성과 시간적 거리감**을 모두 표현합니다.

4.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The women **were too nice to be well dressed, and too sure of their position to be amusing.**

여자들은 너무 점잖아서 멋지게 차려입지 못했고, 자신들의 지위를 너무 확신해서 재미있지 않았다.

too nice to be well dressed, and too sure of their position to be amusing — **too ... to** 구문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too nice to be well dressed] and [too sure of their position to be amusing]

A1	→	B1		A2	→	B2
----	---	----	--	----	---	----

이 구조는 **아이러니**를 만듭니다. 보통 "점잖다"와 "지위가 확고하다"는 좋은 것인데, 여기서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too** 가 "과도함"을 의미하면서 긍정적 특성을 부정적 결과로 연결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너무 ... 해서 ... 못했다"로 번역됩니다. 영어의 **too ... to** 구문이 가진 **필연성**의 느낌("할 수 없을 정도로")이 한국어에서도 살아있습니다. 병렬 구조가 이 아이러니를 **리듬감** 있게 전달합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When at last we were all assembled, waiting **for dinner to be announced**, I reflected, while I chatted with the woman I had been asked to "take in," that civilised man practises a strange ingenuity in wasting on tedious exercises the brief span of his life.

마침내 모든 사람이 모여 저녁 식사 시간이 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에스코트"해달라고 부탁받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명인이라는 존재가 짧은 인생을 지루한 일들로 낭비하는 데 기묘한 재주를 발휘한다는 생각을 했다.

waiting for dinner to be announced — 현재분사구가 **동시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dinner to be announced** 는 **수동 부정사**입니다.

we were assembled, [waiting for dinner to be announced]

주절

분사구 (동시 상황)

for dinner to be announced 에서 dinner 는 **의미상 주어**입니다. "저녁 식사가 발표되기를"이라는 뜻이죠. 능동으로 바꾸면 for someone to announce dinner 가 됩니다.

한국어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이 알려지기를 기다리며"로 번역됩니다. 영어의 to be announced 가 한국어의 "알려지기를"과 정확히 대응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문법적으로** 수동을 강제하는 반면, 한국어는 맥락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1. 시제 (Complex Tense)

But on my last day in town, coming out of the Stores, I met her with her son and daughter; like myself, she **had been making** her final purchases before leaving London, and we were both hot and tired.

그런데 런던에서의 마지막 날, 백화점에서 나오는 길에 그녀를 아들, 딸과 함께 만났다. 나처럼 그녀도 런던을 떠나기 전 마지막 쇼핑을 하고 있었고, 우리 둘 다 덥고 지쳐 있었다.

had been making - 과거완료진행형 (그 시점까지 계속 진행되던 행동)

were - 단순과거 (그 순간의 상태)

한국어에서는 "쇼핑을 하고 있었다"로 번역되지만, 원문의 **had been making**은 **과거완료진행형**입니다. "만났을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계속 쇼핑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영어는 시제로 **시간의 층위**를 구분합니다. **was making**이면 "만났을 때 쇼핑 중이었다"이고, **had been making**이면 "만나기 전부터 쇼핑을 계속하고 있었다"입니다. 한국어의 "~고 있었다"는 두 뜻을 모두 담을 수 있지만, 영어는 문법적으로 구분을 강제합니다.

Maugham이 이 시제를 선택한 이유: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지만, 사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동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The season was **drawing to its dusty end, and everyone I knew was arranging to go away.**

계절은 먼지투성이 끝자락으로 치달아가고 있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The season was drawing to its dusty end,

and everyone I knew was arranging to go away.

이 문장은 **대칭 구조**입니다. 두 절이 같은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 주어 + was + -ing (진행형)

-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동사들 (drawing to, arranging to)

한국어에서는 "~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다"로 번역되지만, 영어 원문의 리듬감은 더 정교합니다. **drawing to its dusty end**와 **arranging to go away** — 둘 다 **끝남**을 향해 가는 움직임입니다.

Maugham이 이 병렬 구조를 쓴 이유: 계절의 끝과 사람들의 떠남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문장 구조 자체가 내용을 반영합니다.

3.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Perhaps Charles Strickland was dull judged by a **standard that demanded** above all things verbal scintillation; but his intelligence was adequate to his surroundings, and that is a passport, not only to reasonable success, but still more to happiness.

무엇보다 언변의 번뜩임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찰스 스트릭랜드는 둔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지성은 자신의 환경에 충분했고, 그것은 합리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행복으로 가는 통행증이었다.

a standard that demanded above all things verbal scintillation

↑

관계대명사 that

that demanded 에서 that 은 관계대명사입니다. standard 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룹니다. 동사 demanded 는 선행사 standard 에 일치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언변의 번뜩임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번역됩니다. 한국어는 관계절이 선행사 **앞에** 옵니다("~하는 기준"). 영어는 선행사 **뒤에** 옵니다(standard that ~).

영어의 관계절은 **후치수식**입니다. 이것이 영어 문장을 길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어 화자에게는 "뒤에서 앞을 설명하는" 구조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I pictured their lives, **troubled by no untoward adventure, honest, decent, and,** by reason of those two upstanding, pleasant children, so obviously destined to carry on the normal traditions of their race and station, not without significance.

나는 그들의 삶을 그려보았다. 뜻밖의 모험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정직하고 품위 있으며, 자신들의 인종과 지위의 정상적인 전통을 이어갈 운명이 분명한 그 두 건실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덕분에 의미 없지 않은 삶을.

I pictured their lives,

↓

troubled by no untoward adventure,

honest,

decent,

and [...] not without significance

troubled, honest, decent 은 모두 their lives 를 수식하는 **과거분사/형용사**입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뜻밖의 모험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정직하고 품위 있으며"로 나타납니다.

영어에서 이런 구조는 **누적 효과**를 만듭니다. 심표로 구분된 수식어들이 차례로 쌓이면서 their lives 의 모습을 점진적으로 그려냅니다. 한국어의 "~고, ~며"와 비슷하지만, 영어는 **명사 뒤에** 수식어가 옵니다.

Maugham이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평범한 삶의 여러 면을 **차근차근** 나열하면서, 독자가 그 삶을 천천히 그려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5. 준동사 (Non-finite Verb)

I pictured their lives, troubled by no untoward adventure, honest, decent, and, by reason of those two upstanding, pleasant children, so obviously destined **to carry on the normal traditions of their race and station, not without significance.**

나는 그들의 삶을 그려보았다. 뜻밖의 모험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정직하고 품위 있으며, 자신들의 인종과 지위의 정상적인 전통을 이어갈 운명이 분명한 그 두 건설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덕분에 의미 없지 않은 삶을.

so obviously destined to carry on the normal traditions

↑

to부정사 (목적)

destined to carry on에서 to carry on은 **to부정사**입니다. destined와 함께 쓰여서 "~할 운명이다"라는 의미를 만듭니다.

한국어에서는 "이어갈 운명이 분명한"으로 번역됩니다. 한국어의 "~할"(관형사형 어미)과 영어의 to부정사는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영어는 **방향성**이 더 강합니다. to carry on은 미래를 향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not without significance는 **이중부정**입니다. "의미가 없지 않다" =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절제된** 표현입니다. 영국식 절제미의 전형입니다.

제 8 장

1. 시제 (Complex Tense)

She asked me what I **had been doing** with myself during the summer, and with this help I managed to make some conversation till tea was brought in.

그녀는 여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물었고, 이 도움으로 나는 차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갔다.

had been doing - 과거완료진행형

한국어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는 단순한 과거입니다. 하지만 영어 **had been doing**은 **과거완료진행형** — "그 시점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일"을 뜻합니다.

시간축을 보면:

여름 내내 [had been doing] → asked → (지금)

계속 진행되던 일

대화 시점

단순히 **What did you do?** 라고 묻는 것과 다릅니다. **What had you been doing?**은 "그 기간 동안 꼭 무엇을 해왔는지" — **지속성**에 초점을 둡니다. 한국어는 "지내다"라는 동사로 이 뉘앙스를 담지만, 영어는 시제 자체가 그 의미를 강제합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 have been able to invest them with none of those characteristics which make the **persons of a book exist** with a real life of their own; and, wondering if the fault is mine, I rack my brains to remember idiosyncrasies which might lend them vividness.

나는 그들에게 책 속 인물들이 고유한 실제 생명력을 갖게 해주는 특성들을 부여하지 못했다. 혹시 내 잘못인가 싶어서, 그들을 생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특이한 점들을 기억해내려고 머리를 쥐어짤다.

persons of a book exist - 복수 주어 + 단수처럼 느껴지는 동사

"책 속 인물들이 존재한다" — 한국어로는 자연스럽습니다. 영어에서 **persons**는 복수인데 **exist**도 복수형이니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persons of a book**이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characters**라고 하는데, Maugham은 **persons**를 씁니다. 이는 **실제 사람처럼** 존재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합니다.

characters - 허구의 인물

persons - 실제 인격체

"real life of their own"과 연결됩니다 —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니라 **독립된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작가의 고민입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There was just that shadowiness about them which you find in people whose lives are part of the social organism, so that they exist **in it and by it only**.

그들에게는 사회 조직의 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호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 안에서, 그것에 의해서만 존재했다.

in it and by it only - 전치사구 병렬 + 강조 부사

한국어 "그 안에서, 그것에 의해서만"은 두 개의 조사 "~에서"와 "~에 의해"가 병렬됩니다. 영어는 전치사 **in**과 **by**를 병렬시킵니다.

exist in it - 그 안에 존재

exist by it - 그것에 의해 존재

only - 오직 그렇게만

이 구조가 보여주는 것: 이들은 **사회 조직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in it** (공간적 의존)과 **by it** (인과적 의존)을 나란히 놓아서 **완전한 종속**을 강조합니다. **only**가 마지막에 와서 "다른 방법은 없다"를 못박습니다.

4. 수동태 (Passive Voice)

I wondered if the poor devil **had been hammered** on the Stock Exchange or run over by an omnibus.

나는 그 불쌍한 자가 증권거래소에서 큰 손실을 입었거나 마차에 치였나 하고 생각했다.

had been hammered - 과거완료 수동태

"큰 손실을 입었다"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은 **수동태**입니다. **hammer**는 "망치로 두드리다"인데, 증권거래소에서 "두들겨 맞다" = "큰 손실을 당하다"는 은유입니다.

had been hammered - (그 이전에) 두들겨 맞았다

run over - (그 이후에) 치였다

시제 차이도 있습니다. **had been hammered**는 과거완료, **run over**는 과거분사(수동)입니다. 전자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후자는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차이가 사라집니다.

5. 가정법 (Subjunctive)

Finally it occurred to me that I would call **as though nothing had happened**, and send a message in by the maid asking Mrs. Strickland if it was convenient for her to see me.

마침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찾아가서 하녀를 통해 스트릭랜드 부인이 나를 만나기에 적당한지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s though nothing had happened - 가정법 과거완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 한국어는 "~던"으로 반사실을 표현합니다. 영어 **as though**는 가정법을 이끄는 표현이고, **had happened**는 과거완료입니다.

nothing had happened - 아무 일도 없었다 (반사실)

실제로는: something DID happen

여기서 핵심은 **연기**입니다. 화자는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려고 합니다. **as though**가 이 "가짜 태도"를 문법적으로 표현합니다. 한국어의 "~것처럼"도 같은 역할이지만, 영어는 시제까지 바꿔서 "현실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제 9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What Colonel MacAndrew had told me seemed very improbable, and I suspected that Mrs. **Strickland, for reasons of her own, had concealed** from him some part of the facts.

맥앤드류 대령이 내게 한 말은 매우 믿기 어려운 것 같았고, 나는 스트릭랜드 부인이 자신만의 이유로 그에게 사실의 일부를 숨겼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Mrs. Strickland, for reasons of her own, had concealed

주어 + 삽입구 + 동사

for reasons of her own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어라면 "스트릭랜드 부인이 자신만의 이유로 숨겼다"처럼 자연스럽게 붙여 쓸 텐데, 영어는 **삽입**으로 처리합니다.

왜 Maugham이 이렇게 썼을까요? Mrs. Strickland had concealed 만 쓰면 단순한 서술입니다. 하지만 for reasons of her own 을 **중간에** 넣으면서 독자가 잠깐 멈추게 됩니다. "아, 그녀만의 이유가 있구나" — 이 정보가 동사보다 **먼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영어의 삽입구는 한국어의 관형어와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한국어는 수식어가 앞에 오지만, 영어는 **중간에** 끼워 넣어서 리듬을 만듭니다.

2. 시제 (Complex Tense)

I realised that he had come away with me in order to discuss once more what he **had been already discussing** for hours with his sister-in-law.

그가 나와 함께 나온 것은 이미 처제와 몇 시간 동안 논의했던 일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what he had been already discussing for hours

과거완료진행형 + 부사 already

had been discussing 은 과거완료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 이전부터 그 시점까지 계속 진행되던 동작"을 나타냅니다.

—[had been discussing]—▶ came away —▶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 과거 사건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미 논의했던"으로 단순하게 처리했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다릅니다. Maugham은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already 가 중간에 들어간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시작해서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의미를 더 강화합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t appeared that when everything was settled he would be **four or five hundred** pounds out of pocket.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면 그는 4백에서 5백 파운드 정도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았다.

four or five hundred pounds

수사 + or + 수사 + 명사

"4백에서 5백 파운드" — 한국어에서는 "~에서 ~까지"나 "~ 정도"로 표현하는 것을 영어는 **A or B**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추정**의 표현입니다. 정확히 400파운드도, 500파운드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한국어의 "~ 정도"보다 더 구체적이면서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Maugham이 **about four hundred** 나 **approximately 400-500** 이 아니라 **four or five hundred** 를 선택한 이유는? 이 표현이 더 **구어적**이고 **즉석에서 계산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MacAndrew가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해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It appeared that **when everything was settled** he would be four or five hundred pounds out of pocket.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면 그는 4백에서 5백 파운드 정도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았다.

when everything was settled

시간접속사 + 주어 + 수동태 과거

settled 는 과거분사이지만 여기서는 **수동태**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 누군가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저절로** 정리되는 뉘앙스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정리되고 나면"처럼 자연스럽게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지만, 영어는 **be + pp** 구조로 **명시적**으로 수동태를 만듭니다.

when everything was settled 에서 중요한 것은 **완료성**입니다. 진행 중인 일들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when everything settles** 와 다른 점 — 과거형을 써서 **확정된 미래**처럼 표현합니다.

5. 준동사 (Non-finite Verb)

It was clear that a man after seventeen years of wedlock did not leave his wife without certain occurrences which must have led her **to suspect that all was not well with their married life.**

십칠 년간 결혼생활을 한 남자가 아내로 하여금 그들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의심하게 만들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고, 그런 일 없이는 아내를 떠나지 않을 것이 명백했다.

led her to suspect that all was not well

동사 + 목적어 + to부정사 + that절

lead someone to do something — "누군가로 하여금 ~하게 하다"는 **사역** 표현입니다. 한국어의 "~하게 하다"와 비슷하지만, 영어는 **to부정사**로 **방향성**을 표현합니다.

occurrences → led her → to suspect → that all was not well

사건들이 그녀를 의심하게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쇄 반응**입니다. 어떤 일들이 → 그녀로 하여금 → 의심하게 → 만들었다는 **단계적 과정**을 **lead to**가 보여줍니다.

all was not well도 주목할 표현입니다. **things were bad**가 아니라 **all was not well** — 더 완곡하고 품위 있는 표현입니다. 1900년대 영국 중산층의 언어 감각이 드러납니다.

제 10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His partner, in a violent letter, sent to his bank, had taunted him with hiding his whereabouts: and **Strickland, in a cynical and humourous reply, had told** his partner exactly where to find him.

그의 동업자가 은행으로 보낸 격렬한 편지에서 그가 행방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스트릭랜드는 냉소적이고 유머러스한 답장으로 동업자에게 자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었다.

삽입구가 주어를 둘러쌀 때의 동사 일치입니다.

Strickland, [in a cynical and humourous reply], had told

주어 삽입구 동사

한국어에서는 "스트릭랜드는 냉소적이고 유머러스한 답장으로 알려주었다"처럼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영어는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어져도 문법적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Strickland(단수) → had told(단수 동사). 중간에 reply가 끼어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His partners, in a reply, had told"였다면 복수 주어에 맞춰야 하죠.

이런 구조에서 Maugham이 얻는 효과: 삽입구가 어조를 미리 깔아줍니다. 독자는 "cynical and humourous"라는 프레임을 통해 had told를 읽게 됩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Mrs. Strickland **was the daughter of an Indian civilian, who on his retirement had settled in the depths of the country, but it was his habit every August to take his family to Eastbourne for change of air; and it was here, when she was twenty, that she met Charles Strickland.**

스트릭랜드 부인은 인도 문관의 딸이었는데, 그는 은퇴 후 시골 깊은 곳에 정착했지만 매년 8월이면 가족을 데리고 이스트본으로 전지 요양을 가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녀가 스무 살 때 찰스 스트릭랜드를 만났다.

병렬구조가 문장을 확장하는 고전적 패턴입니다.

was the daughter of... who had settled... but it was his habit... and it was here... that she met

한국어는 "~었는데, ~했지만, ~였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영어는 **but** 과 **and** 로 **대등한 절들을 연결하면서 문장을 확장** 합니다.

특히 마지막 **and it was here... that she met** 는 **강조구문(cleft sentence)**입니다. "그녀가 만난 곳이 바로 여기였다" — **it was here that** 로 장소를 부각시킵니다.

Maugham의 의도: 한 문장으로 **배경** → **습관** → **운명적 만남**까지 그려냅니다. 병렬구조가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3. 수동태 (Passive Voice)

I had the presence of mind to say that their father **had been called** away on business."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사업상 급히 출장을 가셨다고 말했어요."

과거완료 수동태입니다.

had been called = had been + past participle

과거완료 수동태

한국어 "출장을 가셨다"는 능동적으로 들리지만, 영어 원문은 **수동태**입니다. "called away" = "불려나갔다" —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왜 수동태일까요? 화자(Mrs. Strickland)는 **누가** 남편을 불렀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동태는 **행위자를 감추는** 도구죠. "사업상 급히 불려나갔다" — 애매하게 처리하면서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과거완료(had been)인 이유: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점보다 **더 이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4. 시제 (Complex Tense)

I foresaw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make my exit with dignity, and I wished to goodness that I **had not returned** to London till Mrs. Strickland had composed her difficulties.

품위 있게 물러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트릭랜드 부인이 자신의 문제를 정리할 때까지 런던에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가정법 과거완료로 후회를 표현합니다.

I wished... that I had not returned

현재 후회 과거완료 (실제로는 돌아왔음)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 실제로는 돌아왔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시제를 **한 단계 더 과거**로 밀어서(had not returned) 이 "현실과 다른 바람"을 표현합니다.

한국어 "~말았어야 했다"와 영어 wished... had not 의 차이: 한국어는 어미로 후회를 드러내지만, 영어는 **시제의 층위**로 현실과 바람을 구분합니다.

화자의 심리: 이미 곤란한 상황에 말려들었다는 자각. **till Mrs. Strickland had composed** 도 과거완료 — 그녀가 문제를 정리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I foresaw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make my exit with dignity, and I wished to goodness that I had not returned to London **till Mrs. Strickland had composed her difficulties**.

품위 있게 물러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트릭랜드 부인이 자신의 문제를 정리할 때까지 런던에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과거완료의 완료 의미입니다.

till Mrs. Strickland had composed her difficulties

~까지 (그녀가 문제들을 정리해버린 상태가 될 때까지)

compose 는 여기서 "정리하다, 해결하다"는 뜻입니다. had composed 는 단순히 "정리했다"가 아니라 "정리를 **완전히 끝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어 번역 "문제를 정리할 때까지"는 과정을 강조하지만, 영어 원문은 **결과 상태**를 강조합니다. 과거완료의 핵심은 "그 시점에서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till + 과거완료 조합: "그 완료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 단순히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특정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화자는 그녀가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돌아왔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겁니다.

제 11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t was a tall, shabby building, that cannot have been painted for years, and it had so bedraggled an air that the **houses on each side of it looked** neat and clean.

키가 큰 초라한 건물로, 몇 년째 페인트칠을 하지 않은 것 같았고, 너무나 남루한 모습이어서 양옆의 집들이 깔끔하고 깨끗해 보일 정도였다.

한국어에서는 "양옆의 집들이 깔끔해 보였다"로 자연스럽게 번역되지만, 영어 원문의 구조를 보면:

the houses on each side of it looked neat and clean

주어: the houses

수식구: on each side of it (전치사구가 주어를 뒤에서 수식)

동사: looked

한국어는 "양옆의 집들"처럼 관형어가 앞에서 수식하지만, 영어는 주어 뒤에 전치사구가 와서 수식할 수 있습니다. **houses on each side** 는 "각 옆쪽에 있는 집들"이라는 하나의 주어 덩어리입니다.

Maugham이 **the houses on each side of it** 라고 쓴 이유는 — 독자의 시선을 그 초라한 건물에서 시작해서 양옆으로 천천히 이동시키려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가 팬닝하듯이.

2. 도치 (Inversion)

There was a large wooden bedstead **on which was a billowing red eiderdown**, and there was a large wardrobe, a round table, a very small washstand, and two stuffed chairs covered with red rep.

붉은 솜이불이 부풀어 오른 큰 나무 침대가 하나 있었고, 큰 옷장과 둥근 탁자, 아주 작은 세면대, 그리고 붉은 모직으로 덮인 쿠션 의자 두 개가 있었다.

이것은 **장소 도치(locative inversion)**입니다. 정상 어순이라면:

정상: A billowing red eiderdown was on the bedstead

도치: on which was a billowing red eiderdown

한국어에서는 "침대 위에 붉은 솜이불이 있었다"가 자연스럽습니다. 장소가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영어는 보통 주어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는 **on which** (장소)가 동사 **was** 앞에 나옵니다.

왜 Maugham이 도치를 썼을까요? 관계절 안에서 **on which** 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 침대 **위에는**"이라는 장소감을 부각시키면서, 독자의 시선을 침대 표면으로 집중시킵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There was a large wooden bedstead on which was a billowing red eiderdown, and there **was a large wardrobe, a round table, a very small washstand, and two stuffed chairs covered with red rep.**

붉은 솜이불이 부풀어 오른 큰 나무 침대가 하나 있었고, 큰 옷장과 둥근 탁자, 아주 작은 세면대, 그리고 붉은 모직으로 덮인 쿠션 의자 두 개가 있었다.

이 문장은 **there was** 구문 안에서 **병렬구조**를 만듭니다:

```
there was a large wardrobe,  
  
    a round table,  
  
    a very small washstand,  
  
and two stuffed chairs covered with red rep
```

한국어 번역에서는 "큰 옷장과 둥근 탁자, 아주 작은 세면대, 그리고..."로 자연스럽게 나열됩니다. 한국어의 "~과, ~와, ~그리고"가 영어의 쉼표와 **and**에 대응합니다.

주목할 점은 마지막 항목 **two stuffed chairs covered with red rep**입니다. 앞의 세 항목은 단순한 명사구인데, 마지막만 과거 분사 **covered**로 수식됩니다. Maugham이 의자에만 색깔과 재질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유는 — 방의 전체적인 **붉은 색조**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It was evident that she had been prepared to weep, **for she had provided herself with a sufficiency of handkerchiefs;** I admired her forethought, but in retrospect it made her tears perhaps less moving.

그녀가 울 준비를 해왔다는 것은 분명했다. 충분한 양의 손수건을 준비해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의 선견지명에 감탄했지만, 돌이켜보니 그것이 그녀의 눈물을 덜 감동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provided**는 **재귀적 용법**입니다:

```
she had provided herself with a sufficiency of handkerchiefs
```

그녀가 자신에게 충분한 손수건을 준비해주었다

한국어에서는 "손수건을 준비해왔다"로 간단히 번역되지만, 영어 원문은 **provide oneself with**라는 구조를 씁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 ~을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완료 **had provided**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화자가 그녀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즉, 그녀는 울기 전부터 이미 손수건을 챙겨온 것입니다.

Maugham의 아이러니: 진짜 슬픔은 예상치 못한 것인데, 그녀는 **계획적으로** 울 준비를 했습니다. **provide oneself with**라는 표현이 이 계획성을 강조합니다.

5. 시제 (Complex Tense)

It was a tall, shabby building, that cannot have been painted for years, and it **had so bedraggled** an air that the houses on each side of it looked neat and clean.

키가 큰 초라한 건물로, 몇 년째 페인트칠을 하지 않은 것 같았고, 너무나 남루한 모습이어서 양옆의 집들이 깔끔하고 깨끗해 보일 정도였다.

이 문장에서 **had** 는 **강조 구문**을 만듭니다:

정상 어순: it had a very bedraggled air

강조 구문: it had so bedraggled an air

한국어에서는 "너무나 남루한 모습"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이 영어의 **so ... an** 구조에 해당합니다. **so bedraggled an air** 는 **such a bedraggled air** 와 같은 뜻이지만, **so + 형용사 + a/an + 명사** 구조가 더 강조적입니다.

so + bedraggled + an + air = 너무나 남루한 + 모습

Maugham이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그 건물의 초라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a bedraggled air** 라고 했다면 평범한 묘사가 되지만, **so bedraggled an air** 는 그 초라함이 **극도**에 달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 12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The eloquent **phrases I had arranged, pathetic or indignant, seemed** out of place on the Avenue de Clichy.

내가 준비해온 감동적이거나 분개에 찬 웅변조의 문구들이 클리시 거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The eloquent phrases [I had arranged], pathetic or indignant, seemed out of place

주어 [관계절] 동격 수식구 동사

주어 **phrases**와 동사 **seemed** 사이에 **두 겹의 수식**이 끼어듭니다. 관계절 **I had arranged**와 동격 수식구 **pathetic or indignant**가 주어를 길게 늘립니다.

한국어라면 "내가 준비한 감동적이거나 분개에 찬 웅변조의 문구들이"로 주어를 앞에서 완성하고 동사로 넘어갑니다. 영어는 주어를 시작한 후 **중간에 정보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Maugham이 이 구조를 쓴 이유: 화자가 준비한 말들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문장 구조 자체가 어색하게 늘어지면서, 그 말들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형식으로도** 보여줍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There were clerks and shopgirls; old fellows who might have stepped out of the pages of Honore de **Balzac; members, male and female**, of the professions which make their profit of the frailties of mankind.

사무원들과 점원 아가씨들이 있었고, 오노레 드 발자크의 소설 페이지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늙은 남자들이 있었으며, 인간의 약점으로 이익을 취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남녀들이 있었다.

There were clerks and shopgirls;

old fellows who might have stepped out...;

members, male and female, of the professions...

세미콜론(;)으로 연결된 **병렬 구조**입니다. 각 절이 "There were + 명사구" 패턴을 공유하면서도, 점점 길고 복잡해집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있었고, ~이 있었으며, ~이 있었다"로 어미를 반복합니다. 영어는 **There were**를 생략하면서도 병렬성을 유지합니다.

Maugham의 의도: 카페의 다양한 인물들을 **카메라가 패닝하듯** 보여주는 효과입니다. 세미콜론이 시선의 이동을 표시하고, 각 절이 점점 길어지면서 관찰이 깊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3. 관계사 (Relative Clause)

I might have spoken of the economic position of woman, of the contract, tacit and overt, **which a man accepts by his marriage**, and of much else; but I felt that there was only one point which really signified.

나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나, 남자가 결혼으로써 받아들이는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계약,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에 대해 말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느꼈다.

the contract, tacit and overt, [which a man accepts by his marriage]

선행사 삽입구 [관계절 - which가 목적어]

which가 관계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a man accepts [the contract] by his marriage"에서 목적어 자리의 **the contract**가 **which**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남자가 결혼으로써 받아들이는 계약"처럼 관계절이 선행사 **앞에** 옵니다. 영어는 선행사 **뒤에** 관계절이 따라오면서 정보를 점진적으로 추가합니다.

tacit and overt가 중간에 삽입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Maugham이 계약의 **이중성**을 강조하려는 의도 — 결혼은 명시적이면서도 암묵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문장 구조로 보여줍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I wondered what a stranger would have taken him to be, **sitting there in his old Norfolk jacket and his unbrushed bowler**; his trousers were baggy, his hands were not clean; and his face, with the red stubble of the unshaved chin, the little eyes, and the large, aggressive nose, was uncouth and coarse.

낡은 노퍽 재킷과 솔질하지 않은 중절모를 쓰고 그곳에 앉아 있는 그를 보고 낯선 사람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궁금했다. 바지는 헐렁했고, 손은 깨끗하지 않았으며, 면도하지 않은 턱의 붉은 수염, 작은 눈, 크고 공격적인 코가 있는 얼굴은 거칠고 조야했다.

I wondered what a stranger would have taken him to be,

[sitting there in his old Norfolk jacket and his unbrushed bowler]

현재분사구 - 동시 상황 묘사

현재분사 **sitting**이 **동시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가 앉아 있는 동안 낯선 사람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어에서는 "~하고 앉아 있는"처럼 연결어미로 처리합니다. 영어의 분사구는 **시각적 장면**을 더 생생하게 만듭니다.

Maugham의 의도: 독자가 Strickland를 **화자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사구가 만드는 정지된 장면 — 낡은 재킷, 솔질하지 않은 모자 — 이 모든 것이 한 프레임 안에 담깁니다. 문법이 **사진의 구도**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5. 수동태 (Passive Voice)

It **must be remembered** that I was very young, and I looked upon him as a middle-aged man.

당시 내가 아주 젊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는 그를 중년 남자로 여겼다.

It must be remembered that I was very young

조동사 + be + 과거분사 = 의무의 수동태

must be remembered 는 **의무를 나타내는 수동태**입니다. "기억되어야 한다" =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로 능동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의 수동태가 **객관성**을 강조한다면, 한국어는 직접적인 당부로 표현합니다.

Maugham이 수동태를 쓴 이유: 화자가 **변명하는** 뉘앙스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 "그것이 기억되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수동태가 만드는 **거리감**이 화자의 어색함을 보여줍니다.

제 13 장

1. 가정법 (Subjunctive)

I think perhaps I should have made a show of the indignation I really felt, and I am sure **that Colonel MacAndrew at least would have thought well of me if I had been able to report my stout refusal to sit at the same table with a man of such character.**

아마 내가 실제로 느꼈던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옳았을 테고, 그런 인격의 남자와 같은 식탁에 앉기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보고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맥앤드류 대령은 나를 좋게 봤을 것이다.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완료의 중첩**입니다. 화자가 두 겹의 후회를 표현합니다.

I should have made a show - 나는 보여줬어야 했다 (하지만 안 했다)

would have thought well - 좋게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

if I had been able to report - 만약 보고할 수 있었다면 (하지만 못했다)

한국어에서는 "~했어야 했는데"와 "~했을 텐데"로 구분하지만, 영어는 시제로 **현실과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합니다. **should have + pp**는 "했어야 했지만 안 한" 후회, **would have + pp**는 "그랬다면 일어났을" 가상의 결과입니다.

화자는 도덕적 분노를 표현하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면서도, 동시에 그랬다면 대령이 좋아했을 거라는 **또 다른 가정**을 덧붙입니다. 이중 가정법 — 현실에서 두 발 물러난 시제입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But the **fear of not being able to carry it through effectively has always made** me shy of assuming the moral attitude; and in this case the certainty that my sentiments would be lost on Strickland made it peculiarly embarrassing to utter them.

하지만 효과적으로 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늘 도덕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꺼려했고, 이 경우에는 내 감정이 스트릭랜드에게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 확실했기에 그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이 특히 난처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복합 주어**의 일치입니다:

The fear of not being able to carry it through effectively

↓

has always made me shy

주어는 **fear**이지만, 그 뒤에 긴 전치사구 **of not being able to...**가 붙습니다. 한국어라면 "~에 대한 두려움이"로 자연스럽게 처리되지만, 영어에서는 **거리가 먼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fear (단수) → has made (단수)

중간에 **not being able to carry it through effectively**라는 긴 구가 끼어있어도, 문법적 핵심은 **fear has made**입니다. Maugham은 이런 구조로 화자의 **복잡한 심리**를 한 문장에 담습니다 — 도덕적 자세를 취하고 싶지만,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 paid for what we had drunk, and we made our way to a cheap **restaurant, crowded and gay**, where we dined with pleasure.

우리가 마신 것의 값을 치르고, 붐비고 활기찬 값싼 식당으로 가서 즐겁게 저녁을 먹었다.

여기서 **crowded and gay** 는 **병렬 형용사로** **restaurant** 을 수식합니다:

restaurant, crowded and gay, where...

↑

두 형용사가 병렬로 식당을 묘사

한국어에서는 "붐비고 활기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영어에서는 **and** 로 **동등한 지위**를 명시합니다. 심표로 앞뒤를 끊은 것은 이 묘사가 **부가 정보**임을 보여줍니다.

gay 는 여기서 "즐거운, 활기찬"의 뜻입니다 (1919년 작품). **crowded** (물리적 상태)와 **gay** (분위기)가 병렬로 배치되어, 식당의 **외적 조건과 내적 분위기**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이런 병렬 구조는 영어 문체의 **균형감**을 만듭니다.

4. 관계사 (Relative Clause)

I paid for what we had drunk, and we made our way to a cheap restaurant, crowded and gay, **where we dined with pleasure**.

우리가 마신 것의 값을 치르고, 붐비고 활기찬 값싼 식당으로 가서 즐겁게 저녁을 먹었다.

관계부사 **where** 가 **장소의 관계절**을 만듭니다:

a cheap restaurant... where we dined with pleasure

↑

장소 + 그곳에서 일어난 행동

한국어에서는 "~에서"로 처리되지만, 영어의 **where** 는 **관계절**을 시작합니다. **where = in which** 의 의미로, 앞의 명사(restaurant)를 받아서 새로운 절을 연결합니다.

이 구조의 효과: 단순히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가 아니라, 식당의 **특성**(crowded and gay)과 그곳에서의 **경험**(dined with pleasure)을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where** 절이 없었다면 평면적인 서술이었을 텐데, 관계절로 **입체감**을 만듭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In a little while she went out, but **in a minute returned and, passing our table**, very politely asked us to buy her

something to drink.

잠시 후 그녀가 나갔다가 곧 돌아와서 우리 테이블을 지나가며 아주 정중하게 술 한 잔 사달라고 부탁했다.

여기서 **passing our table** 은 **현재분사구**로, 동시 행동을 나타냅니다:

returned and, passing our table, very politely asked

↑

돌아오면서 + 지나가면서 + 부탁했다

한국어에서는 "지나가며"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지만, 영어에서는 분사구가 **시간의 겹침**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returned** → **passing** → **asked** 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동작들입니다.

심표로 **passing our table** 을 끊어낸 것은 이것이 **부수적 행동**임을 표시합니다. 주요 동작은 **returned and asked** 이고, **passing** 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분사구는 영어 서술에 **동적인 흐름**을 만듭니다.

제 14 장

1. 시제 (Complex Tense)

I tried to persuade myself than an obscure feeling of revolt **had been gradually coming** to a head in his slow mind, but to challenge this was the undoubted fact that he had never shown any impatience with the monotony of his life.

그의 둔한 정신 속에서 막연한 반항심이 서서히 고조되어 왔다고 스스로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이에 반박하는 명백한 사실은 그가 자신의 단조로운 삶에 대해 한 번도 조바심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had been gradually coming ← 과거완료 진행형

had never shown ← 과거완료

과거완료 진행형(had been + ~ing)은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상황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화자는 스트릭랜드의 마음속에서 반항심이 **서서히, 지속적으로** 자라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한국어 "서서히 고조되어 왔다"는 이미 이 뉘앙스를 담고 있지만, 영어는 문법으로 강제합니다. **came** (왔다)와 **had been coming** (와 있었다)의 차이 — 후자는 **과정의 지속성**을 시제에 새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had never shown** (과거완료)으로 이 추측을 반박합니다. 같은 시간대(had)에서 진행형과 완료형을 대조시켜, 추측과 사실의 충돌을 부각시킵니다.

2. 가정법 (Subjunctive)

If, seized by an intolerable boredom, he had determined to be a painter merely to break with irksome ties, it would have been comprehensible, and commonplace; but commonplace is precisely what I felt he was not.

만약 참을 수 없는 권태감에 사로잡혀 성가신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목적만으로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이해할 만하고 평범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평범함이야말로 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느끼는 바였다.

If he had determined ... it would have been comprehensible

만약 결심했다면 ... 이해할 만했을 것이다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만약 A했다면, B했을 것이다" — 실제로는 A도 B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Maugham이 말하는 것: 스트릭랜드가 **단순히 권태감 때문에** 화가가 되었다면 평범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평범하지 않다. 즉, 그의 동기는 권태감이 **아니다**.

한국어에서는 "~했다면 ... ~았을 것이다"로 표현하지만, 영어는 시제를 두 단계 뒤로 밀어서(had pp + would have pp) 현실과의 거리를 만듭니다. 이 거리감이 바로 "그렇지 않다"는 암시입니다.

3.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t was this: I asked myself whether there was not in his soul some deep-rooted instinct of creation, which the **circumstances of his life had obscured**, but which grew relentlessly, as a cancer may grow in the living tissues, till at last it took possession of his whole being and forced him irresistibly to action.

그것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창조의 본능이 뿌리박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자문해보았다. 그의 삶의 환경이 그 본능을 가려왔지만, 암이 살아있는 조직에서 자라나듯 그것이 무자비하게 성장하여 마침내 그의 존재 전체를 장악하고 그를 거부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내몰았던 것은 아닐까.

some deep-rooted instinct ... which the circumstances had obscured

which grew relentlessly

till it took possession

and forced him

복잡한 주어 구조입니다. **instinct**가 주어이고, 네 개의 관계절이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어로는 "본능이 ... 가려졌지만 ... 성장하여 ... 장악하고 ... 내몰았다"가 됩니다.

영어의 관계절은 **앞에서 뒤로** 정보를 쌓아갑니다. **instinct** → **which had obscured** → **which grew** → **till it took** → **and forced**. 마치 카메라가 점점 확대되듯, 본능의 정체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벌인 파괴적 행동까지 따라갑니다.

한국어는 수식어가 **앞에서** 나오지만(깊이 뿌리박힌 창조의 본능), 영어는 **뒤에서** 풀어냅니다. 이 구조가 서스펜스를 만듭니다.

4.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The cuckoo lays its egg in the strange bird's nest, and when the young one is hatched it **shoulders its foster-brothers out and breaks at last the nest that has sheltered it.**

빼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하면 양부모의 새끼들을 밀어내고 마침내 자신을 보살펴준 둥지를 부숴버린다.

shoulders its foster-brothers out and breaks at last the nest

양부모의 새끼들을 밀어내고 그리고 마침내 둥지를 부숴버린다

두 동사가 **and**로 병렬 연결됩니다. 하지만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shoulders out** (밀어낸다), 그 다음 **breaks** (부순다). **at last**가 이 순서를 명확히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밀어내고 ... 부숴버린다"로 자연스럽게 순서가 드러나지만, 영어는 병렬 구조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and**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암시합니다.

이 문장은 스트릭랜드를 빼꾸기에 비유합니다. 먼저 가족들을 밀어내고(**shoulders out**), 마침내 가정 자체를 파괴한다(**breaks the nest**). 병렬 구조가 파괴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When I had asked him what first gave him the idea of being a painter, he was unable or unwilling to tell me.

처음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말할 수 없거나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When I had asked him ... he was unable or unwilling

내가 물었을 때 ... 그는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When I had asked 는 과거완료, he was unable 은 단순과거입니다. 질문이 먼저 있었고, 그 결과로 그의 무능력/거부가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물었을 때"와 "물어봤을 때"의 차이가 미묘하지만, 영어는 asked와 had asked 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과거완료는 "그 시점보다 이전"을 가리킵니다.

unable or unwilling — 능력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화자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스트릭랜드라는 인물의 수수께끼를 부각시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인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제 15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Mrs. Strickland's sister was older than she, not unlike her, but more faded; and she had the efficient air, as though she carried the British Empire in her pocket, which the **wives of senior officers acquire** from the consciousness of belonging to a superior caste.

스트릭랜드 부인의 언니는 그녀보다 나이가 많았고, 그녀와 닮았지만 더 초췌해 보였다. 그리고 마치 대영제국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듯한 유능한 분위기를 풍겼는데, 이는 고위 장교의 부인들이 우월한 계급에 속한다는 의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the wives of senior officers acquire

주어: the wives (복수)

동사: acquire (복수 형태)

한국어에서는 "고위 장교의 부인들이 얻는다"에서 수일치가 자연스럽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계절 속 복잡한 주어**입니다.

which the wives of senior officers acquire — which 가 관계대명사 목적어이고, 실제 주어는 the wives 입니다. 한국어는 "~하는"으로 관계절을 만들지만, 영어는 관계사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와야 합니다.

Maugham이 이 긴 관계절을 쓴 이유: 그 "유능한 분위기"가 개인적 자질이 아니라 **계급 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2. 관계사 (Relative Clause)

She hated the Guards, **whom she thought conceited**, and she could not trust herself to speak of their ladies, who were so remiss in calling.

그녀는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근위대를 혐오했고, 방문 예의를 소홀히 하는 그들의 부인들에 대해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싫어했다.

the Guards, whom she thought conceited

목적격: whom (사람)

구조: she thought [whom] conceited

한국어에서는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근위대"로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영어는 **whom** 을 써야 하는데, 이것이 **think** 구문의 목적어이기 때문입니다.

she thought them conceited → whom she thought conceited

여기서 **conceited** 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한국어는 "~라고 생각하다"로 하나의 덩어리지만, 영어는 **think + 목적어 + 보어**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Maugham이 **whom** 을 쓴 것은 격식을 차린 문체 — 이 여인의 계급 의식과 어울립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Mrs. MacAndrew shared the common opinion of her sex that a man **is always a brute to leave a woman who is attached to him, but that a woman is much to blame if he does.**

맥앤드류 부인은 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공유했는데,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는 것은 언제나 잔인한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여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that a man is always a brute to leave...

but that a woman is much to blame if...

병렬: that절 + that절

구조: 동일한 문법적 지위

한국어에서는 "~하는 것은... 하지만 ~하는 것은..."으로 대조를 만듭니다. 영어는 **that** 절 두 개를 **but** 으로 연결해서 **완벽한 병렬**을 만듭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 여성들의 **이중 잣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문법적으로 동등한 두 절이 논리적으로는 모순입니다 — "남자는 항상 잔인하다" vs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Maugham은 병렬 구조로 이 모순을 선명하게 부각시킵니다.

4. 가정법 (Subjunctive)

Do you mean **that you could have forgiven him if he'd left you for a woman, but not if he's left you for an idea?**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당신을 떠났다면 용서할 수 있었겠지만, 어떤 이념 때문에 떠났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if he'd left you for a woman (과거완료)

vs

if he's left you for an idea (현재완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제 혼용**입니다. 첫 번째는 **he'd left** (= he had left, 과거완료), 두 번째는 **he's left** (= he has left, 현재완료)입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둘 다 "떠났다면"으로 처리되지만, 영어 원문은 다릅니다:

- **had left** — 가정법 과거완료 (비현실적 상황)
- **has left** — 현재완료 (실제 일어난 일)

Maugham이 의도한 것: 첫 번째는 "만약 그랬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실제로 그랬으니까" (지금 상황). 문법이 현실과 가정을 구분합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She had put some order into the drawing-room by now, her housewifely instincts having got the better of her dismay; and it no longer bore that deserted look, like a furnished house long to let, which I had noticed on my first visit after the catastrophe.

그녀는 이제 응접실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았는데, 주부로서의 본능이 당황감을 누르고 발휘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방은 더 이상 내가 그 참사 후 처음 방문했을 때 보았던, 오랫동안 세를 놓지 못한 가구 딸린 집처럼 황량한 모습을 띠지 않았다.

her housewifely instincts having got the better of her dismay

독립 분사구문 (absolute construction)

주어: her housewifely instincts

분사: having got

한국어에서는 "주부로서의 본능이 당황감을 누르고 발휘된 것이었다"로 별도 문장처럼 처리됩니다. 영어는 **독립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서 주절에 **배경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구조의 효과: 마치 카메라가 **줌아웃**하는 것 같습니다. 주절은 "방을 정리했다"는 행동, 분사구문은 "왜 그럴 수 있었는가"라는 심리적 배경. Maugham은 행동과 동기를 한 문장에 겹쳐서 **입체적 묘사**를 만듭니다.

제 16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Whenever she went out—and **compassion for her misadventure made** her friends eager to entertain her—she bore a demeanour that was perfect.

외출할 때마다—그녀의 불운에 대한 동정심으로 친구들이 그녀를 대접하려 애썼다—그녀는 완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compassion**입니다. "동정심이 친구들로 하여금 애쓰게 만들었다"는 구조입니다.

compassion for her misadventure made her friends eager to entertain her

주어: compassion

동사: made

목적어: her friends

목적격보어: eager to entertain her

한국어에서는 "동정심으로 친구들이 애썼다"고 번역되어 주어가 바뀝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Maugham이 **compassion**을 주어로 선택한 이유는 — **감정이 행동을 만든다**는 인과관계를 문법으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동정심에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2. 관계사 (Relative Clause)

They said that Charles Strickland had become infatuated with a French dancer, **whom he had first seen in the ballet at the Empire**, and had accompanied her to Paris.

사람들은 찰스 스트릭랜드가 옴파이어 극장의 발레에서 처음 본 프랑스 무용수에게 빠져서 그녀와 함께 파리로 갔다고 말했다.

관계대명사 **whom**은 **dancer**를 받습니다. 여기서 **whom**이 **he had first seen**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a French dancer, whom he had first seen in the ballet

= he had first seen whom (= the dancer) in the ballet

한국어에서는 "처음 본 프랑스 무용수"로 관계절이 앞에 옵니다. 영어는 뒤에서 수식하면서 **점진적 정보 공개**를 합니다. "프랑스 무용수" → "아, 옴파이어에서 본 그 사람이구나." 독자가 화자와 함께 기억을 따라갑니다.

3. 가정법 (Subjunctive)

She changed the conversation **as though it were a matter to which she attached no importance**.

그녀는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양 화제를 바꾸었다.

As though it were에서 **were**는 가정법입니다. 실제로는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as though it were a matter (가정법 - 실제와 반대)

vs

as though it was a matter (직설법 - 사실 그대로)

한국어 "~인 양"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영어는 동사 형태(were)로 "이것은 연기다"라고 문법적으로 표시합니다. Mrs. Strickland의 완벽한 연기 — 가장 아픈 부분을 가장 무덤덤하게 다루는 기술을 시제가 포착합니다.

4. 시제 (Complex Tense)

They said that Charles Strickland **had become infatuated** with a French dancer, whom he had first seen in the ballet at the Empire, and had accompanied her to Paris.

사람들은 찰스 스트릭랜드가 앰파이어 극장의 발레에서 처음 본 프랑스 무용수에게 빠져서 그녀와 함께 파리로 갔다고 말했다.

여기서 과거완료가 세 번 연속됩니다: **had become**, **had first seen**, **had accompanied**. 모두 **said** 보다 이전 시점입니다.

—[had become / had seen / had accompanied]—▶ said —▶ (지금)

더 먼 과거

과거

한국어에서는 "빠져서 갔다고 말했다"로 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Maugham이 과거완료를 반복한 이유는 — 이것이 **전해 들은 이야기**라는 것을 문법으로 표시하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과거로 밀려난 시제 = 한 단계 더 멀어진 진실.

5.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She was brave, but not too obviously; **cheerful, but not brazenly**; and she seemed more anxious to listen to the troubles of others than to discuss her own.

그녀는 용감했지만 지나치게 티를 내지는 않았고, 명랑했지만 뻔뻔스럽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려 애쓰는 것 같았다.

세 개의 형용사구가 완벽하게 평행합니다:

brave, but not too obviously

cheerful, but not brazenly

[anxious to listen] rather than [to discuss]

각각 "긍정 + 제한"의 구조입니다. 한국어에서도 "~했지만 ~하지는 않았다"로 같은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Maugham이 이 병행구조를 쓴 이유는 — Mrs. Strickland의 **절제된 연기**를 문체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감정도 절제, 명랑함도 절제, 관심도 절제. 문장 구조 자체가 그녀의 완벽한 자제력을 흉내냅니다.

제 17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t is not true that suffering ennobles the character; happiness does that sometimes, but **suffering, for the most part, makes** men petty and vindictive.

고통이 인격을 고상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때로는 행복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고통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옹졸하고 복수심에 불타게 만든다.

It is not true [that suffering ennobles the character]

↑

↑

가주어

진주어 (that절)

한국어는 "고통이 인격을 고상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로 자연스럽게 번역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Maugham이 **It is not true that...** 구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That suffering ennobles the character is not true** 라고 썼다면?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어색합니다. 영어는 **무거운 주어**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It** 이 자리를 지키고, 진짜 주어(**that절**)는 뒤에서 등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조의 위치**입니다. **It is not true**가 먼저 나오면서 "거짓이다"라는 판단이 앞서고, 그 다음에 "무엇이 거짓인가"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Maugham의 단호한 어조를 만듭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We **were like tram-cars running on their lines from terminus to terminus, and it was possible to calculate within small limits the number of passengers they would carry.**

우리는 종점에서 종점까지 정해진 노선을 달리는 전차 같았고, 얼마나 많은 승객을 태울지도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었다.

We were like tram-cars running..., and it was possible to calculate...

↑

↑

비유 (metaphor)

결과/확장 (consequence)

이 문장에서 **and**는 단순한 연결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절이 **비유**를 제시하고, 두 번째 절이 그 비유의 **함의**를 설명합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전차 같았고, 계산할 수 있었다"로 나타나지만, 영어에서는 이 두 절이 **논리적 연쇄**를 이룹니다. 전차는 정해진 노선을 달리고 → 따라서 승객 수를 예측할 수 있다.

and가 여기서 하는 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의 의미입니다. Maugham은 인간의 예측 가능성을 전차 비유로 설명한 후, 그 비유가 왜 적절한지를 바로 이어서 보여줍니다. 병렬 구조가 **논증의 구조**가 됩니다.

3. 관계사 (Relative Clause)

She could not help bringing into her conversation the names of people she knew **which would satisfy you** that she had not sunk in the social scale.

그녀는 대화 중에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사회적 지위에서 추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였다.

the names of people [she knew] which would satisfy you

↑

↑

관계절 1

관계절 2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people** 이 아니라 **names** 입니다. "그 이름들이 당신을 만족시킬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였다"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그것은"이 바로 **which**의 역할입니다.

영어의 관계대명사는 **가장 가까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전체 구(the names of people she knew)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Maugham이 의도한 것: 그녀가 떨어뜨리는 **이름들 자체**가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4. It 강조/가주어 (It-Cleft / Formal Subject)

It is not true that suffering ennobles the character; happiness does that sometimes, but suffering, for the most part, makes men petty and vindictive.

고통이 인격을 고상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때로는 행복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고통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옹졸하고 복수 심에 불타게 만든다.

앞의 [1]번과 같은 구조입니다. **It** 이 가주어, **that suffering ennobles the character**가 진주어입니다.

It is not true [that suffering ennobles the character]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정의 위치**입니다. **It is not true that...** 와 **It is true that... not**는 다릅니다.

- **It is not true that suffering ennobles** → "고통이 고상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거짓"
- **It is true that suffering does not ennoble** → "고통이 고상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참"

미묘한 차이지만, Maugham은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통념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만, 그걸 틀렸다"는 어조입니다.

5. 시제 (Complex Tense)

I **had not seen** her for some time, and I noticed changes in her; it was not only that she was older, thinner, and more lined; I think her character had altered.

한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는데, 그녀에게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단순히 나이가 들고 말랐으며 주름이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바뀐 것 같았다.

I had not seen her for some time ← 더 먼 과거

과거완료 **had not seen** 은 "보지 못했던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noticed** 에서 단순과거로 내려오면서 "그 순간 깨달았다"를 표현합니다.

한국어에서는 "한동안 보지 못했는데, 변화를 알아차렸다"로 자연스럽게 번역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시간의 층위**가 문법에 박혀 있습니다.

—[had not seen]—▶ noticed —▶ (지금)

더 먼 과거

과거

Maugham이 과거완료를 쓴 이유: "오랫동안 못 본 사이"라는 **배경**을 깔고, 그 위에서 "변화를 발견한 순간"을 부각시키려는 것입니다. 시제가 **시간의 원근법**을 만듭니다.

제 18 장

1. 관계사 (Relative Clause)

Dirk Stroeve was one of those persons **whom, according to your character, you cannot think of without derisive laughter or an embarrassed shrug of the shoulders.**

더크 스트루브는 당신의 성격에 따라 비웃음을 터뜨리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거나 아니면 당황해서 어깨를 으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관계대명사 **whom**이 삽입구 **according to your character**로 주어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Dirk Stroeve was one of those persons whom [...] you cannot think of

↑

목적어 위치

한국어에서는 "당신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whom**을 문장 앞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think of**의 목적어인 **whom**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법적 연결은 유지됩니다.

Maugham이 **according to your character**를 중간에 삽입한 이유는 — 이 판단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절 구조를 끊어서라도 이 조건을 먼저 제시합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His soul palpitating with love of art, he painted the models who hung about the stairway of Bernini in the Piazza de Spagna, undaunted by their obvious picturesqueness; and his studio was full of canvases on which were portrayed moustachioed, large-eyed peasants in peaked hats, **urchins in becoming rags, and women in bright petticoats.**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뛰는 그는 스파냐 광장의 베르니니 계단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모델들을 그렸는데, 그들의 뻘한 그림 같은 모습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의 작업실은 뾰족한 모자를 쓴 콧수염 난 큰 눈의 농부들, 보기 좋게 너털너털한 옷을 입은 꼬마들, 그리고 화려한 페티코트를 입은 여인들을 그린 캔버스들로 가득했다.

세 개의 명사구가 완벽하게 평행합니다:

moustachioed, large-eyed peasants in peaked hats

urchins in becoming rags

women in bright petticoats

각각 "형용사 + 명사 + 전치사구" 구조입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도 "~한 농부들, ~한 꼬마들, ~한 여인들"로 평행성을 유지했습니다.

Maugham이 이 평행구조를 쓴 이유는 — Stroeve의 그림이 **뻘한 패턴**의 반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문법 구조의 반복이 그림 소재의 반복을 모방합니다. 예술적 진부함을 문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3.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And I think that was the **vision that had remained** with him always, dazzling his eyes so that he could not see the truth; and notwithstanding the brutality of fact, he continued to see with the eyes of the spirit an Italy of romantic brigands and picturesque ruins.

그리고 내 생각에 그 환상이 언제나 그와 함께 남아 있어서 그의 눈을 현혹시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 같다. 현실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영혼의 눈으로 낭만적인 도적들과 그림 같은 폐허가 있는 이탈리아를 보고 있었다.

관계대명사 **that** 과 동사 **had remained** 의 수 일치입니다.

the vision that had remained with him

↑

↑

단수명사

단수동사

한국어에서는 "환상이 남아 있었다"로 자연스럽지만, 영어는 관계절 안에서도 주어-동사 일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had remained** (과거완료)는 "그 환상이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단순과거 **remained** 와 다릅니다. Maugham은 그 환상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Stroeve를 지배해왔다는 것을 시제로 표현합니다.

4. 시제 (Complex Tense)

He was constantly wounded, and yet his good-nature was such that he could not bear malice: the viper might sting him, but he never learned by experience, and **had no sooner recovered** from his pain than he tenderly placed it once more in his bosom.

그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았지만, 그의 선량한 성품 때문에 원한을 품을 수가 없었다. 독사가 그를 물어도 그는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아픔에서 회복되자마자 다시 그 독사를 품에 다정히 안았다.

had no sooner ... than 은 "~하자마자 곧"이라는 관용 표현입니다.

had no sooner recovered from his pain than he tenderly placed it

↑

↑

과거완료

단순과거

한국어로는 "아픔에서 회복되자마자 다시 안았다"입니다. 영어는 시제를 달리해서 **순서**를 표현합니다 — 과거완료(**had recovered**)가 단순과거(**placed**)보다 먼저입니다.

이 구문이 보여주는 것은 Stroeve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상처받고 → 회복하고 → 다시 상처받고. **no sooner ... than** 의 즉시성이 그의 학습 능력 부족을 강조합니다. 경험으로부터 배울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His soul palpitating with love of art, he painted the models who hung about the stairway of Bernini in the Piazza de Spagna, undaunted by their obvious picturesqueness; and his studio was full of canvases on which were portrayed

moustachioed, large-eyed peasants in peaked hats, urchins in becoming rags, and women in bright petticoats.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뛰는 그는 스파냐 광장의 베르니니 계단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모델들을 그렸는데, 그들의 뻘한 그림 같은 모습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의 작업실은 뾰족한 모자를 쓴 콧수염 난 큰 눈의 농부들, 보기 좋게 너털너털한 옷을 입은 꼬마들, 그리고 화려한 페티코트를 입은 여인들을 그린 캔버스들로 가득했다.

독립분사구문(absolute construction)입니다:

His soul palpitating with love of art, he painted the models

↑

주어

↑

주절의 주어

His soul 이 분사구문의 주어이고, he 가 주절의 주어입니다. 한국어로는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뛰는 그는"으로 번역됩니다.

일반적인 분사구문은 주절과 주어가 같습니다(Painting the models, he...).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 his soul 과 he 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이 독립분사구문의 특징입니다.

Maugham이 이 구조를 쓴 이유는 — Stroeve의 영혼과 행동을 분리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은 예술로 뛰지만, 실제 그림은 진부합니다.

제 19 장

1. 시제 (Complex Tense)

I discovered that in Paris he **had been painting** just the same stale, obviously picturesque things that he had painted for years in Rome.

나는 그가 파리에서도 로마에서 수년간 그려왔던 것과 똑같은 진부하고 뻔히 그림 같은 소재들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had been painting - 과거완료진행 (그 시점까지 계속 그려왔던)

had painted - 과거완료 (그 이전에 그렸던)

한국어 번역에서는 둘 다 "그려왔던"으로 처리되지만, 원문에는 **시간의 층위가** 다릅니다. had been painting 은 "파리에서 발견했을 때까지 계속 그리고 있던 중이었다"는 뜻입니다. 진행형(-ing)이 들어가면서 "그 순간에도 붓을 들고 있었다"는 생동감을 줍니다.

had painted for years 는 단순한 과거완료 — "수년간 그렸던 경험"입니다. Maugham은 같은 문장에서 **과거완료진행** → **과거완료**로 미묘하게 시제를 조절합니다. 영어의 진행형은 단순히 "계속"이 아니라 **그 순간의 현장감**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Poor pantaloons, he was not an object to excite love, but the **smile in her eyes was** affectionate, and it was possible that her reserve concealed a very deep feeling.

불쌍한 어릿광대, 그는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미소는 다정했고, 그녀의 차분함이 아주 깊은 감정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the smile in her eyes was affectionate

↑

단수 주어 (smile) + 단수 동사 (was)

"그녀의 눈에 담긴 미소"를 영어로 하면 the smile in her eyes 입니다. 한국어 화자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 — eyes 가 복수라고 해서 동사를 were 로 쓰면 안 됩니다. 주어는 smile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조사("미소가")로 주어를 표시하지만, 영어는 어순으로 판단합니다. in her eyes 는 전치사구로, smile 을 수식할 뿐입니다. Maugham이 the smile in her eyes 라고 쓴 것은 — 미소가 눈 안에 담겨 있다는 섬세한 표현입니다.

3. 관계사 (Relative Clause)

But when Stroeve spoke of Chardin it was not without reason, and she reminded me curiously of that pleasant housewife in her mob-cap and apron **whom the great painter has immortalised.**

하지만 스트루브가 샤르댕을 언급한 것은 이유가 없지 않았고, 그녀는 그 위대한 화가가 불멸의 작품으로 남긴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그 다정한 주부를 기묘하게 연상시켰다.

that pleasant housewife ... whom the great painter has immortalised

↑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은 격식체 영어의 흔적입니다. 구어에서는 who 를 쓰지만, Maugham은 whom 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문체입니다.

the painter immortalised [her] → whom the painter has immortalised

목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국어에서는 "화가가 불멸로 만든 주부"라고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영어는 관계대명사의 격을 맞춰야 합니다. whom 을 쓰는 순간, 문장이 격식을 갖춘 문학적 어조가 됩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사라진 용법이지만, 1919년 소설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4. 가정법 (Subjunctive)

He sat me down in a chair, patting me **as though I were a cushion, pressed cigars upon me, cakes, wine.**

나를 의자에 앉히며 쿠션을 두드리듯 내 몸을 토닥거리고, 시가와 케이크와 포도주를 억지로 권했다.

as though I were a cushion

↑

가정법 과거 (were)

as though 는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뜻으로, 뒤에 가정법이 옵니다. 여기서 I were 가 핵심입니다 — 1인칭 단수인데도 was 가 아니라 were 를 씁니다.

한국어에서는 "쿠션인 것처럼"이라고 하면 끝이지만, 영어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동사 형태로 표시합니다. I were 는 문법적으로 "나는 쿠션이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pressed cigars upon me, cakes, wine — 여기서 동사 하나(pressed)가 세 개의 목적어를 받습니다. 쉼표로 나열하면서 Stroeve의 성급한 환대를 리듬으로 표현합니다.

5.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Her hair, brown and abundant, was plainly done, her face **was very pale, and her features were good without being distinguished.**

갈색의 풍성한 머리카락은 소박하게 빗어 올렸고, 얼굴은 매우 창백했으며, 이목구비는 뛰어나지는 않지만 단정했다.

Her hair ... was plainly done,

her face was very pale, and

her features were good

세 개의 절이 **같은 구조**로 나열됩니다: 주어 + be동사 + 보어. 한국어에서도 "머리는 ~했고, 얼굴은 ~했으며, 이목구비는 ~했다"로 평행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영어만큼 **문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Maugham이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차분한 관찰**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절이 같은 리듬으로 흘러가면서, 화자가 그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느낌을 줍니다. 평행구조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시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제 20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Dirk Stroeve agreed to fetch me on the following evening and take me to the **café at which Strickland was** most likely to be found.

더크 스트루브는 다음 날 저녁 나를 데리러 와서 스트릭랜드를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카페로 데려가기로 했다.

전치사 + which 구조입니다. **at which** 는 **at the café** 를 관계절로 만든 것입니다.

the café [at which Strickland was most likely to be found]

= the café [where Strickland was most likely to be found]

= the café [Strickland was most likely to be found at]

한국어는 "~할 가능성이 높은 카페"로 관계절이 앞에 옵니다. 영어는 뒤에서 수식하되, 전치사를 앞으로 끌어올려 격식을 높입니다. **where** 보다 **at which** 가 더 문어적입니다.

Maugham이 **at which** 를 선택한 이유: 화자가 **관찰자**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근한 **where** 대신 격식 있는 **at which** 로 스트릭랜드와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합니다.

2. 가정법 (Subjunctive)

He wore the same suit that I had seen him in five years before; it was torn and stained, threadbare, and it hung upon him loosely, **as though it had been made for someone else.**

그는 5년 전에 내가 보았던 것과 같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찢어지고 얼룩져 있었으며 실이 다 빠져 있었고,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as though +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had been made** 는 "만들어졌었다면"의 뜻으로, 실제와 반대 상황을 가정합니다.

as though it had been made for someone else

=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실제로는 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너무 헐렁해서)

한국어 "마치 ~처럼"은 어미로 가정을 표현하지만, 영어는 시제를 과거로 밀어서 **비현실성**을 나타냅니다. **as if it was made** 라고 하면 단순 추측이지만, **as though it had been made** 는 확실한 반대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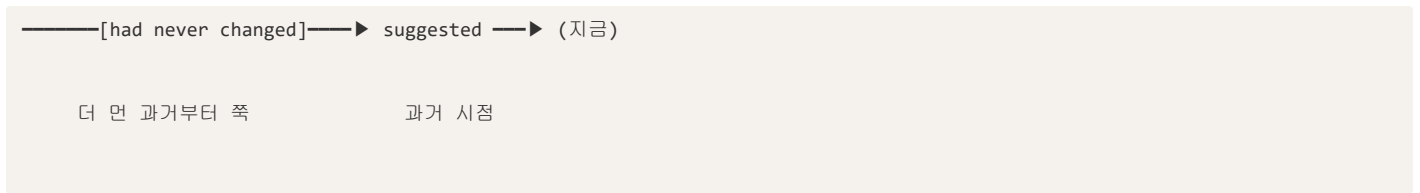
이 구조로 Maugham은 스트릭랜드의 초라함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3. 시제 (Complex Tense)

The fact that he **had never changed** suggested a sluggishness of habit which seemed to me characteristic.

그가 한 번도 장소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특징으로 보이는 습관의 계엄을 시사했다.

과거완료 + never의 조합입니다. **had never changed**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다"는 뜻으로,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의 **지속적 부재**를 나타냅니다.



한국어 "한 번도 ~않았다"와 비슷하지만, 영어는 시제로 **시간의 층위**를 구분합니다. **never changed**라고 하면 단순한 사실이지만, **had never changed**는 그 불변성이 화자가 관찰한 시점보다 **이전부터** 계속되었음을 강조합니다.

Maugham은 이 구조로 스트릭랜드의 **고집스러운 일관성**을 시간의 깊이와 함께 보여줍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I ordered something to drink, and waited quietly **till Strickland had finished.**

나는 마실 것을 주문하고 스트릭랜드가 끝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till + 과거완료입니다. **had finished**는 "끝마쳤을 때까지"로, 기다림의 **종료점**을 명확히 합니다.



한국어 "~할 때까지"는 시제 구분이 모호하지만, 영어는 **till he finished**와 **till he had finished**를 구분합니다. 과거완료는 **완료성**을 강조합니다 — 단순히 "끝낼 때"가 아니라 "완전히 끝마쳤을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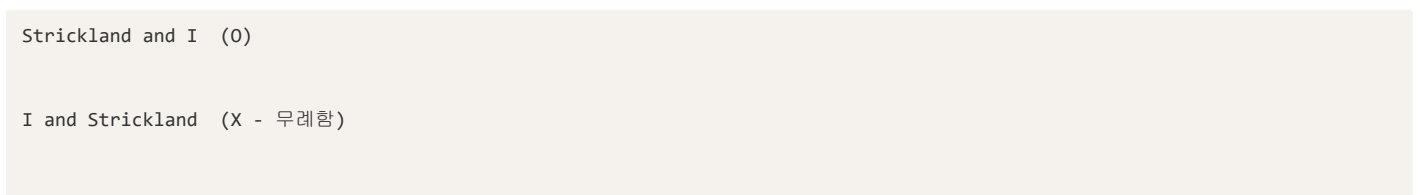
Maugham이 과거완료를 쓴 이유: 화자의 기다림이 스트릭랜드의 **완전한 완료** 후에 끝난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5.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 was interested to learn that it was the same as that at which **Strickland and I** had drunk absinthe

그곳이 내가 스트릭랜드를 만나러 파리에 갔을 때

병렬 구조에서 **Strickland and I**입니다. 영어는 **상대방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한국어는 "나와 스트릭랜드"라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먼저 말하지만, 영어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문법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입니다.

흥미로운 점: 화자가 스트릭랜드를 **적대시**하면서도 언어적으로는 그를 먼저 언급합니다. Maugham은 이런 언어 관습을 통해 화자의 **교양 있는 태도**와 내면의 복잡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제 21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When in luck he was able to make a tidy sum; but the **shabbiness of his clothes at last frightened** the sight-seers, and he could not find people adventurous enough to trust themselves to him.

운이 좋을 때는 제법 관창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마침내 그의 남루한 옷차림이 관광객들을 겁주게 되어 그를 믿고 따라갈 만큼 모험심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the shabbiness of his clothes**입니다. "그의 옷의 남루함이 관광객들을 겁주었다" — 추상명사가 주어로 와서 구체적 행동을 합니다.

the shabbiness of his clothes ← 추상적 개념

frightened the sight-seers ← 구체적 행동

한국어에서는 "옷차림이 겁주게 되어"처럼 사동형으로 번역되지만, 영어 원문은 **의인법**입니다. 옷의 남루함 자체가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겁준다는 것 — 이것이 영어다운 표현입니다. 한국어는 "~하게 되다"로 우회하지만, 영어는 무생물도 당연히 주어로 세워 행동하게 만듭니다.

2. 시제 (Complex Tense)

And then, all of a sudden you can't stand it any more, and you notice that all the time your feet **have been walking** in the mud.

그런데 갑자기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고, 그제서야 줄곧 네 발이 진흙탕을 걷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돼.

현재완료진행형 **have been walking**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걸었다"가 아니라 "줄곧 걸어왔다" — **지속성과 현재 연결성**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all the time your feet have been walking

—————▶ notice (지금)

계속 진행되어온 상태

한국어 "줄곧 걷고 있었다"와 비슷하지만, 영어는 문법으로 강제합니다. **walked**면 끝난 일, **have walked**면 경험, **have been walking**은 **지금도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화자가 깨닫는 순간까지 발은 계속 진흙을 밟고 있었다는 것 — 이 지속성이 절망감을 증폭시킵니다.

3. 관계사 (Relative Clause)

And you find some woman, coarse and low and vulgar, some beastly creature **in whom all the horror of sex is blatant**, and you fall upon her like a wild animal.

그러면 어떤 여자를 찾게 되지. 거칠고 천하고 저속한, 성의 모든 추악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짐승 같은 여자를 말이야. 그리고 야생동물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어."

in whom 은 전치사 + 관계대명사 구조입니다. "그 여자 안에서 성의 추악함이 노골적이다" — 여자를 **용기(container)**로 봅니다.

some beastly creature in whom all the horror of sex is blatant

↑

전치사 + 관계대명사

한국어에서는 "~이 드러나는 여자"로 관계절이 앞에 옵니다. 영어는 뒤에서 수식하면서 **점층법** 효과를 만듭니다: creature → beastly creature → creature in whom horror is blatant. 각 단계마다 혐오감이 증폭됩니다. **in whom** 은 단순한 관계절이 아니라 **공간적 은유**입니다.

4.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He ate with appetite, but was indifferent to what he ate; to him it **was only food that he devoured to still the pangs of hunger; and when no food was to be had he seemed capable of doing without.**

그는 식욕을 가지고 먹었지만, 무엇을 먹는지에는 무관심했다. 그에게 음식은 단지 배고픔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일 뿐이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문장은 **대조의 병렬구조**입니다. 음식에 대한 Strickland의 모순적 태도를 세 단계로 보여줍니다:

ate with appetite BUT was indifferent to what he ate

it was only food to still the pangs of hunger

when no food was to be had he seemed capable of doing without

한국어는 "~했지만", "~일 뿐이었다", "~것처럼 보였다"로 각각 다른 어미를 씁니다. 영어는 구조적 대칭으로 대조를 만듭니다.

ate/was, food/hunger, had/without — 각 절이 앞 절을 뒤집으면서 Strickland의 **원시적 실용주의**를 드러냅니다.

5. 가정법 (Subjunctive)

Strickland did not speak for a long time, but his eyes shone strangely, **as though he saw something that kindled his soul to ecstasy.**

스트릭랜드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이상하게 빛났다. 마치 영혼을 황홀경으로 이끄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as though he saw 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현재 상황을 과거 시제로 표현해서 **비현실성**을 나타냅니다.

as though he saw something ← 과거형이지만 현재 상황

(실제로는: as though he sees something)

한국어 "마치 ~하는 것처럼"과 같은 의미이지만, 영어는 시제로 거리감을 만듭니다. **sees** 가 아니라 **saw** 를 쓴 순간,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나 환상**임을 문법이 알려줍니다. Strickland가 보는 것은 물리적 현실이 아니라 **예술적 비전**이라는 암시입니다.

제 22 장

1. 관계사 (Relative Clause)

I read a page here and there, and made acquaintance with a great many authors **whom I was content to know thus desultorily**.

여기저기서 한 페이지씩 읽어가며, 이런 식으로 두서없이 알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많은 작가들과 친분을 쌓았다.

관계대명사 **whom**은 현대 영어에서 거의 사라진 형태입니다. **who**로 써도 문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Maugham은 **whom**을 선택했습니다.

authors whom I was content to know

↑

목적격 (know의 목적어)

한국어에서는 "알게 되는 작가들"로 자연스럽게 처리되지만, 영어는 관계대명사의 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whom**은 격식체의 느낌을 줍니다 — 화자가 교양 있는 독서가임을 암시하는 문체적 선택입니다.

desultorily(두서없이)와 함께 쓰인 것도 흥미롭습니다. 격식 있는 **whom**과 "아무렇게나 읽기"의 대조가 화자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Sometimes he embarrassed his wife, and the only **time I saw her put out of countenance was** when he insisted on telling me that he had taken a purge, and went into somewhat realistic details on the subject.

때로는 그가 아내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녀가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본 유일한 때는 그가 자신이 설사약을 먹었다고 고집스럽게 내게 말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 다소 사실적인 세부사항까지 늘어놓았을 때였다.

복잡한 주어-동사 일치입니다. 문장의 실제 주어는 **time** 이고, 동사는 **was** 입니다.

the only time [I saw her put out of countenance] was when...

↑주어

↑관계절

↑동사

한국어에서는 "~한 때는 ~였다"로 자연스럽게 처리되지만, 영어는 긴 관계절이 주어와 동사를 분리시킵니다. **I saw her put out of countenance**는 **time**을 수식하는 관계절입니다.

put out of countenance는 "당황하게 하다"는 뜻의 고전적 표현입니다. Maugham의 격식 있는 문체를 보여주는 어휘 선택입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 read a page **here and there**, and made acquaintance with a great many authors whom I was content to know thus desultorily.

여기저기서 한 페이지씩 읽어가며, 이런 식으로 두서없이 알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많은 작가들과 친분을 쌓았다.

Here and there 는 단순한 병렬구조가 아니라 **분산적 읽기**를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I read a page here and there

↑ ↑

이곳저곳에서 (분산적)

한국어 "여기저기서"와 정확히 대응됩니다. 하지만 영어의 **here and there** 는 **무작위성과 비체계성**을 강조합니다. 체계적으로 책을 읽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desultorily (두서없이)와 호응하여 화자의 독서 방식을 이중으로 강조합니다. 겸손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독서를 자랑하는 문장입니다.

4. 시제 (Complex Tense)

We went one day to the picture-dealer in whose shop Stroeve thought he could show me at least two or three of Strickland's pictures, but when we arrived were told that Strickland himself **had taken** them away.

어느 날 우리는 스트루브가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적어도 두세 점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화랑에 갔는데, 도착해 보니 스트릭랜드가 직접 와서 그림들을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다.

과거완료 **had taken** 은 단순과거 **arrived** 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냅니다.

—[Strickland had taken them away]—▶ we arrived —▶ (지금)

더 먼 과거

과거

한국어에서는 "가져갔다"로 번역되지만, 시간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어의 과거완료는 **시간의 층위**를 문법적으로 강제합니다.

이 문장의 아이러니: 그림을 보러 갔는데 이미 없었다는 실망감이 시제의 구조에 담겨 있습니다. **had taken** 이 만드는 "이미 끝난 일"의 느낌이 그 허탈함을 전달합니다.

5. 수동태 (Passive Voice)

We went one day to the picture-dealer in whose shop Stroeve thought he could show me at least two or three of Strickland's pictures, but when we arrived **were told** that Strickland himself had taken them away.

어느 날 우리는 스트루브가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적어도 두세 점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화랑에 갔는데, 도착해 보니 스트릭랜드가 직접 와서 그림들을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다.

수동태 **were told** 에서 **행위자가 생략**되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we arrived [and] were told that...

↑능동

↑수동 (행위자 생략)

한국어에서도 "말을 들었다"로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지만, 영어 수동태는 더 **비인격적**인 느낌을 줍니다. 아마도 화랑 직원이 말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보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arrived(능동)에서 were told(수동)로의 전환이 상황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갔지만, 수동적으로 소식을 듣게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제 23 장

1. 가정법 (Subjunctive)

I should have liked you better if you hadn't made that ingenuous appeal to my sympathies.

"당신이 내 동정심에 그렇게 순진하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더 좋아했을 텐데."

I should have liked you better if you hadn't made that appeal

↑

↑

가정법 과거완료

가정법 과거완료

한국어에서는 "~했다면 ... ~했을 텐데"로 표현되는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영어는 시제를 **두 단계** 뒤로 밀어서 비현실을 표현합니다.

should have liked = would have liked 와 같은 의미입니다. 19세기~20세기 초 영어에서는 1인칭에 should 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화자는 "동정심에 호소하지 않았다면 더 좋아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호소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가정법이 이 복잡한 심리를 한 문장에 담아냅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He and his wife made a picture which the imagination gratefully dwelt upon, and the **simplicity of his love for her had** a deliberate grace.

그와 그의 아내는 상상력이 기꺼이 머물고 싶어 하는 그림을 만들어냈고,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의 순수함에는 의도적인 우아함이 있었다.

the simplicity of his love for her had a deliberate grace

↑

↑

복합 주어

단수 동사

주어는 the simplicity 입니다. of his love for her 는 전치사구로 simplicity 를 수식합니다. 한국어에서는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의 순수함"으로 자연스럽게 번역되지만, 영어에서는 **핵심 명사(simplicity)**가 동사와 일치해야 합니다.

love 가 아니라 simplicity 가 주어이므로 단수 동사 had 를 씁니다. 영어는 문법적 주어와 의미적 주어가 다를 때도 **문법적 주어**에 맞춰 동사를 활용합니다. 이것이 한국어 화자에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He and his wife made a picture which the imagination gratefully dwelt upon, and the simplicity of his love for her had a deliberate grace.

그와 그의 아내는 상상력이 기꺼이 머물고 싶어 하는 그림을 만들어냈고,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의 순수함에는 의도적인 우아함이 있었다.

He and his wife made a picture ... and the simplicity ... had a grace

↑

↑

복합 주어 + 동사

단일 주어 + 동사

두 개의 독립절이 **and** 로 연결된 **대등 구조**입니다. 첫 번째 절은 **He and his wife**(복합 주어), 두 번째 절은 **the simplicity**(단일 주어)입니다.

한국어에서는 "그와 그의 아내는 ... 만들어냈고, ... 순수함에는 ... 있었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영어의 병렬 구조는 **리듬**을 만듭니다 — 두 절의 길이와 구조가 균형을 이룹니다. Maugham이 의도한 것은 부부의 조화로운 모습을 **문장 구조**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He was constantly offending Dirk Stroeve so bitterly that he flung away, **vowing he would never speak to him again**; but there was a solid force in Strickland that attracted the fat Dutchman against his will, so that he came back, fawning like a clumsy dog, though he knew that his only greeting would be the blow he dreaded.

그는 끊임없이 더크 스트루브를 몹시 화나게 해서 스트루브가 다시는 그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뛰쳐나가게 만들었지만, 스트릭랜드에게는 뚱뚱한 네덜란드인의 의지와는 반대로 그를 끌어당기는 확고한 힘이 있어서, 스트루브는 자신을 맞이할 것이 두려워하는 매질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툰 개처럼 아첨하며 다시 돌아오곤 했다.

he flung away, **vowing he would never speak to him again**

↑

현재분사구 (동시 행동)

vowing 은 현재분사로, **flung away** 와 **동시에** 일어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뛰쳐나가면서 맹세하며"의 의미입니다.

한국어에서는 "~하며", "~면서"로 표현되는 동시 행동이 영어에서는 **분사구조**로 나타납니다. 분사는 시간의 흐름보다는 **행동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격렬함**입니다. Stroeve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며 격분해서 뛰쳐나간다는 것을 분사 하나로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영어 분사의 **경제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5. It 강조/가주어 (It-Cleft / Formal Subject)

And the worst of it was that, though you hated Strickland, and the exhibition was horrible, **it was impossible not to laugh**.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스트릭랜드가 미워지고 그 광경이 끔찍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And the worst of it was that ... it was impossible not to laugh

↑

it은 **가주어**이고, 진짜 주어는 to laugh입니다. "웃는 것이 불가능했다"가 직역이지만, 영어는 무거운 주어를 뒤로 보내고 it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로 자연스럽게 번역됩니다. 하지만 영어의 it ... to 구조는 **강조 효과**가 있습니다. impossible이 먼저 나오면서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이라고 시작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로 끝나는 이 문장은 **아이러니**의 절정입니다. 문법 구조가 이 아이러니를 뒷받침합니다.

제 24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Neither of us had seen Strickland for two or three weeks—I because I had been busy with friends who were spending a little while in Paris, and Stroeve because, having quarreled with him more violently than usual, he had made up his mind to have nothing more to do with him.

우리 둘 다 스트릭랜드를 2, 3주 동안 보지 못했는데—나는 파리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친구들과 바빴기 때문이고, 스트루브는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그와 다툰 후 더 이상 그와 상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Neither of us가 주어입니다. **Neither** 는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도 **had seen** (단수형)입니다.

Neither of us had seen ← 단수 동사

Both of us had not seen ← 복수 동사 (다른 의미)

한국어 "우리 둘 다 ~하지 않았다"는 복수처럼 들리지만, 영어 **neither** 는 문법적으로 단수입니다. "둘 중 어느 쪽도"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 대시(—) 이후는 **이유 설명**입니다. "I because... and Stroeve because..." —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이유를 병렬로 나열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나는 ~때문이고, 스트루브는 ~때문이었다"로 자연스럽게 번역되지만, 영어는 주어를 반복해서 명확히 구분합니다.

2. 관계사 (Relative Clause)

Suddenly I remembered that he had got his commission to paint a portrait through the baker **from whom he bought his bread**, and it struck me that there one might find his address.

문득 그가 빵을 사던 제빵사를 통해 초상화 그리는 일을 의뢰받았던 것이 생각났고, 거기서 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from whom은 전치사 + 관계대명사 구조입니다.

he bought his bread from the baker

↓

the baker from whom he bought his bread

한국어에서는 "빵을 사던 제빵사"로 간단히 표현되지만, 영어는 전치사를 관계절 앞으로 끌어올립니다. **whom**은 사람을 가리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구어에서는 "the baker (who) he bought his bread from"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Maugham의 문어체에서는 정식 구조 **from whom**을 씁니다. 이런 구조가 문장에 격식과 무게감을 더합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Neither of us had seen Strickland for two or three weeks—I because I had **been busy with friends who were spending a little while in Paris, and Stroeve** because, having quarreled with him more violently than usual, he had made up his mind

to have nothing more to do with him.

우리 둘 다 스트릭랜드를 2, 3주 동안 보지 못했는데—나는 파리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친구들과 바빴기 때문이고, 스트루브는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그와 다툰 후 더 이상 그와 상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대시(—) 뒤의 구조가 완벽한 **병렬**입니다:

I because [I had been busy with friends...]

and

Stroeve because [having quarreled..., he had made up his mind...]

두 사람의 이유를 대칭으로 배치했습니다. 다만 내용의 길이가 다릅니다 — 화자(I)의 이유는 짧고 단순하고, Stroeve의 이유는 길고 복잡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때문이고, ~때문이었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영어는 주어를 반복해서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이런 병렬 구조가 문장에 균형감을 줍니다.

4. 가정법 (Subjunctive)

Stroeve made **as though he were about to knock**, and then turned to me with a gesture of helplessness.

스트루브는 문을 두드리려는 듯하더니 무력한 몸짓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as though he were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비현실적/가상적 표현입니다.

he was about to knock ← 실제 (직설법)

he were about to knock ← 가정 (가정법)

"마치 ~인 것처럼"의 의미입니다. Stroeve는 실제로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were**를 쓴 이유는 — 그 행동이 **완료되지 않았고,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하려는 듯하더니"도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확정적이지 않은 동작을 표현할 때 한국어는 어미로, 영어는 가정법으로 처리합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Neither of us had seen Strickland for two or three weeks—I because I had been busy with friends who were spending a little while in Paris, and Stroeve because, **having quarreled with him more violently than usual**, he had made up his mind to have nothing more to do with him.

우리 둘 다 스트릭랜드를 2, 3주 동안 보지 못했는데—나는 파리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친구들과 바빴기 때문이고, 스트루브는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그와 다툰 후 더 이상 그와 상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having quarreled는 완료 분사구문입니다. 주절의 동작(had made up his mind)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냅니다.

시간순서: quarreled → made up his mind

표현: having quarreled, he had made up his mind

한국어에서는 "다툼 후"로 간단히 표현되지만, 영어는 분사의 형태로 시간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having + pp**는 "그 일이 끝난 후"의 의미입니다.

이 구조가 문장을 간결하게 만듭니다. "After he had quarreled with him, he had made up his mind"를 압축한 것입니다. 문어체에 자주 쓰이는 우아한 표현법입니다.

제 25 장

1. 가정법 (Subjunctive)

I wish I had; but I know it when I see it, and I honour it with all my heart.

그랬으면 좋겠지만, 천재를 보면 알 수 있고, 진심으로 존경한다.

I wish I had 에서 had 는 무엇을 받는 동사일까요? 문맥상 "천재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이므로 had genius 가 생략된 것입니다.

I wish I had [genius/talent] ← 가정법 과거

한국어 "그랬으면 좋겠다"는 현재 소망을 나타내지만, 영어 I wish I had 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소망입니다. 실제로는 천재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영어의 wish 구문은 시제를 한 단계 뒤로 밀어서 "현실이 아님"을 표시합니다. I wish I have 라고 하면 문법 오류 — wish 뒤에는 반드시 과거형이 와야 합니다. 이것이 영어 가정법의 핵심입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She was panting now, and in her face was a **terror which was** inexplicable.

그녀는 이제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떠올라 있었다.

terror which was inexplicable 에서 주목할 점은 동사 일치입니다.

terror (단수) → which was (단수)

한국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들이 있었다"와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있었다"를 구별하지만, 동사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영어는 다릅니다 — terror 가 단수이므로 관계절의 동사도 반드시 was 여야 합니다.

만약 terrors which were inexplicable 이었다면 복수 동사 were 를 써야 합니다. 영어 관계절에서는 선행사의 수가 동사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영어 문법의 기계적 정확성입니다.

3. 수동태 (Passive Voice)

Her manner was quite normal again, and no one could have told that so shortly before she **had been shaken** by such a great emotion.

그녀의 태도는 다시 완전히 평상시와 같았고, 얼마 전까지 그토록 큰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had been shaken 은 과거완료 수동태입니다.

had been shaken = had been + pp (수동)

시간 구조를 보면:

—[had been shaken]—▶ could have told —▶ (지금)

더 먼 과거

과거

"감정에 휩싸였다"는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보다 **더 이전**의 일입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시간차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는 과거완료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수동태인 이유: 그녀가 감정을 흔든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흔들린 것입니다. **shake**의 주어는 **emotion**이고, 그녀는 당하는 쪽입니다.

4.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Dirk was **going home to dinner, and I proposed to find a doctor and bring him to see Strickland; but when we got down into the street, fresh after the stuffy attic, the Dutchman begged me to go immediately to his studio.**

디르크는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가려 했고, 나는 의사를 찾아 스트릭랜드를 진찰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답답한 다락방을 나와 상쾌한 거리로 내려왔을 때, 네덜란드인은 즉시 자신의 작업실로 가자고 간청했다.

이 문장에는 **동사구의 평행 구조**가 여러 겹 있습니다:

Dirk was going home

I proposed to find... and bring...

we got down

the Dutchman begged me to go

특히 **proposed to find a doctor and bring him**에서 **to find**와 **(to) bring**이 평행을 이룹니다. 두 번째 **to**는 생략되었지만 문법적으로 존재합니다.

한국어는 "~하고 ~하자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영어는 **구조적 평행**을 요구합니다. **proposed to find and bringing**은 불가능 — **to find**와 **to bring**이 같은 형태여야 합니다.

Maugham은 짧은 동사구들을 연달아 배치해서 행동의 연속성을 만듭니다.

5. 관계사 (Relative Clause)

He had something in mind **which he would not tell me**, but he insisted that it was very necessary for me to accompany him.

그는 내게 말하지 않으려는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내가 그와 함께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고집했다.

something which he would not tell me에서 관계절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He had something in mind

↓

which = something (목적어)

he would not tell me [which]

관계대명사 **which** 는 **tell** 의 목적어입니다. 원래 문장으로 풀면 **He would not tell me something** 이 됩니다.

한국어에서는 "내게 말하지 않으려는 무언가"로 자연스럽게 번역되지만, 영어는 관계절 내에서도 **동사-목적어 관계**를 유지합니다. **which** 가 없으면 **he would not tell me** 가 되어 "나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would not 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의지**를 나타냅니다 — 말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제 26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t was not exactly spirituality that was obvious, though the **screen of the flesh seemed** almost transparent, because there was in his face an outrageous sensuality; but, though it sounds nonsense, it seemed as though his sensuality were curiously spiritual.

육체라는 가림막이 거의 투명해 보일 정도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영성이 드러나 보인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의 관능성이 묘하게 영적인 것처럼 보였다.

the screen of the flesh seemed almost transparent

주어: the screen of the flesh

동사: seemed

보어: almost transparent

한국어에서는 "육체라는 가림막이 투명해 보였다"로 자연스럽게 번역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Maugham이 **the screen of the flesh** 라는 은유적 표현을 주어로 선택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flesh(살덩어리)가 아니라 **screen of the flesh**(육체라는 가림막)를 주어로 만들어서, 육체를 **영혼을 가리는 막**으로 개념화합니다. 그리고 그 막이 **seemed transparent**(투명해 보였다) — 즉 영혼이 비쳐 보인다는 뜻입니다.

한국어라면 "그의 영혼이 비쳐 보였다"고 직접 말할 수도 있지만, Maugham은 **육체를 주어로 세워**서 물질과 정신의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을 문법 구조로 만들어냅니다.

2. 관계사 (Relative Clause)

I thought of Marsyas, **whom the god flayed because he had dared to rival him in song.**

나는 감히 신과 노래 실력을 겨루었다가 신에게 가죽이 벗겨진 마르시아스를 떠올렸다.

Marsyas, whom the god flayed because he had dared to rival him

↑

관계대명사 whom (목적격)

= the god flayed Marsyas

한국어에서는 "신에게 가죽이 벗겨진 마르시아스"로 번역되어 **피동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영어 원문은 능동입니다: **the god flayed him**.

whom은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Marsyas**가 **flayed**의 **목적어**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마르시아스가 피해자로 느껴지지만, 영어에서는 **신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because he had dared to rival him — 과거완료 had dared 는 "감히 도전했었다"는 뜻으로, 신의 처벌보다 먼저 일어난 일임을 보여줍니다. 도전 → 처벌의 시간 순서가 문법에 박혀 있습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t needed a good deal of firmness and still more patience to induce him to come, but he was really too ill to offer any effective resistance **to Stroeve's entreaties and to my determination.**

그를 설득해 오게 하려면 상당한 단호함과 그보다 더 많은 인내가 필요했지만, 그는 정말로 너무 아파서 스트루브의 간청과 나의 결심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

to Stroeve's entreaties and to my determination

병렬 구조: to A and to B

한국어에서는 "스트루브의 간청과 나의 결심에"로 자연스럽게 병렬됩니다. 영어에서 Maugham이 **to** 를 두 번 반복한 것은 문체적 선택입니다.

to Stroeve's entreaties and my determination 으로 쓸 수도 있었지만, to ... and to ... 로 반복해서 **두 요소의 대등함**을 강조합니다. 스트루브의 간청과 화자의 결심이 **동등한 힘**으로 스트릭랜드에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entreaties (간청들)는 복수형이고 determination (결심)은 단수형입니다. 스트루브는 여러 번 애원했지만, 화자는 **한 번의 확고한 결심**으로 맞선 것입니다. 병렬 구조 안에서도 대조가 숨어 있습니다.

4. 가정법 (Subjunctive)

It was not exactly spirituality that was obvious, though the screen of the flesh seemed almost transparent, because there was in his face an outrageous sensuality; but, though it sounds nonsense, it seemed **as though his sensuality were curiously spiritual.**

육체라는 가림막이 거의 투명해 보일 정도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영성이 드러나 보인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의 관능성이 묘하게 영적인 것처럼 보였다.

as though his sensuality were curiously spiritual

가정법 과거: were (was가 아님)

한국어에서는 "그의 관능성이 묘하게 영적인 것처럼 보였다"로 번역되어 가정법의 뉘앙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were** 는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as though 나 as if 다음에는 가정법을 쓸 수 있습니다. his sensuality was spiritual 이면 "그의 관능성이 영적이다"(사실), his sensuality were spiritual 이면 "영적인 것처럼 보인다"(비현실적 느낌)입니다.

Maugham이 **were** 를 선택한 이유: **관능성과 영성의 결합**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though it sounds nonsense (말이 안 되지만) 라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He was still too weak to paint, and he sat in the studio, silent, **occupied with God** knows what dreams, or reading.

그는 아직 그림을 그릴 만큼 회복되지 않았고, 작업실에 앉아 말없이 신만이 아는 무슨 꿈에 잠겨 있거나 책을 읽었다.

silent, occupied with God knows what dreams

↑

과거분사 (형용사적 용법)

= he was occupied with dreams

한국어에서는 "무슨 꿈에 잠겨 있거나"로 번역되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영어에서 **occupied**는 **과거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인 것입니다.

He was silent and (he was) **occupied with dreams** 를 줄인 형태입니다. **silent**와 **occupied**가 병렬로 연결되어 스트릭랜드의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말이 없으면서 동시에 무언가에 몰두해 있다.

God knows what dreams 는 관용 표현으로 "신만이 아는 (= 알 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화자도 스트릭랜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occupied** 라는 단어가 **완전히 몰입된 상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 내용은 **불가해하다**는 대조를 만듭니다.

제 27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He looked **woebegone and yet ridiculous**, like a **man who has fallen** into the water with all his clothes on, and, being rescued from death, frightened still, feels that he only looks a fool.

그는 옷을 다 입은 채로 물에 빠졌다가 죽음에서 구조되어 여전히 겁에 질린 채, 자신이 바보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처럼 비참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관계대명사 **who**가 **man**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제의 층위**입니다.

He looked like a man who has fallen

과거 시점에서 본 사람 ← 현재완료로 묘사

한국어에서는 "물에 빠졌다가"로 단순하게 처리하지만, 영어는 **has fallen**(현재완료)을 씁니다. 왜일까요? 화자가 **지금 그 순간의 Stroeve**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는 사람" —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 당황스러운 상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관계절 안에서도 시제는 **독립적으로** 선택됩니다. **who fell** 이라고 했으면 "과거에 떨어진 일"이 되지만, **who has fallen** 은 "그 결과가 지금도 남아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 was furious with Strickland, and was indignant with myself, because Dirk Stroeve cut such an absurd figure that I felt inclined to laugh.

나는 스트릭랜드에게 화가 났고, 더크 스트루브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웃음이 나올 것 같은 자신에게도 분개했다. 두 개의 **was** 절이 **and** 로 연결된 병렬구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I was furious with Strickland, ← 대상: 스트릭랜드

and was indignant with myself, ← 대상: 나 자신

because Dirk Stroeve cut such an absurd figure

한국어에서는 "화가 났고... 분개했다"로 감정의 연속을 표현하지만, 영어는 **대상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with Strickland** vs **with myself** — 분노의 화살이 바뀝니다.

because 절이 **두 감정 모두**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스트루브가 우스꽝스러워서 → 스트릭랜드에게 화나고 + 웃고 싶은 자신에게도 화납니다. 병렬구조가 감정의 **분열**을 보여줍니다.

3. 관계사 (Relative Clause)

He stood like a schoolboy **with whom a master is finding fault.**

그는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학생처럼 서 있었다.

with whom 은 전치사 + 관계대명사 구조입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who... with 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문학에서는 여전히 이 형태를 씁니다.

a schoolboy with whom a master is finding fault

= a schoolboy (whom) a master is finding fault with

한국어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학생"에서는 관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with whom 을 쓰는 이유는 격식과 리듬 때문입니다. finding fault with 는 관용구인데, 전치사를 앞으로 빼내면 문장이 더 균형잡힙니다.

is finding (현재진행)도 주목하세요. finds (단순현재)가 아니라 "지금 꾸중받고 있는 중"입니다. Stroeve의 그 순간 상태를 포착합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He looked woebegone and yet ridiculous, like a man who has fallen into the water with all his clothes on, and, **being rescued from death, frightened still**, feels that he only looks a fool.

그는 옷을 다 입은 채로 물에 빠졌다가 죽음에서 구조되어 여전히 겁에 질린 채, 자신이 바보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처럼 비참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being rescued와 frightened still 이 연속으로 나오는 분사구문입니다. 시간의 순서를 보세요:

has fallen → being rescued → frightened still → feels

완료 진행중 결과상태 현재감정

한국어에서는 "구조되어 여전히 겁에 질린 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영어는 **분사의 시제**로 미묘한 차이를 만듭니다.

being rescued 는 수동 진행입니다. "구조되고 있는 중"이라는 뜻 —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은 상태. frightened still 은 과거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여전히 무서워하는" 상태.

이 두 분사구가 feels 로 이어지면서, 물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되는 **당황스러운 감정**을 표현합니다. 분사구문이 감정의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5. 준동사 (Non-finite Verb)

I smiled, for his appearance, so rotund and yet so startled, could never fail **to excite a smile**, and then as I came nearer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토록 둥글둥글하면서도 놀란 듯한 그의 모습은 언제나 미소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서

fail to + 동사원형 은 "~하지 못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부정의 부정**입니다.

could never fail to excite a smile

= 결코 미소를 자아내지 못할 수 없다

= 항상 미소를 자아낸다

한국어에서는 "미소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로 같은 구조를 씁니다. 하지만 영어의 **fail to**는 더 강조적입니다. 단순히 "항상 웃게 만든다"고 하지 않고, "웃게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복잡한 표현을 쓸까요?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Stroeve의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뜻. **never fail to**는 "100% 확실하다"는 강조 표현입니다.

it was not A that B 는 강조구문입니다. "B한 것은 A가 아니었다"는 뜻으로, A를 부정하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had driven 입니다. 단순과거 drove 가 아니라 과거완료를 쓴 이유는 — "그 절망 상태"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원인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원인 발생 → 절망 상태 → 화자의 관찰

(had driven) (obvious desperation) (I changed my mind)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시간차가 명확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과거완료가 **원인의 선행성**을 문법적으로 표시합니다.

4.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 supposed that for some **reason or other**—and Heaven knows what ingenuity men exercise to torment themselves—Dirk had got it into his head that his wife cared for Strickland, and with his genius for blundering he might quite well have offended her so that, to anger him, perhaps, she had taken pains to foster his suspicion.

무슨 이유에서인지—하늘만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얼마나 기발한 수를 쓰는지—더크는 아내가 스트릭랜드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었고, 실수를 저지르는 그의 천재적 재능으로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었으며, 그래서 아내가 그를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의 의심을 부추겼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 문장은 Maugham의 **문장 쌓기** 기법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supposed** 에 여러 절이 매달려 있습니다:

I supposed that:

- for some reason (Dirk had got it into his head)
- and with his genius (he might have offended her)
- so that (she had taken pains to foster his suspicion)

"reason or other"는 "무슨 이유에서든"이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or other** 는 "기타 등등"의 뜻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들을 뭉뚱그려 표현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이런 긴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는 하나의 복합문으로 **추론의 연쇄**를 보여줍니다. 화자의 머릿속 추리 과정이 문장 구조 그대로 드러납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It was about ten o' clock at night; I had been dining by myself at a restaurant, and **having returned to my small apartment**, was sitting in my parlour, reading I heard the cracked tinkling of the bell, and, going into the corridor, opened the door.

밤 열 시쯤이었다. 나는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응접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종이 갈라진 소리로 딸랑거리는 것을 듣고 복도로 나가 문을 열었다.

having returned to my small apartment, was sitting in my parlour

완료분사구

주절

having + pp 는 완료분사구로, **시간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돌아온 후에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돌아와서"로 번역되지만, 영어의 **having returned** 는 더 명확합니다. 단순한 **-ing** (returning)와 달리, **having returned** 는 "돌아오는 행동이 완료된 후"를 강조합니다.

시간 순서:

1. **dining by myself** (저녁 식사)
2. **having returned** (돌아옴 - 완료)
3. **was sitting** (앉아서 책 읽는 중)
4. **heard the bell** (종소리 들음)

분사구는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면서도 **동작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영어의 특징입니다.

제 29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After all, it constantly happens that a **man when he's married falls** in love with somebody else; when he gets over it he returns to his wife, and she takes him back, and everyone thinks it very natural.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일은 늘 있는 일이다. 그것이 지나가면 아내에게 돌아오고, 아내는 그를 받아들이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a man when he's married falls in love

주어: a man

수식: when he's married (삽입된 시간절)

동사: falls

한국어라면 "결혼한 남자가"로 깔끔하게 처리할 것을, 영어는 **a man** 을 먼저 제시하고 **when he's married** 를 **중간에 끼워넣습니다**. 이것이 영어 복합주어의 특징입니다.

왜 Maugham이 **a married man** 이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when he's married** 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시점**을 강조합니다. "결혼한 상태의 남자"가 아니라 "결혼하게 된 그 시점의 남자"입니다. 삽입절이 주어에 시간성을 부여합니다.

2. 가정법 (Subjunctive)

When she's alone and humiliated and broken **it would be dreadful if she had nowhere to go.**"

그녀가 혼자서 굴욕감에 시달리며 절망에 빠졌을 때 갈 곳이 없다면 끔찍할 것이다."

it would be dreadful if she had nowhere to go

주절: it would be dreadful (가정법 조건절)

if절: if she had nowhere to go (가정법 과거)

한국어 "~다면 ~일 것이다"와 영어 가정법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국어는 어미로 가정을 표현하지만, 영어는 **시제를 과거로 밀어서** 현실에서 한 발 물러난 상황을 표현합니다.

she has nowhere to go (현실) → she had nowhere to go (가정)

it will be dreadful (현실) → it would be dreadful (가정)

시제가 현실감을 조절하는 영어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You see, I've always **been jealous, but I trained myself never to show it; I was jealous of every man she knew; I was jealous of you.**

보세요, 나는 늘 질투심이 많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어요. 아내가 아는 모든 남자를 질투했고, 당신도 질투했습니다.

I've always been jealous, but I trained myself never to show it;

I was jealous of every man she knew;

I was jealous of you.

세 문장이 ; 로 연결되면서 리듬을 만듭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리듬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일반론, 두 번째는 구체화, 세 번째는 직접 타격입니다.

I was jealous of every man → I was jealous of you

"모든 남자"에서 "당신"으로 좁혀지면서 고백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평행구조가 점층법의 틀을 제공합니다.

4. 시제 (Complex Tense)

He **had not expected** Strickland to take him up on the spot and make his preparations to go there and then; above all, he had not expected his wife's decision to go with him.

그는 스트릭랜드가 즉석에서 받아들여 당장 떠날 준비를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아내가 함께 가겠다고 결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He had not expected Strickland to take him up

He had not expected his wife's decision

과거완료가 **두 겹의 예상 밖**을 표현합니다. 단순과거 **did not expect** 와 다른 점은 — 과거완료는 "그 시점에서 이미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를 강조합니다.

한국어 "예상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부정이지만, **had not expected** 는 **지속된 무예상 상태**입니다. 스트릭랜드의 즉석 결정도 충격이었지만, 아내의 동행 결정은 **above all** 로 더 큰 충격을 표시합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He was evidently in no state **to be left alone.**

그는 분명히 혼자 두어서는 안 될 상태였다.

He was in no state to be left alone

주어: He

상태: was in no state

부정사구: to be left alone (수동)

`to be left` 는 수동 부정사입니다. "혼자 남겨지기에는" — 능동이 아니라 **당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어 "혼자 두어서는 안 될"도 수동적 뉘앙스지만, 영어는 문법적으로 수동을 명시합니다.

`in no state to ~` 는 "~할 상태가 아니다"라는 관용 표현입니다. 여기서 `to be left` 가 오면서 "남겨져도 괜찮을 상태가 아니다"가 됩니다. 그의 무력함을 문법이 표현합니다.

제 30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But the **bed I made up for myself was** sufficiently uncomfortable to give me a wakeful night, and I thought a good deal of what the unlucky Dutchman had told me.

하지만 내가 마련한 잠자리는 충분히 불편해서 밤새 잠을 설쳤고, 나는 그 불운한 네덜란드인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꼼꼼히 생각해보았다.

주어가 복잡해도 동사는 단수형

But the bed [I made up for myself] was sufficiently uncomfortable

주어 [관계절로 수식] 동사(단수)

한국어에서는 "내가 마련한 잠자리는"처럼 주어가 길어져도 조사 "는"이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영어는 다릅니다 — 주어 안에 관계절 **I made up for myself** 가 끼어들어도, 핵심 명사 **bed** (단수)에 동사를 맞춰야 합니다.

bed 와 **was** 사이에 7단어가 끼어있지만, Maugham은 정확히 단수 동사를 씁니다. 영어는 **구조적 일치**를 요구합니다 —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핵심 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t is an emotion made up of the satisfaction in security, pride of property, the pleasure of being desired, the gratification of a household, and it is only by an amiable vanity that women ascribe to its spiritual value.

그것은 안전함에서 오는 만족감, 소유에 대한 자부심, 사랑받는다는 기쁨, 가정을 꾸러가는 충족감으로 이루어진 감정이며, 여성들이 여기에 정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단지 사랑스러운 허영심 때문이다.

병렬구조로 감정의 층위를 쌓다

It is an emotion made up of:

- the satisfaction in security
- pride of property
- the pleasure of being desired
- the gratification of a household

네 개의 명사구가 완벽한 병렬을 이룹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감, ~심, ~음, ~감"으로 어미를 통일했지만, 영어 원문은 **구조의 반복**으로 리듬을 만듭니다.

Maugham이 **and it is only by...** 로 이어가는 것도 병렬의 연장입니다. 첫 번째 **it is** 와 두 번째 **it is** 가 대조를 이룹니다 — "그것은 이런 감정이다" vs "그것에 정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허영이다."

3. 시제 (Complex Tense)

I do not suppose she **had ever really cared** for her husband, and what I had taken for love was no more than the feminine response to caresses and comfort which in the minds of most women passes for it.

그녀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은 없었을 것이고, 내가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은 애무와 안락함에 대한 여성적 반응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사랑으로 통한다.

과거완료가 만드는 심리적 거리

she had ever really cared ← 더 먼 과거 (그녀의 진짜 감정)

I had taken for love ← 더 먼 과거 (내가 오해했던 것)

passes ← 현재 (일반적 진실)

화자가 **지금**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과거완료로 한 겹 더 과거로 밀어냅니다. "그때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계속 사랑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한국어에서는 "~했던"과 "~했다"의 차이가 미묘하지만, 영어 과거완료는 **확실한 시간적 층위**를 만듭니다. 화자의 현재 깨달음과 과거의 착각 사이에 문법적 거리를 둡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She raised his head to give him food, and it was heavy against her hand; **when she had fed him** she wiped his sensual mouth and his red beard.

그녀는 그에게 음식을 먹이려고 그의 머리를 들어올렸는데, 그것은 그녀의 손에 무겁게 기대어졌다. 그에게 음식을 먹인 후 그녀는 그의 관능적인 입과 붉은 수염을 닦아주었다.

과거완료가 만드는 순서와 완결감

when she had fed him ← 먼저 완료된 행동

she wiped ← 그 다음 행동

when she had fed him은 단순한 "그에게 음식을 먹인 후"가 아닙니다. **완전히 끝마친 후**라는 뜻입니다. 과거완료는 행동의 완결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어에서는 "~한 후"로 순서를 나타내지만, 영어 과거완료는 더 정확합니다 — 첫 번째 행동이 **완전히 끝나야** 두 번째 행동이 시작됩니다. 이 문법적 정밀함이 간병하는 여인의 **차근차근한 돌봄**을 표현합니다.

5. 준동사 (Non-finite Verb)

But the bed I made up for myself was sufficiently uncomfortable **to give me a wakeful night**, and I thought a good deal of what the unlucky Dutchman had told me.

하지만 내가 마련한 잠자리는 충분히 불편해서 밤새 잠을 설쳤고, 나는 그 불운한 네덜란드인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꼼꼼히 생각해보았다.

결과를 나타내는 to부정사

was sufficiently uncomfortable to give me a wakeful night

충분히 불편했다

결과적으로 잠 못 이루게 했다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의 to부정사입니다. "잠을 설치게 하려고 불편했다"가 아니라 "불편해서 결과적으로 잠을 설치다."

한국어에서는 "~해서"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만, 영어는 **so ... as to** 또는 **sufficiently ... to** 구조로 **정도와 결과**를 연결합니다. 침대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였는지(sufficiently)와 그 결과(wakeful night)를 하나의 문법 구조로 묶어냅니다.

제 31 장

1. 가정법 (Subjunctive)

He might have excited sympathy if he had grown worn and thin.

그가 초췌해지고 말라갸다면 동정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might have excited - 동정을 받았을지도 (하지만 받지 못했다)

if he had grown - 만약 초췌해졌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가정법 과거완료의 전형입니다. "만약 A했다면, B했을 것이다" — 실제로는 A도 B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에서는 "~했다면 ... ~했을지도"로 표현하지만, 영어는 시제를 과거로 한 단계 더 밀어냅니다(had pp + might have pp). 현실에서 멀어진 시제 = 현실이 아닌 상황.

Maugham이 여기서 암시하는 것: Strickland는 초췌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동정도 받지 못했다. 시제가 이 대조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He spluttered out words of apology for any **wrong he had committed** towards her; he told her he loved her devotedly and begged her to return to him.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더듬거리며 사과했고, 그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any wrong [he had committed towards her]

↑

관계절이 wrong을 수식

wrong 은 명사입니다("잘못"). he had committed 는 관계절로 이 명사를 수식합니다. 관계대명사 which 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any wrong (which) he had committed.

한국어에서는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자연스럽게 번역됩니다. 영어의 관계절이 한국어의 관형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영어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과거완료 had committed 는 사과하는 시점(spluttered)보다 이전에 저지른 잘못임을 명확히 합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You could wander along the canal till you came to broad green fields, with windmills here and there, in which **cattle, black and white**, grazed lazily.

운하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넓고 푸른 들판이 나타났고, 여기저기 풍차가 서 있는 가운데 흑백 얼룩의 소들이 느긋하게 풀을 뜯고 있었다.

cattle, black and white, grazed

↑ _____ ↑

삽입된 형용구

black and white 는 cattle 을 수식하는 형용구입니다. 쉼표로 둘러싸여 삽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제한적 수식(non-restrictive modification)입니다.

한국어에서는 "흑백 얼룩의 소들"로 자연스럽게 앞에서 수식하지만, 영어는 뒤에서 수식하면서 쉼표로 잠깐 멈춤을 만듭니다. 이 멈춤이 독자의 시선을 소들의 색깔에 잠시 고정시킵니다.

Maugham의 의도: 목가적 풍경을 그리면서, 소들의 색깔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4. 시제 (Complex Tense)

The streets were wide and empty; for two hundred years the place **had been dying**, but the houses had the homely stateliness of their time.

거리가 넓고 텅 비어 있었다. 이백 년 동안 그 마을은 쇠락해가고 있었지만, 집들은 그 시대의 소박한 위엄을 간직하고 있었다.

for two hundred years the place had been dying

과거완료 진행형

과거완료 진행형(had been + -ing)입니다. "이백 년 동안 계속 죽어가고 있었다" —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상황을 나타냅니다.

한국어에서는 "쇠락해가고 있었다"로 번역되지만, 영어의 이 시제는 두 겹의 과거입니다. had been (과거완료) + -ing (진행형). 마치 카메라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때도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가고 있었구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dying이라는 동사 선택도 중요합니다. 마을이 서서히,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5. 관계사 (Relative Clause)

He had often spoken to me of the silent town, somewhere up in the north of Holland, **where his parents still lived**.

그는 네덜란드 북부 어딘가에 있는 조용한 마을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는데, 그곳에는 아직도 그의 부모가 살고 있었다.

the silent town, somewhere up in the north of Holland,

↓

where his parents still lived

↑

where 는 관계부사입니다. in which 와 같은 의미로,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town)를 받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그곳에는 아직도 그의 부모가 살고 있었다"로 번역되는데, 이때 "그곳에는"이 where 의 역할입니다. 영어의 관계부사가 한국어의 "거기서/그곳에서" 같은 지시부사와 비슷합니다.

still lived 에 주목하세요. 단순과거이지만 still 이 "아직도"라는 지속성을 더합니다.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에서, 그 부모들이 "그때도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 32 장

1. 가정법 (Subjunctive)

I was disgusted with him, and **if I had had an opportunity should have been glad to tell him so, but I saw no object in seeking him out for the purpose.**

나는 그가 역겨웠고, 기회가 있었다면 기꺼이 그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을 것이지만, 굳이 그를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if I had had an opportunity → should have been glad

과거완료 조건절 → 조건법 과거완료

여기서 **had had** 가 두 번 나오는 이유는 — 첫 번째 **had** 는 조건법 표시, 두 번째 **had** 는 "가지다"의 과거분사입니다. "만약 기회를 가졌었다면"이죠.

그런데 주절에서 **should have been** 을 씁니다. **would have been** 이 아니라요. 이것은 19세기 영어의 특징입니다 — 1인칭에서는 **should** 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라면 기꺼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뜻에서 **should** 가 의지를 담습니다.

한국어 "~았다면 ... ~었을 것이다"는 하나의 패턴이지만, 영어는 시제를 두 단계 뒤로 밀어서 비현실성을 표현합니다. 현실에서 멀어진 시제 = 일어나지 않은 일.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 knew from what I had heard that she was a woman of violent passions; and that injurious **blow that she had given Dirk, the man who had loved her so devotedly, betrayed** a sudden temper and a horrid cruelty.

내가 들은 바로는 그녀가 격렬한 감정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토록 헌신적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 더크에게 가한 그 해로운 타격은 갑작스러운 성질과 끔찍한 잔혹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that injurious blow [that she had given Dirk, the man who had loved her] betrayed...

주어

[관계절 + 동격어구]

동사

주어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blow betrayed** 입니다. 중간에 긴 관계절(**that she had given Dirk**)과 동격어구(**the man who had loved her**)가 끼어있을 뿐입니다.

한국어에서는 "그 타격이 ... 드러내었다"로 단순하게 번역되지만, 영어는 **수식어를 주어 안에 겹겹이 쌓아서** 문장의 무게중심을 만듭니다. Maugham이 **blow** 와 **betrayed** 사이에 이 모든 정보를 끼워넣은 이유는 — 독자가 동사에 도달할 때까지 그 타격의 맥락을 충분히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 do not know why I had expected her to be somehow changed; she wore the same gray dress that she **wore so often, neat and becoming**, and her brow was as candid, her eyes as untroubled, as when I had been used to see her occupied with her household duties in the studio.

왜 그녀가 어딘가 달라져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늘 입던 그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단정하고 잘 어울렸고, 그녀의 이마는 여전히 맑았고 눈빛도 평온했다. 마치 내가 늘 보던 대로 작업실에서 집안일에 몰두하고 있던 때와 똑같았다.

she wore the same gray dress that she wore so often,

↓

[neat and becoming]

여기서 **neat and becoming** 은 드레스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입니다. 한국어로는 "단정하고 잘 어울리는 드레스"가 되겠지만, 영어에서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이것이 영어의 특징입니다 — 형용사가 명사 뒤로 가면서 **추가 정보**의 느낌을 줍니다. **gray dress, neat and becoming** 은 "회색 드레스인데, 단정하고 잘 어울리는"이라는 뉘앙스입니다. 마치 화자가 드레스를 보면서 "아, 그리고 단정하고 잘 어울리네"라고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의 "단정하고 잘 어울리는 회색 드레스"보다 더 **관찰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4. 관계사 (Relative Clause)

He was not a man **with whom it was worth while wasting politeness.**

그는 예의를 차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He was not a man [with whom it was worth while wasting politeness]

↑

전치사 + 관계대명사

with whom 에서 **with** 가 앞으로 나온 이유는 — 원래 구조가 **it was worth while wasting politeness with him** 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절로 만들면서 전치사 **with** 가 관계대명사 **whom** 앞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한국어에는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예의를 차릴 가치가 있는 사람"을 "예의를 차릴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의 **with whom** 구조는 **격식체**입니다. 구어에서는 **who ... with** 로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Maugham은 문어체의 품격을 유지합니다. 이 한 구조가 화자의 교양을 드러냅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I do not know why I had expected her to be somehow changed; she wore the same gray dress that she wore so often, neat and becoming, and her brow was **as candid, her eyes as untroubled, as when I had been used to see her occupied with her household duties in the studio.**

왜 그녀가 어딘가 달라져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늘 입던 그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단정하고 잘 어울렸고, 그녀의 이마는 여전히 맑았고 눈빛도 평온했다. 마치 내가 늘 보던 대로 작업실에서 집안일에 몰두하고 있던 때와 똑같았다.

her brow was as candid, her eyes as untroubled, as when I had been used to see her occupied

occupied 는 여기서 **형용사**입니다. "몰두한 상태의"라는 뜻이죠. see her occupied 는 "그녀가 몰두한 모습을 보다"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집안일에 몰두하고 있던"으로 번역되지만, 영어 occupied 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She was occupied 가 원래 구조이고, see her occupied 는 그 상태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 지각동사(see, hear 등)의 특징입니다 — see + 목적어 + 형용사/분사 로 "~한 상태를 보다"를 표현합니다. 한국어의 "~하는 것을 보다"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제 33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 thought it probable enough that Blanche Stroeve would not continue to find life with Strickland tolerable, but **one of the falsest of proverbs is** that you must lie on the bed that you have made.

블랑슈 스트루브가 스트릭랜드와의 생활을 계속 견딜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깐 자리에는 자신이 누워야 한다'는 속담만큼 거짓된 것도 없다.

one of the falsest of proverbs is that...

주어: one (of the falsest of proverbs)

동사: is

보어: that절

영어에서 **one of + 최상급 + 복수명사** 는 단수 취급합니다. "속담들 중 하나"이지만 동사는 **is** 입니다. 한국어는 "속담만큼 거짓된 것도 없다"로 번역되어 주어-동사 일치가 보이지 않지만, 영어는 문법적으로 강제됩니다.

Maugham이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one of the falsest** 는 강한 판단입니다. 단순히 "거짓된 속담"이 아니라 "가장 거짓된 것들 중 하나"라고 못 박습니다. 영어의 최상급 + 단수 동사 조합이 이 확신을 문법으로 뒷받침합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Stroeve had always **been excitable, but now he was beside himself**; there was no reasoning with him.

스트루브는 원래 흥분을 잘 하는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와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다.

Stroeve had always been excitable, ← 과거완료 (배경/지속)

but now he was beside himself ← 단순과거 (현재 상황)

한국어 번역에서는 "원래 흥분을 잘 하는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다"로 시제 대조가 흐려집니다. 하지만 영어는 **시제로 대조**를 만듭니다.

had been 은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 쪽 그랬던" 배경이고, **was** 는 "지금 이 순간의" 상태입니다. **but now** 가 시간적 전환점을 명시하면서, 과거완료에서 단순과거로의 시제 이동이 "평소 vs 지금"의 극적 대비를 만듭니다.

3. 준동사 (Non-finite Verb)

I thought it probable enough that Blanche Stroeve would not continue **to find life with Strickland tolerable**, but one of the falsest of proverbs is that you must lie on the bed that you have made.

블랑슈 스트루브가 스트릭랜드와의 생활을 계속 견딜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깐 자리에는 자신이 누워야 한다'는 속담만큼 거짓된 것도 없다.

continue to find life with Strickland tolerable

동사: continue

목적어: to find... (부정사구)

↳ find의 목적어: life

↳ find의 목적격보어: tolerable

continue + to부정사는 "계속해서 ~하다"입니다. 한국어는 "견딜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로 번역되어 부정사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find + 목적어 + 형용사는 "~를 ...하다고 여기다"입니다. 블랑슈가 생활을 "tolerable하다고 여기는 것"을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Maugham은 이를 인식의 문제로 프레이밍합니다 —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 블랑슈의 **주관적 판단**의 지속성을 다룹니다.

4. 관계사 (Relative Clause)

He has no ill-feeling towards you on account of anything **that has happened**.

그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때문에 당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지 않다.

anything that has happened

선행사: anything

관계사: that

관계절: has happened

anything that 은 "~한 모든 것"입니다. 한국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영어는 더 포괄적입니다. anything 은 "어떤 것이든"의 뜻이 있어서, 구체적 사건들을 나열하지 않고 **전체**를 가리킵니다.

has happened 는 현재완료 —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난"입니다.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입니다. Maugham이 현재완료를 쓴 이유: 그 일들이 **지금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시제 (Complex Tense)

I could only repeat that by no word, by no hinted gesture, **had she given** an indication of her feelings.

그녀가 어떤 말로도, 어떤 암시하는 몸짓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나는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by no word, by no hinted gesture, had she given...

↑

도치된 동사

정상 어순: she had given no indication by no word, by no hinted gesture

이것은 부정어 도치입니다. `by no word` 가 문두에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뒤바뀝니다. 한국어에서는 "어떤 말로도, 어떤 암시하는 몸짓으로도"가 자연스럽게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문법적 도치**가 필요합니다.

Maugham이 도치를 선택한 이유: 강조입니다. 정상 어순이라면 평범한 서술이지만, 도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전혀"라는 완전한 부정을 극적으로 만듭니다. 과거완료 + 도치의 조합이 화자의 확신을 강화합니다.

제 34 장

1.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But though I was no less convinced than Stroeve that the connection between **Strickland and Blanche** would end disastrously, I did not expect the issue to take the tragic form it did.

하지만 스트릭랜드와 블랑슈의 관계가 파멸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스트루브만큼이나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결말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비극적인 형태를 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though I was no less convinced than Stroeve that... → I did not expect...

한국어는 "~음에도 불구하고"로 양보를 표현하지만, 영어는 **구조적 대칭**으로 대조를 강화합니다. **I was convinced vs I did not expect** — 같은 주어, 같은 동사 패턴이지만 정반대 내용입니다.

"Strickland and Blanche"도 병렬입니다. Maugham은 두 인물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제시합니다. 개별 인물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주인공인 문장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스트릭랜드와 블랑슈의 관계가"로 명시하지만, 영어는 병렬 구조만으로 이 의미를 전달합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The sun-baked streets seemed to give back the **heat that had beat** down on them during the day, and the passers-by dragged their feet along them wearily.

햇볕에 달궈진 거리들은 하루 종일 내리쬐 열기를 되돌려 보내는 듯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친 발걸음을 질질 끌며 걸어갔다.

the heat that had beat down on them

관계대명사 **that** 이 **heat** 를 받고, 동사는 **had beat** 입니다. 여기서 **beat** 는 과거분사가 아니라 **과거완료의 동사원형**입니다. **beat-beat-beaten** 이므로 과거완료는 **had beaten** 이 맞지만, Maugham은 **had beat** 를 씁니다.

이는 당시(1919년)의 용법입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had beaten** 이 표준이지만, 문학에서는 리듬감을 위해 불규칙 변화를 단순화하기도 했습니다. "heat that had beat" — 두 번의 [i:t] 음이 더위의 반복적 타격을 흉내냅니다.

3. 도치 (Inversion)

By my side was the empty bowl in which the concierge had brought me my café au lait and the fragment of croissant which I had not had appetite enough to eat.

내 곁에는 관리인이 가져다준 카페오레를 마신 빈 그릇과 식욕이 없어서 다 먹지 못한 크루아상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일반 어순: The empty bowl was by my side

도치 어순: By my side was the empty bowl

장소 부사구 **By my side** 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서 주어와 동사가 뒤바뀝니다. 한국어에서는 "내 곁에는"처럼 조사 "는"으로 화제를 표시하지만, 영어는 **어순 변화**로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도치가 만드는 효과: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곁에서 시작해서 그릇과 크루아상으로 이어집니다. 정상 어순이었다면 그릇이 먼저 나오고 위치가 나중에 나왔을 것입니다. Maugham은 **공간감**을 우선시합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Occupied with other things, I had ceased to think of him and his affairs.

다른 일들에 바빠서 그와 그의 사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Occupied with other things], I had ceased to think...

분사구문 ← 원인/이유

과거분사 **Occupied**가 문장 앞에 나와서 **이유**를 나타냅니다. 한국어 "다른 일들에 바빠서"와 정확히 대응됩니다. 영어는 분사 하나로 전체 부사절을 압축합니다.

Because I was occupied with other things를 **Occupied with other things**로 줄인 것입니다. 문학에서 이런 압축은 **리듬감**을 만듭니다. 긴 설명 없이 바로 핵심(그를 잊었다)으로 들어갑니다. 분사구문은 영어 산문의 **호흡**을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5. 관계사 (Relative Clause)

By my side was the empty bowl **in which the concierge had brought me my café au lait and the fragment of croissant** which I had not had appetite enough to eat.

내 곁에는 관리인이 가져다준 카페오레를 마신 빈 그릇과 식욕이 없어서 다 먹지 못한 크루아상 조각이 놓여 있었다.

the empty bowl [in which the concierge had brought me my café au lait]

and

the fragment of croissant [which I had not had appetite enough to eat]

두 개의 관계절이 병렬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in which**(전치사 + 관계대명사), 두 번째는 **which**(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둘 다 "~한"으로 번역되지만, 영어는 **문법적 역할**이 다릅니다.

in which = "그 그릇 안에서" (장소)

which = "그것을" (직접목적어)

이 구조가 만드는 효과: 화자의 아침 식사 장면이 **두 개의 미완성**으로 구성됩니다. 빈 그릇(다 마신 커피)과 남은 크루아상(못 먹은 음식). 관계절이 이 대조를 부각시킵니다.

제 35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We heard voices in the **room in which she lay**, and presently the nurse returned to say that the patient refused to see anyone.

그녀가 누워 있는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곧 간호사가 돌아와 환자가 아무도 만나기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We heard voices in the room [in which she lay]

↑

관계절이 room을 수식

in which she lay 는 **room** 을 수식하는 관계절입니다. 원래는 **she lay in the room** 이었는데, **in** 을 앞으로 빼고 **which** 로 연결한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그녀가 누워 있는 방"처럼 관형절이 앞에서 수식합니다. 영어는 뒤에서 수식하되, 전치사(**in**)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어올려 격식을 높입니다. **the room which she lay in** 보다 **the room in which she lay** 가 더 문어적입니다.

Maugham이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병실이라는 공간의 **폐쇄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in which** 의 격식체가 상황의 엄숙함과 어울립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We had **told her that if she refused to see Dirk the nurse was to ask if she would see me, but this** she refused also.

우리는 그녀가 더크 만나기를 거부하면 간호사에게 나라도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지만, 이것도 거부했다.

told her that [if she refused to see Dirk]

[the nurse was to ask if she would see me]

but this she refused also

복잡한 병렬 구조입니다. **told her that** 뒤에 조건절(**if she refused**)과 주절(**the nurse was to ask**)이 중첩되고, 그 안에 또 다른 조건절(**if she would see me**)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만약 A하면 B하라고 했지만, 이것도 거부했다"로 단순화됩니다. 영어는 **that** 절 안에서 조건문을 중첩시켜 **계획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1차 거부 → 2차 제안 → 2차 거부.

but this she refused also 에서 **this** 는 앞 전체 상황을 가리키며, 어순 도치(**this she refused**)가 실망감을 강조합니다.

3.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The nurse looked at him with her calm, kind eyes, which had seen all the horror and pain of the world, and yet, **filled with the vision of a world without sin**, remained serene.

간호사는 세상의 모든 공포와 고통을 보아왔으면서도, 죄 없는 세상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차분하고 친절함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eyes, which had seen all the horror and pain,

and yet, [filled with the vision], remained serene

↑

과거분사구가 주어를 수식

filled with the vision 은 과거분사구로 **eyes** (실제로는 간호사)를 수식합니다. **she was filled with**에서 **she was**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한국어에서는 "환상으로 가득 찬"이라는 관형어로 처리됩니다. 영어의 과거분사는 **상태**를 나타내며, 여기서는 대조를 만듭니다: **had seen** (경험) vs **filled with** (현재 상태).

Maugham의 의도: 간호사의 눈이 **모순**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다 보았으면서도 (**had seen**) 이상향의 환상으로 가득하다(**filled with**). 과거분사가 이 역설적 상태를 포착합니다.

4. 시제 (Complex Tense)

I tried to imagine what **had happened** to drive the poor creature to that dreadful step.

그 불쌍한 여인을 그런 끔찍한 선택으로 내몬 것이 무엇인지 상상해보려 했다.

I tried to imagine what [had happened] to drive...

↑

과거완료 - tried보다 더 이전

had happened 은 과거완료로, **tried** (단순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을 나타냅니다. "내가 상상하려 했던" 그 순간보다 **먼저** 일어난 일들을 가리킵니다.

한국어에서는 "일어났던 것"으로 표현되지만, 시제 구분이 영어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어의 과거완료는 **시간의 층위**를 만듭니다:

[무언가 일어남] → [내가 상상하려 함] → (지금)

had happened

tried to imagine

Maugham이 과거완료를 쓴 이유: 자살 시도의 원인들이 **축적된 과거**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쌓여온 일들의 결과입니다.

5. 준동사 (Non-finite Verb)

I took him to the Louvre, and he pretended **to look at pictures**, but I saw that his thoughts were constantly with his wife.

나는 그를 루브르 박물관에 데려갔고, 그는 그림을 보는 척했지만 그의 생각이 끊임없이 아내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e pretended [to look at pictures]

↑

목적어 나타내는 to부정사

pretended to look 에서 to look 은 목적어 나타내는 to부정사입니다. "그림을 보는 것을 가장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는 "~하는 척했다"로 표현되는데, 영어는 pretend + to부정사 구조를 씁니다. 여기서 to부정사는 **가짜 행동**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점: pretend 는 진짜가 아닌 행동을 의미하는데, to부정사가 그 "가짜 목적"을 담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그림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는 척을 하려는 것입니다. to부정사가 이 이중적 의도를 구조적으로 보여줍니다.

Maugham의 의도: Dirk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곳(아내)에 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제 36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Stroeve went twice a day to the hospital to enquire after his wife, who still declined to see him; and came away at first relieved and hopeful because he was told that she seemed to be growing better, and then in despair because, the **complication which the doctor had feared having ensued, recovery was** impossible.

스트루브는 하루에 두 번씩 병원에 가서 아직도 그를 만나기를 거부하는 아내의 안부를 물었고, 처음에는 그녀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안도하며 희망을 품고 돌아왔지만, 의사가 우려했던 합병증이 생겨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절망에 빠져 돌아왔다.

이 문장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은 **the complication which the doctor had feared having ensued** 입니다.

the complication [which the doctor had feared] having ensued

↳ 관계절: 의사가 우려했던

↳ 주어: 합병증이

↳ 완료분사: 일어났기 때문에

having ensued 는 완료분사로,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냅니다. 한국어로는 "~이 생겨서"로 번역되지만, 영어에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독립분사구문입니다.

전체 구조: "의사가 우려했던 합병증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했다." Maugham이 이렇게 복잡하게 쓴 이유는 — 절망의 **원인**을 문법 구조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합병증이 생겼다"가 아니라 "예상되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는 뉘앙스를 담습니다.

2. 가정법 (Subjunctive)

The poor woman lay quite still, refusing to speak, with her eyes intent, **as though she watched for the coming of death.**

불쌍한 여인은 꿈쩍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고, 말하기를 거부한 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기라도 하듯 눈을 집중하고 있었다.

As though she watched 에서 Maugham은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현재 상황을 묘사하면서 **watched** (과거형)를 쓴 이유는?

as though she watched ← 가정법 과거 (현실이 아닌 추측)

as if she watches ← 직설법 현재 (실제로 그렇다)

한국어에서는 "~하듯"이나 "~하기라도 하듯"으로 표현합니다. 영어의 가정법은 **확실하지 않음**을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녀가 정말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문학적 효과입니다. **as if she watches** 라고 썼으면 "확실히 그렇다"가 되고, **as though she watched** 는 "그런 것 같다"가 됩니다. 죽음 앞의 신비로운 상태를 가정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3.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The poor woman lay quite still, **refusing to speak, with her eyes intent**, as though she watched for the coming of death.

불쌍한 여인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고, 말하기를 거부한 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기라도 하듯 눈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 문장은 **분사구문의 연쇄**입니다:

The poor woman lay quite still,

└ refusing to speak, ← 현재분사 (동시 행동)

└ with her eyes intent, ← with + 형용사 (상태)

└ as though she watched... ← 비교 (추가 묘사)

한국어에서는 "~하며, ~한 채로, ~하듯"으로 번역됩니다. 영어는 이 모든 것을 **주절 하나**에 붙입니다. **lay**가 주동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 상황을 **동시에** 묘사하는 구문들입니다.

refusing은 의도적 행동, **with her eyes intent**는 상태, **as though she watched**는 인상 — 세 가지 다른 층위의 묘사를 한 문장에 겹쳐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 문학의 **압축성**입니다.

4.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t could now **be only the question of a day or two; and when, late one evening, Stroeve came to see me I knew it was to tell me she was dead.**

이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일 뿐이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스트루브가 나를 보러 왔을 때, 나는 그가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임을 알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미콜론과 접속사의 조합**입니다:

It could now be only the question of a day or two;

and when... Stroeve came to see me

I knew it was to tell me she was dead.

세미콜론(;)은 두 독립절을 연결하지만, 여기서는 **and when**이 따릅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절: "이제 하루 이틀 문제였다" (일반적 상황)

두 번째 절: "그가 왔을 때, 나는 알았다" (구체적 사건)

한국어에서는 "~였다. 그런데 ~했을 때"로 번역되지만, 영어는 세미콜론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and when**으로 **결정적 순간**을 도입합니다. 문법이 서스펜스를 만드는 예입니다.

5. It 강조/가주어 (It-Cleft / Formal Subject)

It was awful to see her lovely skin all wounded.

그녀의 아름다운 피부가 온통 상처로 뒤덮인 모습을 보는 것은 끔찍했다.

It was awful to see 는 **가주어 구문**입니다:

It was awful [to see her lovely skin all wounded]

↳ 가주어 ↳ 진주어 (to부정사구)

한국어로는 "~하는 것은 끔찍했다"로 번역되지만, 영어에서는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구문입니다.

비교해보세요:

- To see her lovely skin all wounded was awful ← 직접적
- It was awful to see her lovely skin all wounded ← 감정이 앞서는

It was awful 이 먼저 나오면서 **감정적 충격**을 예고합니다. 그 다음에 to see 가 나와서 그 충격의 **원인**을 밝힙니다. 문법 순서가 **심리적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충격 → 원인의 순서로 독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 37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The **circumstances of Blanche Stroeve's death necessitated** all manner of dreadful formalities, but at last we were allowed to bury her.

블랑슈 스트루브의 죽음으로 인해 온갖 끔찍한 절차들을 거쳐야 했지만, 마침내 우리는 그녀를 매장할 수 있게 되었다.

복잡한 주어가 동사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The circumstances of Blanche Stroeve's death] necessitated [all manner of dreadful formalities]

복잡한 주어

동사

목적어

한국어라면 "블랑슈의 죽음 때문에 절차들을 거쳐야 했다"로 원인을 부사구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원인 자체를 주어로** 만듭니다. **circumstances**가 **necessitated**를 일으킵니다.

이런 구조는 영어 문학에서 **객관적 어조**를 만듭니다. "우리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가 아니라 "상황이 절차를 필요로 했다" — 마치 죽음이라는 사건이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씁니다. Maugham의 차가운 관찰자 시선이 문법에 스며든 것입니다.

2. 가정법 (Subjunctive)

He wanted to know **where we wished to be set down**.

어디서 내려드릴지 묻는 것이었다.

여기서 **wished**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원하다"의 정중한 표현입니다.

where we wished to be set down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내려주기를

한국어 "어디서 내려드릴지"는 높임 표현입니다. 영어는 높임법이 없는 대신 **wish**라는 단어 선택으로 정중함을 표현합니다. **want**보다 격식 있고, **would like**보다 간결합니다.

수동태 부정사 to be set down도 주목할 점입니다. "우리를 내려주다"를 "우리가 내려지다"로 표현해서 운전기사의 행위를 부드럽게 요청하는 뉘앙스를 만듭니다. 영어의 정중함은 이런 문법적 우회로 만들어집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We **went at a foot-pace, but on the way back we trotted, and there was something to my mind singularly horrible in the way the driver of the hearse whipped up his horses.**

우리는 걸음걸이로 갔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속보로 갔는데, 영구차 마부가 말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는 묘하게 끔찍하게 느껴졌다.

대조의 병렬구조입니다. **but**을 중심으로 두 상황을 대비시킵니다.

We went at a foot-pace, 갈 때: 걸음걸이로

but 대조

on the way back we trotted, 올 때: 속보로

and there was something... 그리고 끔찍한 느낌

한국어는 "갔지만... 왔는데..."로 어미 변화로 대조를 표현합니다. 영어는 **구조의 대칭**으로 대조를 만듭니다. 같은 패턴(We went / we trotted)을 반복하면서 속도만 바꿉니다.

마지막 절 and there was something singularly horrible 은 이 대조가 만든 **감정적 충격**을 포착합니다. 장례식의 엄숙함 vs 돌아갈 때의 성급함 — 이 괴리감이 화자에게 "끔찍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4. 시제 (Complex Tense)

Dirk **had not been** to the studio since the wretched morning on which they had taken Blanche to the hospital.

더크는 블랑슈를 병원으로 데려간 그 비참한 아침 이후로 화실에 가지 않았다.

과거완료로 시간의 층위를 나눕니다.

—[had taken Blanche to the hospital]—▶ had not been —▶ (지금)

더 먼 과거 (그 비참한 아침)

과거완료

"데려간 아침 이후로 가지 않았다" — 한국어는 "이후로"라는 부사로 시간 관계를 표현합니다. 영어는 **시제 자체**로 표현합니다. had taken 이 기준점을 만들고, had not been 이 그 이후의 지속 상태를 나타냅니다.

since 는 과거완료와 자주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Dirk의 트라우마가 그 아침을 경계로 삶을 나눈 것을 시제가 보여줍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Slackening his pace for a moment, he leaned over and spoke.

잠시 속도를 늦춘 그가 몸을 기울이며 말을 걸었다.

현재분사구가 동시 동작을 표현합니다.

Slackening his pace for a moment, ← 속도를 늦추면서 (동시)

he leaned over and spoke. ← 몸을 기울이고 말했다 (주동작)

한국어는 "속도를 늦춘 그가"로 관형어를 만들거나 "늦추며"로 부사어를 만듭니다. 영어 현재분사는 **동시성**을 강조합니다. 말을 걸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동작임을 보여줍니다.

for a moment 가 현재분사구 안에 들어간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잠깐의 속도 조절 → 몸을 기울임 → 말하기의 연속된 흐름을 문법이 재현합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모션처럼 동작을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효과입니다.

seem to do 는 "~하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now 가 중간에 끼여든 것이 포인트입니다. seemed to weigh 가 아니라 seemed now to weigh—"이제는 짓누르는 것 같았다".

한국어에서는 "이제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로 번역됩니다. 영어의 seem + to부정사 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 장치입니다. 직접 "조롱이 그를 짓눌렀다"고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았다"고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합니다. 이것이 소설가의 시선—단정하지 않고 관찰하는 어조입니다.

제 39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The bedroom looked as though she had just left it: the brushes were neatly placed on the toilet-table, one on each side of the comb; someone had smoothed down the bed on which she had spent her last night in the studio; and her **nightdress in a little case lay** on the pillow.

침실은 그녀가 방금 나간 것처럼 보였다. 빗들은 화장대 위에 빗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하나씩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누군가 그녀가 작업실에서 보낸 마지막 밤을 지낸 침대를 매끄럽게 정리해 놓았으며, 작은 케이스에 든 잠옷이 베개 위에 놓여 있었다.

her nightdress in a little case lay on the pillow

주어(복합)

동사

한국어라면 "작은 케이스에 든 잠옷이"로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주어의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nightdress**가 핵심이고, **in a little case**는 수식어구입니다.

영어 어순의 특징: 수식어가 길어져도 **동사는 주어의 핵심과 일치**해야 합니다. **nightdress** (단수) → **lay** (단수). 만약 **nightdresses** 였다면 **lay**가 아니라 다른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Maugham이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침실의 **고요한 정적**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잡한 수식어구가 문장을 늘어뜨리면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만듭니다.

2. 가정법 (Subjunctive)

I could have wished that Strickland had used some other phrase to indicate his refusal.

스트릭랜드가 거절의 뜻을 표할 때 다른 표현을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I could have wished that Strickland had used some other phrase

가정법 과거완료

가정법 과거완료

이것은 **이중 가정법**입니다. "wish"는 원래 현실과 반대되는 소망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could have wished**로 한 번 더 거리를 둡니다.

한국어로는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could have wished**는 더 복잡합니다 — "그때 그런 소망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러지도 못했다)".

Maugham의 의도: 화자의 **무력감**을 표현합니다. 스트릭랜드의 잔인한 말을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을 바라는 것조차 부질없다는 체념이 이중 가정법에 스며있습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He dragged himself up the stairs; his feet **seemed unwilling to carry him; and outside the door he lingered for a long time, trying to summon up courage to go in.**

그는 계단을 질질 끌며 올라갔다. 발이 그를 나르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고, 문 밖에서 오랫동안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려고 애썼다.

He dragged himself up the stairs;

his feet seemed unwilling to carry him;

and outside the door he lingered for a long time, trying to summon up courage

세미콜론(;)으로 연결된 **병렬 구조**입니다. 각 절이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흐름을 만듭니다.

한국어에서는 "~했다. ~것 같았고, ~했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영어의 세미콜론은 **의도적인 리듬**을 만듭니다. 각 절이 Dirk의 **주저하는 발걸음**처럼 끊어집니다.

Maugham의 선택: 쉼표로 이으면 너무 급하고, 마침표로 나누면 너무 끊어집니다. 세미콜론은 **망설임의 리듬**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문법이 곧 감정입니다.

4. 수동태 (Passive Voice)

On a rack were the plates that she had used for dinner on the night of her quarrel with Strickland, and they **had been carefully washed**.

선반에는 스트릭랜드와 다툰 밤 저녁 식사 때 그녀가 사용했던 접시들이 놓여 있었는데, 깨끗이 씻어져 있었다.

they had been carefully washed

과거완료 수동태

과거완료 수동태입니다. 단순히 "씻어져 있었다"가 아니라, "(그 전에) 씻어져 있었다"입니다.

시간의 층위를 보면:

씻음 → had been washed → 화자가 발견 → 지금

한국어에서는 "깨끗이 씻어져 있었다"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영어의 과거완료는 **시간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누군가(아마 Blanche)가 마지막 저녁 후에 정성스럽게 설거지를 했고,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

Maugham의 의도: 죽음 앞에서도 **일상의 질서**를 유지했던 Blanche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과거완료가 그 정성스러움을 시간 속에 고정시킵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She had done her marketing from day to day, buying only what was strictly needful, **so that nothing was left over from one day to the next**.

그녀는 날마다 장을 보면서 꼭 필요한 것만 사서, 하루에서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했다.

so that nothing was left over from one day to the next

left over는 **과거분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남겨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국어에서는 "남어가는 것이 없도록"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left over**는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능동적인 "남기다"가 아니라 수동적인 "남겨진 채로 있다".

Maugham이 이 표현을 선택한 이유: Blanche의 **절제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과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left over**라는 표현이 그 철저함을 담습니다 — 하루가 다음 날로 **흘러넘치는** 것을 막았다는 뜻입니다.

제 40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t was characteristic of him to display geniality with anyone who showed a disinclination to meet him, and the **coolness of my greeting can have left** him in little doubt of that.

자신을 만나기 꺼리는 기색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친근함을 과시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고, 내가 차갑게 인사한 것만 봐도 그는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can have left 는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완료형입니다.

can have left him in little doubt

=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했을 것이다"로 번역되지만, **would have left**와는 다릅니다. **would have**는 가정법("만약 ~했다면"), **can have**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갑게 인사했으니까, 그는 분명히 눈치챘을 거야" — 화자가 지금 돌이켜보며 과거 상황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Maugham이 **can have**를 쓴 이유는 확신보다는 **합리적 추측**의 뉘앙스를 주려는 것입니다.

2.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For the next month, occupied with my own affairs, I saw no one connected with this lamentable business, and my mind ceased to be occupied with it.

그 다음 한 달 동안 내 일에 바빠서 이 비참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내 마음도 더 이상 그 일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occupied with my own affairs 는 **과거분사구**로 이유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For the next month, [occupied with my own affairs], I saw no one

= 내 일에 바빠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한국어에서는 "~해서" 또는 "~하느라"로 자연스럽게 번역됩니다. 영어의 과거분사구는 주어(I)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유**를 제공합니다.

Being occupied를 생각한 형태입니다. 문장 앞에 콤마로 분리되어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분사구문 패턴입니다.

Maugham은 이런 구조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면서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For the next month, occupied with my own affairs, I **saw no one connected with this lamentable business, and my mind ceased to be occupied with it.**

그 다음 한 달 동안 내 일에 바빠서 이 비참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내 마음도 더 이상 그 일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 문장은 **대칭 구조**로 화자의 심리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I saw no one connected with this business

and

my mind ceased to be occupied with it

"보지 않았다 → 생각하지 않았다" — 외적 행동에서 내적 상태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한국어에서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다"로 대칭을 이룹니다.

특히 **occupied** 가 문장 앞부분과 끝부분에서 반복됩니다("occupied with my affairs" → "occupied with it"). 이런 어휘 반복은 **의미의 대조**를 강조합니다: 내 일에는 바빴지만, 그 사건에는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았다.

4. It 강조/가주어 (It-Cleft / Formal Subject)

Nodding, for **it would have been childish to cut him**, I walked on quickly; but in a minute I felt a hand on my shoulder.

그를 외면하는 것은 유치한 일이었으므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빨리 걸어갔지만, 잠시 후 어깨에 손이 얹히는 것을 느꼈다.

it would have been childish to cut him 에서 **it** 은 **가주어**입니다.

it would have been childish [to cut him]

= [to cut him] would have been childish

= 그를 외면하는 것은 유치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하는 것은"으로 자연스럽게 번역되지만, 영어는 긴 주어(**to cut him**)를 뒤로 보내고 **it**을 앞에 둡니다. 이는 **문장 균형**을 위한 구조입니다.

would have been 은 가정법 과거완료 — "만약 외면했다면 유치했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외면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화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뉘앙스입니다.

5. 관계사 (Relative Clause)

It was characteristic of him to display geniality with anyone **who showed a disinclination to meet him**, and the coolness of my greeting can have left him in little doubt of that.

자신을 만나기 꺼리는 기색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친근함을 과시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고, 내가 차갑게 인사한 것만 봐도 그는 충분히 눈치챈 것이다.

anyone who showed a disinclination 에서 **who** 는 **제한적 관계절**을 이끕니다.

anyone [who showed a disinclination to meet him]

한국어에서는 "~하는 사람"으로 번역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영어의 관계절은 선행사(**anyone**) 바로 뒤에 와서 **그 사람을 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trickland의 성격 묘사입니다. "자신을 피하려는 사람일수록 더 친근하게 대한다" — 이는 그의 **역설적 성격**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관계절이 이런 복잡한 심리를 간결하게 포착합니다.

제 41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He recognises in himself an artistic satisfaction in the contemplation of evil which a little startles him; but sincerity forces him to confess that the **disapproval he feels for certain actions is** not nearly so strong as his curiosity in their reasons.

그는 악을 관조할 때 느끼는 예술적 만족감을 자신 안에서 인식하며 약간 놀라게 되지만, 솔직함이 그로 하여금 특정 행위들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이 그 이유에 대한 호기심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

He recognises [that] the disapproval he feels for certain actions is not nearly so strong...

↑주어

↑동사

관계절 **he feels for certain actions**가 주어 **disapproval**을 수식합니다. 한국어라면 "그가 특정 행위들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영어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긴 수식구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disapproval (단수) → **is** (단수 동사) — 중간에 **actions** (복수)가 있어도 동사는 진짜 주어에 맞춥니다. 한국어 화자가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행위들"이 바로 앞에 있어서 **are**를 쓰고 싶어지지만, 문법적 주어는 **disapproval**입니다.

Maugham이 이렇게 긴 수식을 넣은 이유: 화자의 복잡한 심리를 **문장 구조로** 보여줍니다. 불쾌감보다 호기심이 더 강하다는 고백이, 문장 안에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2. 관계사 (Relative Clause)

Unconsciously, perhaps, we treasure the power we have over people by their regard for our opinion of them, and we hate those **upon whom we have no such influence.**

무의식적으로, 아마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한 평가를 신경 쓴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해 갖는 힘을 소중히 여기며, 그런 영향력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we hate those [people] upon whom we have no such influence

↑선행사

↑관계대명사(전치사의 목적어)

upon whom — 전치사 **upon** + 관계대명사 **whom**입니다. 현대 영어라면 **who we have no influence on**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Maugham은 격식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어는 "~에게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영어는 전치사를 앞으로 빼내서(**upon whom**) 격식을 높입니다. 이것이 문체의 선택입니다.

those upon whom — **those**가 사람을 가리킬 때는 **who/whom**을 씁니다. **which**가 아닙니다. 여기서 **whom**은 **upon**의 목적어이므로 목적격이 맞습니다.

3. 가정법 (Subjunctive)

His life was strangely divorced from material things, and it was **as though his body at times wreaked a fearful revenge on his spirit.**

그의 삶은 물질적인 것들과 이상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마치 그의 육체가 때때로 그의 정신에 무서운 복수를 가하는 것 같았다.

it was as though his body wreaked revenge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과 반대)

as though + 가정법 과거 — "마치 ~인 것처럼"입니다. wreaked 는 과거형이지만, 이것은 시간의 과거가 아니라 **현실에서 한 발 물러난** 가정법입니다.

한국어 "마치 ~하는 것 같았다"와 정확히 대응됩니다. 다만 영어는 동사 형태로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를 표시합니다. wreaks (현재형)로 썼으면 "실제로 그런다"는 뜻이고, wreaked (가정법)로 써서 "그런 것 같다"는 뜻입니다.

Maugham의 의도: 스트릭랜드의 몸과 정신의 갈등을 **은유**로 표현합니다. 가정법이 이 은유적 거리감을 문법으로 만듭니다.

4.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But neither **here nor elsewhere** do I pretend to give his exact words; his vocabulary was small, and he had no gift for framing sentences, so that one had to piece his meaning together out of interjections, the expression of his face, gestures and hackneyed phrases.

하지만 여기서든 다른 곳에서든 나는 그의 정확한 말을 전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의 어휘는 빈약했고 문장을 구성하는 재능도 없어서, 감탄사와 표정, 몸짓, 그리고 진부한 구절들을 짜맞춰 그의 의미를 파악해야 했다.

neither here nor elsewhere do I pretend

A nor B ↑도치

neither A nor B — "A도 B도 아니다"입니다. 여기서 neither here nor elsewhere 는 "여기서도 다른 곳에서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neither 로 시작하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do I pretend (조동사 + 주어 + 동사). 평서문이라면 I do not pretend 이지만, neither 가 문두에 오면 의문문 어순이 됩니다.

한국어는 "여기서든 다른 곳에서든"으로 자연스럽게 번역되지만, 영어의 neither... nor... 구조는 **강한 부정**을 만듭니다. 단순히 "안 한다"가 아니라 "어디서도 절대 안 한다"는 강조입니다.

이 문장에서 화자는 자신의 서술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선언합니다.

5. 수동태 (Passive Voice)

Her tranquillity was like the sullen calm that broods over an island which **has been swept** by a hurricane.

그녀의 평온함은 허리케인에 휩쓸린 섬 위에 드리워진 음울한 고요와 같았다.

which has been swept by a hurricane

↑현재완료 수동태

has been swept — 현재완료 수동태입니다. "허리케인에 의해 휩쓸렸다"가 아니라 "허리케인에 의해 휩쓸린 상태다"입니다.

단순 과거 수동태 **was swept** 와 비교해보세요:

- **was swept** — 그때 휩쓸렸다 (과거 사건)
- **has been swept** — 휩쓸린 결과가 지금도 남아있다

한국어 번역 "허리케인에 휩쓸린 섬"은 이 뉘앙스를 잘 살렸습니다. "휩쓸렸던 섬"이라고 하면 과거 일이 되지만, "휩쓸린 섬"은 그 흔적이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느낌입니다.

Maugham이 현재완료를 쓴 이유: 아타의 고요함이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상처의 흔적 위에 내려앉은 고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42 장

1. 시제 (Complex Tense)

It was the result of the six years during which he **had been painting**.

그것은 그가 그림을 그렸던 6년간의 결과물이었다.

과거완료진행형 **had been painting** 은 **6년간의 지속적 행위**를 표현합니다.

—[had been painting for 6 years]—▶ was —▶ (지금)

과거완료진행

과거

한국어 "그려온"은 이 뉘앙스를 잘 담았습니다. "그렸다"와 "그려온"의 차이 — 후자는 **축적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어는 시제로 이를 강제합니다. **Painted** (단순과거)였다면 "6년간 그렸다"는 사실만 전달하지만, **had been painting** 은 "계속 그려오던 과정"이 그 결과물에 **스며들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Maugham이 스트릭랜드의 작품을 단순한 완성이 아니라 **시간의 침전물**로 보고 있음을 시제가 드러냅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Most of them have found their way into museums, and the rest are the treasured possessions of wealthy amateurs.

그 그림들 대부분은 박물관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부유한 수집가들의 소중한 소장품이 되었다.

Most of them 이 주어일 때 동사는 **복수형 have found** 를 씁니다.

Most of them (복수 개념) → have found

Most of it (단수 개념) → has found

한국어에서는 "대부분이 들어갔다"로 단수/복수 구분이 없지만, 영어는 **지시 대상의 수**에 따라 동사가 바뀝니다.

여기서 **them** 은 앞 문맥의 "그림들"을 가리킵니다. Maugham이 스트릭랜드의 작품들을 **개별적 존재**로 보고 있음을 문법이 보여줍니다. **Most of his work has found** 였다면 작품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 것이겠죠.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n social intercourse he gives you the surface that he wishes the world to accept, and you can only gain a true knowledge of him by inferences from little actions, of which he **is unconscious, and from fleeting expressions, which cross his face unknown to him**.

사교적 교제에서 그는 세상이 받아들여기를 바라는 표면만을 보여주며, 당신은 오직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행동들과 그도 모르게 얼굴을 스쳐가는 순간적인 표정들로부터 추론해야만 그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문장은 **병렬구조**로 두 가지 추론 근거를 나열합니다:

from little actions, of which he is unconscious

and

from fleeting expressions, which cross his face unknown to him

두 관계절 모두 **무의식성**을 강조합니다: **unconscious** / **unknown to him**. 한국어에서는 "의식하지 못하는"과 "모르게"로 표현했지만, 영어는 구조적 대칭으로 이 주제를 부각시킵니다.

Maugham의 요점: 진실은 **의도된 표면** 아래 숨어 있다. 병렬구조가 이 숨겨진 진실의 **두 가지 통로**를 균등하게 제시합니다.

4. 가정법 (Subjunctive)

It was **as though he found in the chaos of the universe a new pattern**, and were attempting clumsily, with anguish of soul, to set it down.

마치 그가 우주의 혼돈 속에서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고, 영혼의 고통과 함께 서투르게 그것을 기록하려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as though 다음에 **found** (단순과거)와 **were attempting** (과거진행)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as though he found (마치 ~인 것처럼)

and were attempting (그리고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 "~것 같았다"는 이 거리감을 잘 표현합니다. 영어는 시제를 한 단계 과거로 밀어서 **현실에서의 거리**를 만듭니다.

were attempting의 **were**도 주목하세요 — 3인칭 단수 **he** 인데 **were**를 씁니다. 가정법에서는 **be** 동사가 모든 인칭에서 **were**가 됩니다. 이 "비문법적" 형태가 **비현실성**을 강조합니다.

5. 관계사 (Relative Clause)

I felt nothing of the peculiar thrill **which it is the property of art to give**.

예술이 주는 특별한 전율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 관계절은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the thrill which [it is the property of art to give]

↑

가주어 it = to give the thrill

원래 문장: **It is the property of art to give the thrill**

관계절로 변환: **the thrill which it is the property of art to give**

한국어에서는 "예술이 주는 전율"로 간단하지만, 영어는 **it** 을 가주어로 써서 **예술의 본질적 속성**임을 강조합니다. "예술이 전율을 주는 것은 예술의 속성이다" — 이 철학적 무게를 관계절 안에 압축한 것입니다.

제 43 장

1. 관계사 (Relative Clause)

An effective story might also have been made by bringing him into contact with some old painter **whom the pressure of want or the desire for commercial success had made false to the genius of his youth**, and who, seeing in Strickland the possibilities which himself had wasted, influenced him to forsake all and follow the divine tyranny of art.

궁핍의 압박이나 상업적 성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젊은 시절의 천재성을 배반한 늙은 화가와 그를 접촉시켜, 그 화가가 스트릭랜드에게서 자신이 낭비한 가능성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술의 신성한 폭정을 따르도록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관계대명사 **whom** 이 복잡한 구조 속에 묻혀 있습니다.

some old painter whom [the pressure of want or the desire for commercial success] had made false

한국어에서는 "궁핍의 압박이나 상업적 성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천재성을 배반한 늙은 화가"로 관계절이 앞에 옵니다. 영어는 반대 — **painter** 뒤에 **whom** 이 따라오면서 긴 설명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whom** 은 **had made** 의 목적어입니다. "압박과 욕망이 그 화가를 거짓되게 만들었다" — **make + 목적어 + 형용사** 구조입니다. **false to his genius** 는 "자신의 천재성에 대해 거짓된"이라는 뜻.

Maugham이 이렇게 긴 관계절을 쓴 이유: 그 화가의 **타락한 과거**를 상세히 그려서, Strickland와의 대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The **years during which he was struggling to acquire proficiency in a difficult art were** monotonous, and I do not know that there was anything significant in the shifts to which he was put to earn enough money to keep him.

어려운 예술에서 숙련도를 쌓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 세월들은 단조로웠고, 생계를 유지할 만큼 돈을 벌기 위해 그가 해야 했던 온갖 일들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복잡한 주어와 동사의 일치 문제입니다.

The years [during which he was struggling to acquire proficiency in a difficult art] were monotonous

주어는 **The years** 이고, 동사는 **were** 입니다. 그 사이에 긴 관계절 **during which...** 가 끼어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어려운 예술에서 숙련도를 쌓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 세월들은"으로, 관계절이 주어 앞에 붙습니다. 영어는 주어 뒤에 관계절이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멀어집니다**.

이런 구조에서 실수하기 쉬운 것: **art** 나 **proficiency** 같은 단수 명사에 끌려서 동사를 **was** 로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어는 **years** (복수)이므로 **were** 가 맞습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 **think I should have emphasised his patience with the unsuitable mate, and the compassion which made him**

unwilling to throw off the yoke that oppressed him.

나는 부적절한 배우자에 대한 그의 인내심과, 자신을 억압하는 멍에를 벗어던지기를 꺼리게 만든 연민을 강조했을 것이다.

병렬 구조에서 **should have + pp** 가 반복됩니다.

I think I should have emphasised his patience...

and [should have emphasised] the compassion...

두 번째 **should have emphasised** 는 생략되었지만, 문법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인내심과... 연민을 강조했을 것이다"로 하나의 동사로 처리합니다.

영어의 병렬 구조는 **리듬**을 만듭니다. **his patience with...** 와 **the compassion which...** — 두 명사구가 대칭을 이룹니다. 하나는 전치사구(**with**)로, 다른 하나는 관계절(**which**)로 수식됩니다.

Maugham이 이런 병렬을 쓴 이유: Strickland의 **두 가지 미덕**을 균등하게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민 — 둘 다 그의 숨겨진 면입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I think I should have shown a strong vocation in boyhood, **crushed by the will of his father or sacrificed to the necessity of earning a living**; I should have pictured him impatient of the restraints of life; and in the struggle between his passion for art and the duties of his station I could have aroused sympathy for him.

나는 그에게 소년 시절부터 강한 소명 의식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짓눌리거나 생계를 꾸려야 하는 필요에 희생되었다고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가 삶의 속박에 조바심을 내는 모습을 그렸을 것이고, 예술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지위에 따른 의무 사이의 갈등에서 그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과거분사 **crushed** 와 **sacrificed** 가 분사구문을 만듭니다.

a strong vocation in boyhood, [crushed by the will of his father] or [sacrificed to the necessity of earning a living]

이 분사들은 **vocation** 을 수식합니다. "짓눌린 소명 의식" 또는 "희생된 소명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아버지의 뜻에 짓눌리거나 생계를 꾸려야 하는 필요에 희생되었다"로 완전한 문장으로 번역됩니다. 영어의 분사구문은 더 **압축적**입니다.

crushed by vs **sacrificed to** — 전치사가 다릅니다. **crush** 는 외부의 힘이 **누르는** 것이고, **sacrifice** 는 무언가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미묘하지만 다른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Maugham의 의도: 소명 의식 자체는 강했지만, **외부 요인**들이 그것을 꺾었다는 비극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 수동태 (Passive Voice)

An effective story **might also have been made** by bringing him into contact with some old painter whom the pressure of want or the desire for commercial success had made false to the genius of his youth, and who, seeing in Strickland the possibilities which himself had wasted, influenced him to forsake all and follow the divine tyranny of art.

궁핍의 압박이나 상업적 성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젊은 시절의 천재성을 배반한 늙은 화가와 그를 접촉시켜, 그 화가가 스트릭랜드에게서 자신이 낭비한 가능성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술의 신성한 폭정을 따르도록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조동사 + 완료 + 수동태가 겹쳐진 구조입니다.

might also have been made

= might + have been + made

= 가능성 + 완료 + 수동태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 세 겹의 가정입니다. **might** 는 가능성, **have been** 은 과거 완료, **made** 는 수동태.

한국어에서는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로 능동태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원문은 수동태입니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Maugham이 이렇게 복잡한 조동사 구조를 쓴 이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이야기에 대한 추측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멀어질수록 조동사가 복잡해집니다.

현실 ↔ might have been made (가장 먼 가정)

제 44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He made one laugh sometimes by speaking the truth, but this is a **form of humour which gains** its force only by its unusualness; it would cease to amuse if it were commonly practised.

그는 때로 진실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지만, 이런 형태의 유머는 그 드문 성격으로만 힘을 얻는 것이어서, 만약 흔히 행해진다면 재미를 잃을 것이다.

관계대명사 **which** 가 **form of humour** 를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사의 일치**입니다.

a form of humour which gains its force

단수 명사 단수 동사

한국어에서는 "이런 형태의 유머는"처럼 주어와 동사가 명확합니다. 영어는 관계절 안에서도 **수 일치**가 엄격합니다. **forms** 였다면 **gain** 이 되어야 합니다.

Maugham이 **form**(단수)을 선택한 이유: 진실 말하기라는 **특정한 한 가지** 유머 형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forms** 였다면 "여러 종류의 유머들"이 되어 초점이 흐려집니다.

2. 가정법 (Subjunctive)

There is so much in his character which is strange that I feel **it would complete the picture if his views were outrageous.**

그의 성격에는 기이한 면이 너무 많아서, 그의 견해까지 터무니없다면 그 인물상이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정법 과거입니다: **if his views were outrageous**

it would complete ... if his views were outrageous

가정법 과거 주절 가정법 과거 조건절

한국어 "~다면 ~할 것이다"와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시제를 과거로 밀어서** 현실성을 떨어뜨립니다. **are** 가 아니라 **were** 를 쓴 순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가 생깁니다.

Maugham의 의도: 스트릭랜드의 견해는 실제로는 **그렇게 터무니없지 않다**는 것을 시제로 암시합니다. 독자는 "아, 그럼 그의 견해가 의외로 상식적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A certain importance **attaches to the views on art of painters, and this is the natural place for me to set down what I know of Strickland's opinions of the great artists of the past.**

화가들의 예술관에는 어느 정도 중요성이 따르기 마련이고, 따라서 이곳이 과거의 위대한 예술가들에 대한 스트릭랜드의 견해를 내가 아는 대로 기록해둘 자연스러운 자리이다.

두 절이 **and** 로 연결되면서 **평행 구조**를 만듭니다:

A certain importance attaches to the views...

and

this is the natural place for me to set down...

한국어에서는 "~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이다"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표현합니다. 영어는 **and** 만으로 연결하지만, 두 절의 **구조적 균형**이 논리적 연결을 만듭니다.

첫 번째 절: 일반론 (화가들의 견해는 중요하다)

두 번째 절: 구체적 적용 (그래서 스트릭랜드 견해를 기록한다)

and 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따라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I made somewhat copious notes at the time, **intending to write something about him**, but I have lost them, and have now only the recollection of an emotion.

당시 나는 그에 대해 뭔가 글을 쓸 생각으로 꽤 자세한 메모를 했지만, 그것들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단지 어떤 감정의 기억만이 남아 있다.

현재분사 **intending** 이 **목적**을 나타냅니다:

I made notes, intending to write something

주절 목적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한국어에서는 "~할 생각으로"라고 번역됩니다. 영어 분사구문은 **동시성**과 **목적성**을 모두 표현합니다. **in order to write** 보다 간결하면서도, 메모를 작성하는 **그 순간의 의도**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향한 의도였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는 아이러니도 담겨 있습니다. "intending했지만 lost them"의 대조가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5. 준동사 (Non-finite Verb)

He made one laugh sometimes by speaking the truth, but this is a form of humour which gains its force only by its unusualness; it would cease **to amuse if it were commonly practised**.

그는 때로 진실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지만, 이런 형태의 유머는 그 드문 성격으로만 힘을 얻는 것이어서, 만약 흔히 행해진다면 재미를 잃을 것이다.

cease to amuse 에서 부정사가 **중단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it would cease to amuse

동사 cease + to부정사 (행위의 중단)

한국어에서는 "재미를 잃을 것이다"로 번역되지만, 영어 **cease to**는 **진행 중이던 것의 중단**을 강조합니다. **stop amusing**과 비슷하지만, **cease**가 더 격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종료**의 뉘앙스를 줍니다.

Maugham의 선택: **lose its amusement**가 아니라 **cease to amuse**를 쓴 것은, 유머가 **능동적으로 작동하다가 멈추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유머는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제 45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t would seem that my **visit to this remote island should immediately revive** my interest in Strickland, but the work I was engaged in occupied my attention to the exclusion of something that was irrelevant, and it was not till I had been there some days that I even remembered his connection with it.

이 외딴 섬을 방문한 것이 곧바로 스트릭랜드에 대한 내 관심을 되살려야 할 것 같았지만, 내가 몰두하고 있던 일이 관련 없는 것들을 배제하고 내 주의를 온통 사로잡고 있었기에, 며칠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와 이 섬의 연관성을 떠올렸다.

It would seem that [my visit to this remote island] should immediately revive my interest

↑

주어 (명사구)

한국어에서는 "이 외딴 섬을 방문한 것이"처럼 관형사절+명사로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영어는 다르다 — **my visit to this remote island** 라는 **명사구 전체**가 주어가 되어 **should revive** 와 호응합니다.

It would seem that X should Y 구조에서 X는 복잡한 명사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Maugham은 "방문"이라는 추상적 행위를 주어로 세워서, 그것이 "관심을 되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표현합니다. 한국어의 "~해야 할 것 같다"보다 영어가 더 논리적 구조를 드러냅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t **is thither that after many wanderings Charles Strickland came, and it is there that he painted the pictures on which his fame most securely rests.**

오랜 방랑 끝에 찰스 스트릭랜드가 도착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 그의 명성을 가장 확고히 떠받치는 그림들을 그린 곳도 바로 거기였다.

It is thither that ... Charles Strickland came

It is there that ... he painted the pictures

이것은 **분열문(cleft sentence)**의 완벽한 병렬구조입니다. **It is X that Y** 를 두 번 반복해서 리듬을 만듭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바로 그곳이었고... 바로 거기였다"로 "바로"를 반복합니다. 영어는 구조 자체를 반복합니다 — **It is** + 장소 + **that** + 동사. 이 반복이 **운명적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thither(그리로)와 **there**(거기서)의 미묘한 차이도 주목할 점입니다. 하나는 **도착**을, 다른 하나는 **창작 장소**를 가리킵니다. 병렬구조가 이 두 의미를 균형 있게 배치합니다.

3. 가정법 (Subjunctive)

It would not surprise you if, as you came near seeking for an opening in the reef, it vanished suddenly from your view, and nothing met your gaze but the blue loneliness of the Pacific.

암초 사이의 틈을 찾아 가까이 다가갈 때 섬이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눈앞에는 태평양의 푸른 적막만이 펼쳐진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It would not surprise you if ... it vanished suddenly

↑

가정법 과거

would not surprise 와 vanished 의 조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한국어에서는 "~한다 해도"로 표현하지만, 영어는 시제로 **현실성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vanishes (직설법)였다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 vanished (가정법)이므로 "상상 속의 시나리오"입니다.

Maugham이 여기서 그리는 것은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 섬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모습. 가정법이 이 **비현실적 아름다움**을 문법으로 뒷받침합니다.

4. 관계사 (Relative Clause)

Tahiti is a lofty green island, with deep folds of a darker green, **in which you divine silent valleys**; there is mystery in their sombre depths, down which murmur and splash cool streams, and you feel that in those umbrageous places life from immemorial times has been led according to immemorial ways.

타히티는 높이 솟은 푸른 섬으로, 더 짙은 녹색의 깊은 주름들이 있어 그 속에 고요한 계곡들이 숨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어둠침침한 깊은 곳에는 신비로움이 깃들어 있고, 그곳으로는 시원한 물줄기가 중얼거리며 철벽거리고 흘러내리며, 그 그늘진 곳에서는 태고적부터 태고의 방식대로 삶이 이어져 왔음을 느끼게 된다.

deep folds of a darker green, in which you divine silent valleys

↑

관계대명사 which (전치사 + which)

in which 는 in the deep folds 를 관계절로 연결합니다. 한국어에서는 "그 속에"로 번역되지만, 영어의 in which 구조는 더 정교합니다.

you divine silent valleys 에서 divine 은 "짐작하다, 직감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보다"가 아니라 **감각적 추론**을 의미합니다. 관계절이 이 미묘한 인식 과정을 담습니다.

folds → in which → you divine valleys

주름들 그 속에서 계곡들을 직감한다

영어는 이런 **공간적 관계**를 관계대명사로 정밀하게 연결합니다.

5. 수동태 (Passive Voice)

Tahiti is a lofty green island, with deep folds of a darker green, in which you divine silent valleys; there is mystery in their sombre depths, down which murmur and splash cool streams, and you feel that in those umbrageous places life from immemorial times **has been led** according to immemorial ways.

타히티는 높이 솟은 푸른 섬으로, 더 짙은 녹색의 깊은 주름들이 있어 그 속에 고요한 계곡들이 숨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어둠침침한 깊은 곳에는 신비로움이 깃들어 있고, 그곳으로는 시원한 물줄기가 중얼거리며 철벽거리고 흘러내리며, 그 그늘진 곳에서는 태고적부터 태고의 방식대로 삶이 이어져 왔음을 느끼게 된다.

life from immemorial times has been led according to immemorial ways

↑

현재완료 수동태

has been led 는 "이끌어져 왔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삶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어에서는 "삶이 이어져 왔다"로 능동적으로 번역했지만, 영어 원문은 수동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 타히티의 삶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태고의 방식에 **이끌려온** 것입니다.

from immemorial times 와 according to immemorial ways 의 대칭도 아름답습니다. 시간과 방식, 둘 다 "태고적"입니다.

제 46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 do not consider that the cigars and whisky he consumed at my expense (he always refused cocktails, since he was practically a teetotaler), and the few **dollars, borrowed with a civil air of conferring a favour upon me, that passed from my pocket to his, were** in any way equivalent to the entertainment he afforded me.

내 돈으로 그가 소비한 시가와 위스키(그는 사실상 금주가였기 때문에 칵테일은 항상 거절했다), 그리고 내게 호의를 베푸는 듯한 정중한 태도로 빌려간 몇 달러가 내 주머니에서 그의 주머니로 넘어간 것이 그가 내게 선사한 즐거움과 결코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장의 주어는 **cigars and whisky** 와 **few dollars** 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긴 수식어구들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
I do not consider that [the cigars and whisky (he consumed)]  
  
and [the few dollars, borrowed..., that passed...]  
  
were equivalent...
```

한국어라면 "시가와 위스키, 그리고 몇 달러가"로 주어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영어는 조사가 없어서 **were** 가 나올 때까지 주어가 복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Maugham이 이렇게 긴 수식을 끼워넣은 이유는 — 화자의 **계산하는 마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돈과 물건을 하나하나 세면서, 그것이 받은 즐거움과 "동등하지 않다"고 결론내리는 과정을 문장 구조로 재현했습니다.

2. 관계사 (Relative Clause)

There are men **whom a merciful Providence has undoubtedly ordained to a single life, but who from wilfulness or through circumstances they could not cope with have flown in the face of its decrees.**

자비로운 섭리가 분명히 독신으로 살도록 정해놓은 남자들이 있는데, 고집 때문이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든 그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whom** 과 **who** 가 같은 선행사 **men** 을 받으면서 대조를 만듭니다:

```
There are men [whom Providence has ordained to single life]  
  
but [who have flown in the face of its decrees]
```

whom 은 목적격 — "섭리가 (그들을) 독신으로 정했다"

who 는 주격 — "(그들이) 그 뜻을 거슬렀다"

한국어에서는 "정해놓은 남자들이 있는데, 거스르는 경우가 있다"로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영어는 격변화로 **운명 vs 의지**의 대조를 만듭니다. 섭리의 대상이었던 자들(**whom**)이 능동적 주체(**who**)가 되어 반항하는 구조입니다.

3. 수동태 (Passive Voice)

They are as fond of gossip in Tahiti as in an English village, and one or two enquiries I had made for pictures by Strickland **had been quickly spread.**

타히티 사람들은 영국 시골 마을 사람들만큼이나 소문을 좋아해서, 내가 스트릭랜드의 그림에 대해 한두 번 문의한 것이 금세 퍼져나갔다.

과거완료 수동태입니다. **had been spread** — "퍼뜨려져 있었다"

I had made enquiries (과거) - 내가 문의했다

had been spread (과거완료 수동) - (그전에) 퍼져있었다

시간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문의가 먼저, 소문이 나중인데 문법적으로는 소문이 "더 과거"입니다. 이것이 영어 과거완료의 묘미 — **결과가 원인보다 문법적으로 앞서는** 구조입니다.

한국어 "금세 퍼져나갔다"는 단순한 과거지만, 영어는 **had been**으로 "내가 알기 전에 이미 완료된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타히티의 소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시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4. 가정법 (Subjunctive)

I should be sorry if my conscience, insisting on a rigid attention to the matter in hand, forced me to dismiss him in a couple of lines.

양심이 당면한 문제에 엄격하게 집중하라고 재촉하여 그를 두어 줄로 대충 넘어가게 만든다면 유감스러울 것이다.

이것은 **가정법 현재**입니다. **should be sorry if... forced**

I should be sorry - ~라면 유감스러울 것이다

if my conscience forced - 만약 양심이 강요한다면

한국어 "~한다면 유감스러울 것이다"와 정확히 대응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이므로 과거완료(had forced)를 쓰지 않습니다.

Maugham이 **should**를 쓴 이유는 — 이것이 **정중한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강요한다면 유감이지만..." 실제로는 양심을 무시하고 그 인물에 대해 길게 쓰겠다는 뜻입니다. **should**의 공손함이 반어적 효과를 만듭니다.

5.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t was a matter upon which he was reticent, and with persons of his kind a direct question is never very discreet.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은 결코 신중하지 못한 일이었다.

두 개의 절이 **and**로 연결되면서 **대조 구조**를 만듭니다:

It was a matter [upon which he was reticent]

and

[with persons of his kind a direct question is never discreet]

첫 번째: "그가 말을 아꼈던 문제"

두 번째: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은 부적절하다"

한국어에서는 "말을 아꼈고, 직접 질문은 신중하지 못했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영어는 구조를 바꿔서 **개인적 특성 → 일반적 원칙**으로 확장합니다. "그는 조심스러웠다 + 그런 부류에게는 원래 조심해야 한다" — 개별 사례에서 보편 규칙으로 넘어가는 논리적 흐름입니다.

제 47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Captain Nichols noticed Strickland for his size and his singular appearance among the crowd that waited for the doors to open; they waited listlessly, some walking to and fro, some leaning against the wall, and others seated on the curb with their feet in the gutter; and when they filed into the office he heard the **monk who read his papers address** him in English.

니콜스 선장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군중 속에서 스트릭랜드의 체구와 독특한 외모 때문에 그를 눈여겨보았다.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이리저리 걸어 다니고, 어떤 이는 벽에 기대어 있고, 또 어떤 이는 발을 시궁창에 담근 채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줄지어 사무실로 들어갈 때, 그의 서류를 읽던 수사가 그에게 영어로 말을 거는 것을 들었다.

he heard [the monk who read his papers] address him

↑

↑

목적어(복합주어)

동사원형

이 구조에서 **address** 는 동사원형입니다. **heard + 목적어 + 동사원형** 패턴 — "누가 ~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서 복잡한 점은 목적어가 **the monk who read his papers** 라는 긴 명사구라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수사가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을 들었다"로 자연스럽게 번역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address** 를 동사원형으로 써야 합니다 — **addressing** 이나 **addressed** 가 아니라. 이것이 지각동사(**hear**, **see** 등) 뒤의 문법적 제약입니다.

Maugham이 관계절로 주어를 복잡하게 만든 이유: 독자가 잠깐 헷갈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monk who read** 까지 읽으면 완결된 것 같지만, **address** 가 나오면서 전체 구조가 드러납니다.

2. 관계사 (Relative Clause)

Strickland had no papers, but that was not a matter to disconcert Tough Bill when he saw a profit (he took the first month's wages of the sailor **for whom he found a berth**), and he provided Strickland with those of an English stoker who had providentially died on his hands.

스트릭랜드는 신분증명서가 없었지만, 이익이 보이면(그는 일자리를 구해주는 선원의 첫 달 임금을 가져갔다) 터프 빌이 당황할 일은 아니었고, 그는 마침 손에서 죽어준 영국인 화부의 서류를 스트릭랜드에게 제공했다.

he took the first month's wages of [the sailor for whom he found a berth]

↑

↑

선행사

관계대명사

for whom 은 전치사 + 관계대명사 구조입니다. **find a berth for someone** → **someone for whom he found a berth**. 전치사 **for** 가 관계절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일자리를 구해주는 선원의"로 번역되는데, 관계절이 선행사 앞에 옵니다. 영어는 반대 — 선행사 뒤에 관계절이 따라 옵니다.

구어에서는 the sailor (who) he found a berth for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Maugham은 격식체 for whom 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말~20세기 초 문체의 특징입니다. 현대 영어라면 who he found a berth for 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Captain Nichols noticed Strickland for his size and his singular appearance among the crowd that waited for the doors to open; they waited listlessly, some walking to and fro, some **leaning against the wall, and others seated on the curb with their feet in the gutter**; and when they filed into the office he heard the monk who read his papers address him in English.

니콜스 선장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군중 속에서 스트릭랜드의 체구와 독특한 외모 때문에 그를 눈여겨보았다.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이리저리 걸어 다니고, 어떤 이는 벽에 기대어 있고, 또 어떤 이는 발을 시궁창에 담근 채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줄지어 사무실로 들어갈 때, 그의 서류를 읽던 수사가 그에게 영어로 말을 거는 것을 들었다.

some walking to and fro,

some leaning against the wall,

and others seated on the curb with their feet in the gutter

세 개의 분사구문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some + -ing, some + -ing, others + -ed. 마지막 것만 과거분사(seated)인 이유는 "앉혀진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어떤 이는 ~하고, 어떤 이는 ~하고, 또 어떤 이는 ~하고"로 번역됩니다. 영어의 병렬구조가 한국어에서도 그대로 살아납니다.

Maugham이 이 구조를 쓴 이유: 기다리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독자가 한 번에 전체 장면을 조망하게 합니다.

4. 수동태 (Passive Voice)

I do not know how he had come upon the notion of going to the South Seas, though I remember that his imagination **had long been haunted** by an island, all green and sunny, encircled by a sea more blue than is found in Northern latitudes.

그가 어떻게 남태평양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통 푸르고 햇살 가득한, 북방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더욱 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섬이 오랫동안 그의 상상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은 기억한다.

his imagination had long been haunted by an island

↑

↑

과거완료

수동태

과거완료 + 수동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had been + pp 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계속 ~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long 이 그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었다"로 번역되는데, 능동형으로 바꿉니다. "섬이 상상을 사로잡았다" vs "상상이 섬에 사로잡혔다" — 한국어는 전자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영어에서 **haunt** 는 보통 수동태로 쓰입니다. "유령이 집을 출몰한다"가 아니라 "집이 유령에 출몰당한다" — **the house is haunted**. 여기서도 상상이 섬의 이미지에 "출몰당하고" 있습니다.

5. 시제 (Complex Tense)

There was a strike at Marseilles at the time, and Strickland, having come to the end of his resources, **had apparently found** it impossible to earn the small sum he needed to keep body and soul together.

당시 마르세유에서 파업이 일어났고, 자원이 바닥난 스트릭랜드는 겨우 연명할 정도의 작은 돈도 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 같았다.

Strickland... had apparently found it impossible to earn

↑

↑

과거완료

형식목적어 it

과거완료 **had found** 는 마르세유 파업이라는 배경보다 **이전부터** 스트릭랜드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pparently** 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냅니다.

find it impossible to~ 구조에서 **it** 은 형식목적어이고, 진짜 목적어는 **to earn the small sum** 입니다. 한국어에서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로 번역됩니다.

시간 순서를 보면: 1) 스트릭랜드가 돈을 벌 수 없게 됨 (**had found**) → 2) 파업이 일어남 (**was a strike**) → 3) 현재 서술 시점. Maugham이 과거완료를 쓴 이유는 이 **시간의 층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 48 장

1. 관계사 (Relative Clause)

I looked at it again, and I said: 'Who would have thought that the overseer of my plantation on the peninsula, **to whom I lent two hundred francs**, had genius?

나는 그것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반도에 있는 내 농장의 감독관이자 내가 이백 프랑을 빌려준 사람에게 천재성이 있었다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to whom I lent 에서 whom 은 lent 의 간접목적어입니다. 원래 문장은 "I lent two hundred francs to him"이었는데, 관계절로 만들면서 him → whom 으로, 전치사 to 와 함께 앞으로 나옵니다.

I lent two hundred francs to him

↓ (관계절화)

to whom I lent two hundred francs

한국어에서는 "내가 이백 프랑을 빌려준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영어는 전치사를 끌고 다녀야 하는 언어 — whom 만 앞으로 보내고 to 를 뒤에 남겨두면 (whom I lent two hundred francs to) 격식이 떨어집니다. Maugham 은 to whom 으로 묶어서 격조를 유지합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 saw him, the sea gray under the **mistral and foam**-flecked, watching the vanishing coast of France, which he was destined never to see again; and I thought there was something gallant in his bearing and dauntless in his soul.

미스트랄 바람 아래 회색빛을 띤 바다에 거품이 일렁이는 가운데, 다시는 보지 못할 운명인 프랑스 해안이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눈에 보였다. 그리고 그의 자세에는 용감함이, 그의 영혼에는 불굴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mistral and foam-flecked 는 병렬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구조는:

the sea [gray under the mistral] and [foam-flecked]

↑

↑

형용사구

형용사

gray under the mistral (미스트랄 바람 아래 회색인)과 foam-flecked (거품이 점점이 박힌)가 둘 다 sea 를 수식합니다. 한국어로는 "미스트랄 바람 아래 회색빛을 띤 거품이 일렁이는 바다"가 됩니다.

Maugham의 묘사법: 바다의 색깔(gray)과 질감(foam-flecked)을 동시에 포착해서 독자가 그 순간의 바다를 입체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3.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Somehow I could not get into my story, and after trying once or twice I had to give it up; I started from the beginning in the usual way, and made up my mind I could only tell what I knew of Strickland's life in the **order in which I learnt** the facts.

여찌된 일인지 내 이야기에 몰입할 수가 없었고, 한두 번 시도해본 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평소대로 처음부터 시작했고, 스트릭랜드의 삶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사실들을 알게 된 순서대로만 말할 수 있다고 마음먹었다.

in which I learnt 에서 관계대명사 **which** 는 **order** 를 받습니다. 원래 문장은 "I learnt the facts **in that order**"였는데, 관계절로 만들면서:

I learnt the facts in that order

↓

the order in which I learnt the facts

한국어에서는 "사실들을 알게 된 순서대로"가 됩니다. 영어의 **in which** 가 한국어의 "~대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Maugham이 **시간의 순서**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트릭랜드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하는 대신, "알게 된 순서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서술 전략**입니다.

4. 가정법 (Subjunctive)

He looked **as if he hadn't had a meal for a week**, and I hadn't the heart to refuse him.

그는 일주일 동안 한 끼도 못 먹은 것처럼 보였고, 나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as if he hadn't had a meal 은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현재 상황을 과거완료로 표현해서 "실제가 아닐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현실: He looks hungry (그는 배고파 보인다)

가정법: as if he hadn't had a meal (마치 못 먹은 것처럼)

한국어의 "~것처럼"도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영어는 시제를 **한 단계 더 과거로** 밀어서 "현실에서 한 발 물러난" 느낌을 문법적으로 강제합니다.

Maugham이 **hadn't had** (과거완료)를 쓴 이유: 단순히 "배고프다"가 아니라 "오랫동안 굶은 것 같다"는 **지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5. 도치 (Inversion)

He did not mention the money he owed me, but he said: '**Here is a picture** of your plantation that I've painted for you.'

그는 내게 빚진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위해 그린 농장 그림입니다.'

Here is a picture 는 **장소 도치**입니다. 원래 어순은 "A picture is here"이지만, **Here** 를 문장 앞으로 보내면서 동사 **is** 가 주어 **a picture** 앞으로 나옵니다.

A picture is here → Here is a picture

한국어에서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가 자연스러운 어순입니다. 영어의 도치는 **제시**의 효과를 냅니다 — 마치 무대에서 "짠!" 하고 뭔가를 꺼내 보이는 것처럼.

Strickland가 빛 이야기는 피하고 그림을 내미는 장면에서, 이 도치 구조가 그의 **회피적이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문법으로 표현합니다.

제 49 장

1. 가정법 (Subjunctive)

Tall and extremely stout, she would have been of imposing presence if the great good-nature of her face had not made it impossible for her to express anything but kindness.

키가 크고 극도로 뚱뚱했던 그녀는 위압적인 존재감을 풍겼을 텐데, 그녀 얼굴에 깃든 크나큰 선량함 때문에 친절함 외에는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어 보였다.

would have been -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if ... had not made - 만약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실제로는 했다)

이것이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만약 그녀 얼굴이 선량하지 않았다면, 위압적이었을 것이다" — 실제로는 얼굴이 선량해서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않았다면 ... ~았을 것이다"로 표현하지만, 영어는 시제를 과거로 한 단계 더 밀어서(had pp + would have pp) 비현실을 표현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난 시제 = 현실이 아닌 상황.

Maugham이 여기서 그리는 것: 그녀의 **물리적 조건**(키, 체구)과 **정신적 특성**(선량함) 사이의 대조. 시제가 이 아이러니를 전달합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After Strickland's death certain of his effects were sold by auction in the market-place at Papeete, and she went to it herself because there was among the truck an American **stove she wanted**.

스트릭랜드가 죽은 후 그의 유품 일부가 파페에테 시장에서 경매에 부쳐졌는데, 그녀가 원하던 미국제 난로가 잡동사니 중에 섞여 있어서 직접 경매에 참석했다.

there was [among the truck] an American stove [she wanted]

↑

관계절 (목적격)

"stove she wanted"에서 관계대명사 **that/which** 가 생략되었습니다. 한국어로는 "그녀가 원하던 난로"입니다.

영어에서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생략이 자연스럽습니다. "the book I read" = "the book that I read". 하지만 주어 역할일 때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the man who came" (O), "the man came"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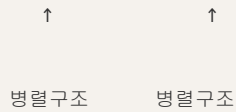
Maugham이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이유: 문장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stove that she wanted"보다 "stove she wanted"가 더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The daughter of a **native and an English sea-captain** settled in Tahiti, when I knew her she was a woman of fifty, who looked older, and of enormous proportions.

타히티에 정착한 원주민과 영국인 선장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내가 그녀를 알았을 때 그녀는 쉰 살의 여인이었는데 나이보다 늙어 보였고 거대한 체구를 하고 있었다.

The daughter of [a native] and [an English sea-captain]



"native and an English sea-captain"에서 **a**와 **an**이 각각 붙습니다. 한국어로는 "원주민과 영국인 선장"으로 단순하지만, 영어는 관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영어의 병렬구조에서는 각 요소가 **문법적으로 동등**해야 합니다. "a native"와 "an English sea-captain" — 둘 다 단수 명사구입니다. 만약 "native and English sea-captain"라고 썼다면, **native**가 형용사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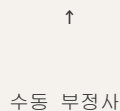
Maugham이 관사를 반복한 이유: 두 사람이 **별개의 개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이 두 문화의 **만남**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When the Chinese laundryman refused to wash for him without payment she had sent his things **to be washed with hers**.

중국인 세탁업자가 돈을 받지 않고는 그의 빨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그녀는 그의 옷가지들을 자신의 것과 함께 세탁소에 보냈다.

she had sent his things [to be washed] with hers



"to be washed"는 수동태 부정사입니다. 한국어로는 "세탁되도록"입니다.

영어에서 **send + 목적어 + to be pp**는 "~가 ...되도록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I sent the car to be repaired" = "차를 수리받으러 보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방향**입니다 — 그녀가 보내는 것이고, 세탁은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한국어에서는 "빨래를 맡겼다" 정도로 간단하지만, 영어는 이 **과정**을 문법으로 보여줍니다. **to be washed**가 목적(purpose)과 결과(result)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5. 준동사 (Non-finite Verb)

When the Chinese laundryman refused **to wash for him without payment** she had sent his things to be washed with hers.

중국인 세탁업자가 돈을 받지 않고는 그의 빨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그녀는 그의 옷가지들을 자신의 것과 함께 세탁소에 보냈다.

refused [to wash for him] without payment



"to wash"는 **refus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부정사입니다. 한국어로는 "빨래해주기를 거부했다"입니다.

영어에서 **refuse + to do**는 고정 패턴입니다. "I refuse to go" = "가기를 거부한다". 여기서 부정사는 **거부당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for him"은 "그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wash for someone" = "누군가를 위해 빨래해주다". 만약 "wash him"이라고 썼다면 "그를 씻겨주다"가 됩니다.

Maugham이 이 구조를 쓴 이유: 세탁업자의 **조건부 거부**를 명확히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without payment"가 조건이고, "to wash for him"이 거부된 행위입니다.

제 50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They are strangers in their birthplace, and the leafy **lanes they have known from childhood or the populous streets in which they have played, remain** but a place of passage.

그들은 태어난 곳에서조차 이방인이며, 어린 시절부터 알아온 나뭇잎 우거진 골목길이나 뛰어놀던 번화한 거리들도 그저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다.

복잡한 주어와 동사와 떨어져 있을 때의 일치 문제입니다.

They are strangers...

and [the leafy lanes... or the populous streets...] remain...

주어는 lanes와 streets 두 개가 or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에 관계절이 붙어서 주어 길어졌습니다: lanes they have known + streets in which they have played.

한국어에서는 "골목길이나 거리들도"라고 하면 복수 의미가 명확합니다. 영어는 다릅니다 — or로 연결되어도 둘 다를 가리키므로 복수 동사 remain을 씁니다. 단수였다면 remains가 되어야 하죠.

Maugham이 이렇게 긴 주어를 쓴 이유: 고향에 대한 구체적 기억들을 나열하면서, 그것들이 결국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라는 허무함을 대조시키려는 것입니다.

2. 가정법 (Subjunctive)

Here is the home he sought, and he will settle amid scenes that he has never seen before, among men he has never known, **as though they were familiar to him from his birth.**

여기가 바로 그가 찾던 고향이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 속에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익숙했던 것처럼 정착하게 될 것이다.

as though they were familiar — 가정법 과거입니다.

실제: they were NOT familiar (낯선 사람들)

표현: as though they were familiar (마치 익숙한 것처럼)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영어는 시제를 한 단계 과거로 맞춥니다. "지금 낯설다" → "마치 익숙했던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마치 ~인 것처럼"과 "마치 ~였던 것처럼"의 차이가 미묘합니다. 영어의 as though + 과거는 현실과의 거리감을 문법으로 강제합니다.

Maugham의 포인트: 진정한 고향을 찾은 사람은 낯선 곳에서도 익숙함을 느낀다. 이 역설을 가정법이 표현합니다 — 객관적으로는 낯설지만, 주관적으로는 익숙하다.

3. 도치 (Inversion)

Here is the home he sought, and he will settle amid scenes that he has never seen before, among men he has never known, as though they were familiar to him from his birth.

여기가 바로 그가 찾던 고향이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 속에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익숙했던 것처럼 정착하게 될 것이다.

Here is — 장소 부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일반 어순: The home he sought is here.

도치 어순: Here is the home he sought.

한국어에서는 "여기가 바로"라고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영어에서 **Here is**로 시작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 — **발견의 순간**을 강조합니다.

도치는 문학에서 **극적 효과**를 위해 씁니다. "집이 여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그 집이다**" — 화자의 시선이 장소에서 시작해서 대상으로 이동합니다.

Maugham이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50장은 "진정한 고향 찾기"에 대한 철학적 성찰입니다. **Here is**로 시작해서 **도달의 순간, 발견의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제시합니다.

4. 수동태 (Passive Voice)

I ran across him in the street and congratulated him on the knighthood with which his eminent services during the war **had been rewarded**.

길에서 우연히 그를 만나 전쟁 중 뛰어난 공로로 받은 기사 작위를 축하해 주었다.

had been rewarded — 과거완료 수동태입니다.

시간순: 전쟁 중 공로 → 기사 작위 수여 → 내가 그를 만남

문법: eminent services → had been rewarded → congratulated

"축하해 주었다"는 단순과거(**congratulated**)이고, "수여받았다"는 그보다 이전이므로 과거완료(**had been rewarded**). 게다가 수동태 — 그가 상을 **받은 것이지 준 것**이 아니니까요.

한국어에서는 "받은 기사 작위"라고 하면 시제가 애매합니다. 영어는 **had been rewarded**로 **시간의 층위**를 명확히 합니다. 과거완료 + 수동태 = "그 이전에 (남에 의해) 이미 완료된 일".

Maugham의 문체적 선택: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톤을 만듭니다. 기사 작위라는 **권위적 사건**에 어울리는 문법 구조입니다.

5.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 should **think he earned ten thousand a year, and his knighthood was but the first of the honours which must inevitably fall to his lot.**

그의 연봉은 만 파운드 정도 될 것이고, 기사 작위는 그에게 필연적으로 돌아올 영예들 중 첫 번째에 불과했다.
두 개의 독립절이 **and** 로 연결되면서 **대조 구조**를 만듭니다.

I should think [he earned ten thousand a year]

and

[his knighthood was but the first of the honours...]

첫 번째 절: 현재의 성공 (연봉)

두 번째 절: 미래의 전망 (더 많은 영예)

한국어에서는 "~할 것이고, ~에 불과했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영어에서 이런 병렬 구조는 **균형감**을 만듭니다 — 두 절의 길이와 구조가 비슷해서 리듬이 생깁니다.

but 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기사 작위는 **단지** 첫 번째일 뿐". 겸손한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더 큰 영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Maugham이 이 인물의 **성공 가도**를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제 51 장

1. 시제 (Complex Tense)

She knew what I was talking about, the hussy, and I saw her out of the corner of my eyes listening with all her ears, while she pretended to iron a blouse that she **had been washing** for me.

그 뻔뻔한 계집애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나를 위해 빨아놓은 블라우스를 다리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모습이 눈 끝에 보였다.

had been washing ← 과거완료진행 (그 시점 이전부터 계속)

pretended ← 단순과거 (그 순간의 행동)

과거완료진행(had been + ing)은 "과거의 어떤 시점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던 일"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블라우스를 빨기 시작한 것이 대화 시점보다 이전이고, 그 빨래가 완료되어 이제 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어 "빨아놓은"이 이미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듯, had been washing도 "빨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 과정의 지속성까지 문법에 담습니다. 단순히 had washed 라면 "빨았다"는 사실만 전달하지만, had been washing은 "한동안 빨고 있었다"는 과정까지 보여줍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Tiaré, when I told her this story, praised my prudence, and for a few minutes we worked in silence, for we were shelling peas.

내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티아레는 내 신중함을 칭찬했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일했다. 완두콩 껍질을 까고 있었기 때문이다.

Tiaré, when I told her this story, praised my prudence

↑	↑	↑
주어	삽입된 부사절	동사

주어 Tiaré와 동사 praised 사이에 when I told her this story가 끼여들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삽입 구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내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티아레는 칭찬했다"처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주어 를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부가 정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티아레가 문장의 초점이 되고, when 절은 배경 정보가 됩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They spoke in the native language, of which I had **learnt but half a dozen words**, and it sounded as though the world would shortly come to an end; but presently peace was restored and Tiaré gave the cook a cigarette.

그들은 현지 언어로 말했는데, 나는 겨우 여섯 단어 정도밖에 배우지 못했던 터라 마치 곧 세상이 끝날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곧 평화가 회복되었고 티아레는 요리사에게 담배 한 개비를 주었다.

of which I had learnt but half a dozen words

↑ ↑
주어 "겨우/단지" (강조)

여기서 **but** 은 "그러나"가 아니라 "겨우/단지"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only** 와 같은 의미로, **제한**을 강조합니다.

한국어 번역 "겨우 여섯 단어 정도밖에"가 이 뉘앙스를 잘 살렸습니다. **but** 이 없다면 단순히 "여섯 단어를 배웠다"가 되지만, **but** 이 있으면 "고작 여섯 단어만"이라는 **부족함**이 강조됩니다. Maugham이 화자의 언어적 무력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입니다.

4. 준동사 (Non-finite Verb)

Strickland used **to come here now and then to have a square meal or to play chess with one of the boys.**

스트릭랜드는 가끔 이곳에 와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거나 젊은 놈들과 체스를 두곤 했어.

Strickland used to come here now and then

↓

to have a square meal ←

└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

to play chess ←

to have 와 **to play**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입니다.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come** 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식사를 하러" "체스를 두러"처럼 "-러" 어미로 목적을 표현합니다. 영어의 to부정사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or** 로 연결된 두 개의 to부정사가 병렬 구조를 이루면서, 스트릭랜드가 그곳을 찾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5. It 강조/가주어 (It-Cleft / Formal Subject)

She has a bit of property down by Taravao, just before you come to the peninsula, and with copra at the price **it is now you could live quite comfortably.**

타라바오 쪽으로 내려가다 반도에 이르기 직전에 그 아이 소유지가 좀 있는데, 지금 코프라 가격으로는 꽤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with copra at the price it is now you could live quite comfortably

↑ ↑

관계대명사 생략된 that

it is now 부분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구조는 **at the price (that) it is now** 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 이 생략되었고, **it** 은 **copra** 를 가리킵니다.

한국어로는 "지금 코프라 가격으로는"이라고 자연스럽게 번역되지만, 영어 원문은 좀 더 복잡합니다. "코프라가 지금 그런 가격에 있는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는 구어체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관계절을 간소화해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제 52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Then Ata had a baby, and the old **woman who came up to help her through her trouble stayed** on.

그러다 아타가 아이를 낳았고, 해산을 도우러 온 늙은 여자가 그대로 눌러앉았다.

복잡한 주어 구조입니다. **the old woman** 이 주어이고, **who came up to help her through her trouble** 이 관계절로 수식합니다.

the old woman [who came up to help her through her trouble] stayed on

주어

관계절 (주어 수식)

동사

한국어는 "해산을 도우러 온 늙은 여자가"처럼 수식어가 앞에 옵니다. 영어는 주어 뒤에 관계절이 따라붙어서 주어가 길어집니다. Maugham은 이 구조로 여자의 등장과 정착을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 도우러 왔던 사람이 그대로 머물렀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문법이 뒷받침합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t **was a bungalow of unpainted wood, consisting of two small rooms, and outside was a small shed that served as a kitchen.**

페인트칠을 하지 않은 목재로 지은 방갈로였는데, 작은 방 두 개로 이루어져 있었고, 밖에는 부엌으로 쓰는 작은 헛간이 있었다.

병렬 구조가 세 겹으로 쌓입니다:

It was a bungalow of unpainted wood,

consisting of two small rooms,

and outside was a small shed that served as a kitchen

첫 번째는 주절, 두 번째는 분사구문, 세 번째는 **and** 로 연결된 또 다른 주절입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모두 "~였다"로 끝나지만, 영어는 문법 구조를 다르게 해서 리듬을 만듭니다. Maugham이 집을 묘사하는 방식 — 안에서 밖으로, 구조에서 기능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을 병렬 구조가 안내합니다.

3. 도치 (Inversion)

There was a tree just behind which bore alligator pears, and all **about were the cocoa-nuts** which gave the land its revenue.

바로 뒤편에는 아보카도를 맺는 나무가 있었고, 사방에는 이 땅에 수입을 가져다주는 코코넛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장소 부사구 **all about** 이 문두에 나와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all about were the cocoa-nuts

↓

the cocoa-nuts were all about (원래 어순)

한국어에서는 "사방에는"처럼 장소를 강조할 때 조사 "~에는"을 씁니다. 영어는 어순을 바꿔서 같은 효과를 냅니다. 특히 **There was a tree just behind**와 **all about were the cocoa-nuts**가 대칭을 이룹니다 — 뒤쪽의 나무 하나, 사방의 코코넛들. 도치가 이 공간적 대비를 부각시킵니다.

4. 관계사 (Relative Clause)

There was a tree just behind which bore alligator pears, and all about were the cocoa-nuts **which gave the land its revenue**.

바로 뒤편에는 아보카도를 맺는 나무가 있었고, 사방에는 이 땅에 수입을 가져다주는 코코넛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which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the cocoa-nuts**를 받습니다:

the cocoa-nuts which gave the land its revenue

↑

↑

선행사

관계대명사 (주격)

한국어는 "이 땅에 수입을 가져다주는 코코넛 나무들"처럼 관계절이 앞에 옵니다. 영어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gave**가 단순과거라는 점 — 스트릭랜드가 살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코코넛이 **그때** 수입원이었다는 뜻입니다.

5. 수동태 (Passive Voice)

Sometimes there would be a feast in the neighbourhood, and a pig **would be killed**.

때로는 근처에서 잔치가 벌어져 돼지를 잡기도 했다.

would + be + pp 구조로 **과거의 습관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수동을 나타냅니다:

would be killed = 잡히곤 했다 (습관적 과거 + 수동)

한국어 번역에서는 "돼지를 잡기도 했다"로 능동으로 바뀌었지만, 원문은 돼지 입장에서 "잡히는" 것입니다. **would**는 과거의 반복적 상황을 나타내고, 수동태는 돼지가 행위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Maugham은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 — 때때로 벌어지는 잔치와 그에 따른 희생 — 을 이 구조로 담담하게 그립니다.

3. 도치 (Inversion)

The broad road was shaded by pepper-trees, and **on each side were the plantations**, cocoa-nut and vanilla.

넓은 길은 후추나무 그늘에 덮여 있었고, 양쪽으로는 코코넛과 바닐라 농장이 펼쳐져 있었다.

장소 부사구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됩니다:

정상 어순: The plantations were on each side

도치 어순: On each side were the plantations

한국어에서는 "양쪽으로는 농장이 있었다"가 자연스럽습니다. 주어가 뒤에 와도 어색하지 않죠. 영어는 평소 **주어 → 동사** 순서가 강하기 때문에, 도치가 특별한 효과를 냅니다.

Maugham이 **were the plantations** 로 쓴 이유: **장소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길 양쪽으로, 거기에 농장들이 펼쳐져 있다" — 시선이 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농장을 발견하는 느낌. 정상 어순이었다면 이런 공간감이 약해집니다.

4. 시제 (Complex Tense)

I **had not intended** to stay more than an hour, but he insisted that I should spend the night.

한 시간 이상 머물 생각은 없었는데, 그가 하룻밤 묵어가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과거완료 **had not intended** 는 **더 먼 과거**를 표시합니다:

—[had not intended]—▶ 도착/만남 —▶ insisted —▶ (지금)

더 먼 과거

과거

과거

한국어 "머물 생각은 없었는데"는 시제 구분이 모호합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죠. 영어의 과거완료는 **시간 순서**를 강제합니다.

Maugham의 의도: 화자가 방문 **전에** 이미 "짧게 머물겠다"고 계획했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인이 하룻밤 머물라고 고집을 부렸다 — 계획 vs 현실의 대비가 시제로 드러납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When I was building my house in the Paumotus I had slept out for weeks on a harder bed than that, with nothing to shelter me but wild shrubs; and as for vermin, my tough skin should be proof against their malice.

파우모투 제도에 집을 지을 때 나는 몇 주 동안 그보다 더 딱딱한 침상에서 잠을 잤고, 야생 관목 외에는 몸을 가릴 것도 없었으니까요. 벌레들이야 내 거친 피부로는 그들의 악의를 막아낼 수 있을 테고 말입니다.

현재분사 구문 **When I was building** 은 **배경 상황**을 제공합니다:

When I was building my house... I had slept out for weeks

↑

↑

한국어에서는 "집을 지을 때"로 간단합니다. 영어의 과거진행형은 **그 시기 전체**를 하나의 배경으로 설정합니다. 단순과거 **When I built**와는 다릅니다 — **built**는 완성된 사건, **was building**은 진행 중인 과정.

Maugham이 진행형을 쓴 이유: 집짓기가 **몇 주에 걸친 과정**이었고, 그 전체 기간 동안 거친 환경에서 잤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숙박 조건 따위는 문제없다는 맥락을 만듭니다.

제 54 장

1. 관계사 (Relative Clause)

A man **whom he had deeply wronged** told me that he felt a great pity for him."

그가 깊이 상처를 입힌 한 남자가 나에게 그를 무척 불쌍히 여겼다고 말했거든요."

관계대명사 **whom** 은 목적격입니다. **he had deeply wronged whom** → **whom he had deeply wronged** 로 앞으로 나옵니다.

A man [whom he had deeply wronged] told me

주어 [관계절: 그가 깊이 상처입힌] 동사

한국어는 "그가 깊이 상처를 입힌 남자"로 자연스럽게 앞에서 수식합니다. 영어는 관계대명사를 **앞으로 끌어내서**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whom** 의 선택입니다. **who** 가 아니라 **whom** 을 쓴 이유는 — 관계절 안에서 **he wronged him** 에서 **him** 자리(목적어)이기 때문입니다. Maugham은 격변화를 정확히 지켜서 문체의 격조를 유지합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He left it on his marriage, and settled down on a small property he had near Quimper to live for the rest of his days in peace; but the **failure of an attorney left** him suddenly penniless, and neither he nor his wife was willing to live in penury where they had enjoyed consideration.

결혼과 함께 해군을 떠나 캥페르 근처에 있는 작은 영지에 정착하여 평생을 평화롭게 살려 했지만, 변호사의 파산으로 갑자기 무일푼이 되었고, 그와 아내 모두 한때 존경받던 곳에서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복합 주어에서 동사의 일치를 봅시다:

neither he nor his wife was willing

A nor B 단수동사

neither A nor B 는 **가까운 명사**에 동사를 맞춥니다. 여기서는 **his wife** (단수)이므로 **was** 입니다.

한국어는 "그와 아내 모두"로 복수 개념이지만, 영어는 문법적으로 **neither...nor** 를 단수 취급합니다. 이것이 영어의 **형식적 일치** 원칙입니다.

또한 **failure of an attorney left him** 에서 주어는 **failure** (단수)입니다. **attorney** 가 아닙니다. 전치사구 **of an attorney** 는 주어의 수식어입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Here, on this remote island, he **seemed to have aroused none of the detestation with which he was regarded at home, but compassion rather; and his vagaries were accepted with tolerance.**

여기, 이 외딴 섬에서 그는 고국에서 받았던 그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 같았고, 오히려 동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기행들도 관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문장은 **대조의 병렬구조**입니다:

none of the detestation ... but compassion rather

A (부정) but B (긍정)

none of X, but Y rather 는 "X가 아니라 오히려 Y"입니다. rather 가 대조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뒤에 and his vagaries were accepted 가 이어집니다. 세미콜론은 관련된 두 문장을 **동등하게** 연결합니다.

한국어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했다"로 자연스럽게습니다. 영어는 but...rather 와 세미콜론으로 **논리적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시합니다. 문장 구조 자체가 논증의 틀을 만듭니다.

4. It 강조/가주어 (It-Cleft / Formal Subject)

Every day I was up at dawn, clearing, planting, working on my house, and at night when I threw myself on my bed **it was to sleep like a log till morning.**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땅을 개간하고, 식물을 심고, 집을 짓는 일을 했으며, 밤에 침대에 몸을 던지면 아침까지 통나무처럼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강조구문**입니다:

it was to sleep like a log till morning

it was [진짜 주어/목적]

원래 문장: to sleep like a log till morning was [what happened]

강조구문: it was to sleep like a log...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강조가 사라집니다. "통나무처럼 잠들었다"는 평서문이 됩니다.

하지만 Maugham은 it was 를 써서 **결과**를 강조합니다. "침대에 몸을 던지면, 그 결과는 바로 통나무처럼 잠드는 것이었다." 하루의 고된 노동 끝에 찾아오는 깊은 잠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5. 수동태 (Passive Voice)

Without that we **should have been lost.**"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Without that we should have been lost

= If we had not had that, we should have been lost

`should have been` 은 `would have been` 과 같습니다. 옛 영어에서는 `should` 를 1인칭에서 조건법으로 썼습니다.

한국어는 "그것이 없었다면 길을 잃었을 것이다"로 가정의 뉘앙스가 명확합니다. 영어는 시제를 **과거로 한 단계 더 밀어서**(`had + pp`, `should have + pp`) 비현실성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실제로는 "그것"이 있었고, 실제로는 길을 잃지 않았다. 과거의 위험한 순간을 회상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문맥입니다.

제 55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The **girl who had brought him was** by this time sitting on the verandah, and here was lying an old woman, with her back to the wall, making native cigarettes.

그를 데려온 소녀는 이미 베란다에 앉아 있었고, 거기에는 한 늙은 여자가 벽에 등을 기대고 누워서 토착 담배를 만들고 있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두 개 나옵니다: **The girl who had brought him**과 **an old woman**. 두 번째 주어 앞에 **here was lying**이라는 도치 구조가 있습니다.

The girl ... was sitting (일반 어순)

here was lying an old woman (도치)

한국어에서는 "거기에는 늙은 여자가 누워 있었다"로 자연스럽게 번역됩니다. 영어의 도치는 **장면의 시각적 전환**을 만듭니다. 먼저 소녀에게 시선을 두었다가, **here was lying**으로 카메라를 돌려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관계대명사 **who had brought him**은 소녀를 한정합니다. 과거완료 **had brought**는 "앉아 있는" 시점보다 더 이전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He felt always the furious hatred that must seize a man condemned when he compared himself with the **doctor, sane and healthy**, who had the inestimable privilege of life.

그는 항상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맹렬한 증오를 느꼈다.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하며 삶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 의사와 자신을 비교할 때마다 말이다.

여기서 **sane and healthy**는 **doctor**를 수식하는 **병렬 형용사**입니다. 쉼표로 분리되어 있어서 **비제한적 수식**이 됩니다.

the doctor, sane and healthy, who had...

↑ ↑

명사 병렬 형용사 (추가 정보)

한국어에서는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한 의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영어의 쉼표는 **대조의 강조**를 만듭니다. 나병 환자인 스트릭랜드와 "sane and healthy"한 의사 사이의 간격을 시각적으로 벌려놓는 것입니다.

who had the inestimable privilege of life는 관계절로 이어져서, 의사의 특권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3. 가정법 (Subjunctive)

When Tané left me I told him I would send some medicine that might be of service; but my hope was small that Strickland would consent to take it, and even smaller **that, if he did, it would do him good.**

타네가 떠났을 때 나는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약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스트릭랜드가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했고,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했다.

이것은 **가정법 과거**의 중첩 구조입니다. **if he did**에서 **did**는 **would consent to take it**을 대신합니다.

if he did (= if he consented to take it)

it would do him good

한국어에서는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로 번역됩니다. 영어의 **did**는 앞서 언급된 동사구 전체를 **대동사로** 받는 것입니다.

화자(의사)는 두 겹의 회의를 표현합니다: 1) 스트릭랜드가 약을 받을까? 2) 받는다 해도 효과가 있을까? **even smaller that**은 두 번째 가능성이 첫 번째보다도 더 희박하다는 **단계적 절망**을 보여줍니다.

4. 수동태 (Passive Voice)

The bush was encroaching, and it looked as though very soon the primeval forest would regain possession of that strip of land which **had been snatched** from it at the cost of so much labour.

덤불이 침범해 들어오고 있었고, 그토록 많은 노동의 대가로 빼앗았던 이 땅을 원시림이 곧 다시 차지할 것 같아 보였다.

과거완료 수동태 **had been snatched**는 **이중 시간 거리**를 만듭니다. 수동태로 "빼앗겨진" 상태이면서, 과거완료로 "지금 보는 시점보다 더 이전"을 나타냅니다.

[더 먼 과거] had been snatched → [과거] looked → [현재]

땅을 개간했던 때

지금 보고 있는 때

한국어에서는 "빼앗았던"으로 번역되어 능동으로 바뀝니다. 영어의 수동태는 **땅의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땅이 주어가 되어 "빼앗았했다"는 것입니다.

at the cost of so much labour는 그 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원시림이 다시 되찾아가는 아이러니를 강조합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When he had seen her he was taken into another room and given dinner—raw fish, fried bananas, and chicken—que sais-je, the typical dinner of the indigène—and while he was eating it he saw a young girl being driven away from the door in tears.

할머니를 진찰한 후 그는 다른 방으로 안내되어 저녁을 대접받았는데—생선회, 튀긴 바나나, 닭고기—뭐 그런 것들로, 전형적인 원주민 식사였다—그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소녀가 문 앞에서 울면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다.

이 문장은 **과거분사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as taken, given dinner, being driven away**. 모두 수동 구조입니다.

he was taken into another room

(그리고) given dinner ← and가 생략됨

he saw a girl being driven away

한국어에서는 "안내되어", "대접받았는데", "쫓겨나는"으로 번역됩니다. 영어의 수동태 연쇄는 **타네의 무력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라 상황에 이끌려가는 존재입니다.

being driven away 는 **진행형 수동태**로, 소녀가 쫓겨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포착합니다. **in tears** 는 그 장면의 감정적 무게를 더합니다.

제 56 장

1.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t was impossible to start at so late an hour, and so it was not till next day soon after dawn that he set out.

그렇게 늦은 시간에 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음 날 새벽 직후에야 길을 떠날 수 있었다.

Maugham이 and so 로 연결한 두 절의 구조를 보세요:

It was impossible to start at so late an hour,
and so it was not till next day ... that he set out.

첫 번째 절은 단순한 It was impossible to ~ 구조입니다. 두 번째 절은 it was not till ... that 강조구문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다른 구조인데,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한국어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 다음 날에야"로 자연스럽게 흐르지만, 영어는 두 절의 무게를 맞춰야 합니다. 첫 절이 가벼우면 두 번째도 가벼워야 하고, 무거우면 둘 다 무거워야 합니다. Maugham은 두 번째 절에 강조구문을 써서 첫 번째 절과 균형을 맞췄습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He arrived at Taravao, and for the last time tramped the seven kilometres that led to Ata's house.

그는 타라바오에 도착해서, 아타의 집으로 이어지는 7킬로미터 길을 마지막으로 걸어갔다.

관계대명사 that 의 동사 일치를 보세요:

the seven kilometres that led to Ata's house

↑ ↑

복수 복수동사

kilometres 가 복수이므로 led 도 복수형입니다. 단수였다면 leads 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어에는 이런 일치가 없습니다. "7킬로미터 길이 이어진다"에서 "길"이 단수든 복수든 "이어진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문법이 의미를 강제합니다. that led 라고 쓰는 순간, 화자는 "여러 킬로미터들"을 하나하나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 도치 (Inversion)

It was with a sigh of relief that at last he came upon the little unpainted house, extraordinarily bedraggled now, and unkempt; but here too was the same intolerable silence.

마침내 그 작은 페인트칠하지 않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집은 지금 몹시 초라하고 관리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여기에도 똑같이 견딜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장소 부사구 here 가 문장 앞에 나오면서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정상 어순: The same intolerable silence was here too

도치 어순: Here too was the same intolerable silence

한국어에서는 "여기에도 정적이 흘렀다"가 자연스럽습니다. 영어에서 도치는 **강조와 리듬**을 위한 선택입니다.

Maugham이 도치를 쓴 이유: **here**를 문장 맨 앞에 두어서 **장소의 대비**를 강조합니다. 앞에서 묘사한 다른 장소들과 "여기도 마찬가지로"라는 대조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도치는 문학적 강조의 도구입니다.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It was with a sigh of relief that at last he came upon the little unpainted house, **extraordinarily bedraggled now, and unkempt**; but here too was the same intolerable silence.

마침내 그 작은 페인트칠하지 않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집은 지금 몹시 초라하고 관리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여기에도 똑같이 견딜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과거분사 **bedraggled**와 **unkempt**가 **연속으로** 나열되면서 집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the little unpainted house, extraordinarily bedraggled now, and unkempt

↑

↑

과거분사 (형용사화)

과거분사 (형용사화)

한국어에서는 "초라하고 관리되지 않은"으로 번역되지만, 영어 원문의 **리듬**이 다릅니다. **bedraggled now**에서 한 번 끊고, **and unkempt**에서 마무리합니다.

분사의 연속 사용은 **시각적 인상을 쌓아가는** 효과입니다. 한 번에 "초라한 집"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관찰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5. 시제 (Complex Tense)

It was the work of a man who had delved into the hidden depths of nature and **had discovered** secrets which were beautiful and fearful too.

그것은 자연의 숨겨진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아름답고 동시에 두려운 비밀들을 발견한 사람의 작품이었다.

과거완료 **had discovered**가 단순과거 **was**보다 **더 이전**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had delved / had discovered]—▶ was —▶ (지금)

더 먼 과거

과거

"그것은 ... 발견한 사람의 작품이었다" — 한국어에서는 시제 차이가 "~한"과 "~었다"로만 나타나지만, 영어는 **두 단계의 과거**를 문법으로 구분합니다.

Maugham이 과거완료를 쓴 이유: 스트릭랜드의 **탐구와 발견**이 작품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작품은 그 발견의 **결과물**이라는 시간적 순서를 시제로 표현합니다.

제 57 장

1. 시제 (Complex Tense)

AT that moment we were interrupted by the appearance of Madame Coutras, who **had been paying** visits.

바로 그때 방문을 다녀온 쿠트라 마담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대화가 중단되었다.

과거완료진행(had been paying)은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되던 행동**을 나타냅니다.

—[had been paying visits]—▶ appeared —▶ (지금)

계속 방문하고 있었다

나타났다

한국어 "방문을 다녀온"은 완료된 행동처럼 들리지만, 원문은 "계속 방문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진행형(-ing)은 **행동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Maugham이 단순히 had paid가 아니라 had been paying 을 쓴 이유는 — 쿠트라 마담이 "한 번 다녀온" 것이 아니라 "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던" 사람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활동적인 성격**을 시제로 암시합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She had not yielded for an instant to the enervating charm of the tropics, but contrariwise was more active, more worldly, more decided than **anyone in a temperate clime would have thought** it possible to be.

그녀는 열대 지방의 나른한 매력에 한 순간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온대 기후에 사는 누구라도 가능하리라 생각했을 것보다 더 활동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더 단호했다.

복합 주어 구조에서 **anyone** 이 주어이고, **in a temperate clime** 가 수식구입니다.

anyone [in a temperate clime] would have thought it possible to be

주어 [수식구]

동사구

한국어는 "온대 기후에 사는 누구라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영어는 주어와 수식구를 **구조적으로 분리**합니다. **would have thought it possible to be** 는 가정법 과거완료 — "그랬을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Maugham의 의도: 쿠트라 마담의 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반적인 기대(**anyone would have thought**)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문법으로 표현합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Working silently, knowing that it was his last chance, I fancied that here he must have said **all that he knew of life and all that he divined**.

묵묵히 작업하며,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있던 그가 여기서 삶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직감한 모든 것을 말했으리라고 나는 상상했다.

병렬 구조 **all that he knew** + **all that he divined** 에서 두 관계절이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all that he knew of life and all that he divined

[관계절 1: 알고 있는 것]

[관계절 2: 직감한 것]

한국어도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직감한 모든 것"으로 병렬을 유지하지만, 영어는 **구조적 반복**이 더 강합니다. `all that he + 동사`의 패턴이 두 번 반복되면서 리듬을 만듭니다.

`knew`(지식)와 `divined`(직관)의 대비 — Strickland의 예술이 **이성과 직관**을 모두 담았다는 것을 병렬 구조로 강조합니다. 문법이 의미를 뒷받침합니다.

4. 가정법 (Subjunctive)

Because he painted the trees I see about me every day, the cocoa-nuts, the banyans, the flamboyants, the alligator-pears, I have seen them ever since differently, **as though there were in them a spirit and a mystery which I am ever on the point of seizing and which forever escapes me.**

그가 내가 매일 보는 나무들—코코넛, 반얀, 플람보얀트, 아보카도—을 그렸기 때문에, 그 후로 나는 그 나무들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마치 그 안에 내가 막 붙잡을 듯하면서도 영원히 빠져나가는 정신과 신비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as though there were`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상을 표현합니다.

as though there were in them a spirit and a mystery

마치 ~인 것처럼 (실제로는 나무일 뿐이지만)

한국어 "마치 ~인 것처럼"도 같은 의미이지만, 영어는 동사 형태(`were`)로 **비현실성**을 문법에 박습니다. `are`가 아니라 `were`를 쓰는 순간, "실제가 아닌 느낌"임이 확정됩니다.

화자(닥터 쿠틀라)는 나무에 정말 영혼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Strickland의 그림을 본 후로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이 이 미묘한 거리감을 표현합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He was willing to die, **for he had fulfilled his purpose.**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기에 기꺼이 죽을 수 있었다.

여기서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했기 때문에"의 의미입니다.

He was willing to die, for he had fulfilled his purpose.

결과 이유

한국어는 "~했기에"로 번역되지만, 영어의 `for`는 **후치 설명**입니다. 먼저 결과("기꺼이 죽을 수 있었다")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덧붙입니다.

because와 다른 점: for는 더 **문어적이고 성찰적**입니다. Maugham이 because가 아니라 for를 선택한 이유는 — 이것이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Strickland의 삶에 대한 **철학적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제 58 장

1. 관계사 (Relative Clause)

According to the gracious custom of the island, presents were given me by the persons **with whom I had been thrown in contact**—baskets made of the leaves of the cocoa-nut tree, mats of pandanus, fans; and Tiaré gave me three little pearls and three jars of guava-jelly made with her own plump hands.

섬의 우아한 관습에 따라, 내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코코넛 나무 잎으로 만든 바구니, 판다누스로 짠 돛자리, 부채들이었고, 티아레는 작은 진주 세 개와 자신의 통통한 손으로 직접 만든 구아바 젤리 세 병을 주었다.

whom은 전치사 **with**의 목적어입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who**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Maugham은 격식을 차린 문체를 유지합니다.

the persons [with whom I had been thrown in contact]

↳ 전치사가 관계절 전체를 수식

"thrown in contact"는 수동적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과 접촉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운명이 나를 그들과 접촉하게 던져놓았다" — 우연한 만남의 뉘앙스입니다. 한국어 "인연을 맺다"가 이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과거완료 **had been thrown**은 선물을 받는 시점보다 더 이전의 만남들을 가리킵니다. 시간의 층위: 만남들 → 선물받음 → 서술 시점.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Gone were the Morris papers and gone the severe cretonnes, gone were the Arundel prints that had adorned the walls of her drawing-room in Ashley Gardens; the room blazed with fantastic colour, and I wondered if she knew that those varied **hues, which fashion had imposed upon her, were** due to the dreams of a poor painter in a South Sea island.

모리스 벽지도 사라지고 엄숙한 크레톤 천도 사라졌으며, 애슐리 가든스의 응접실 벽을 장식했던 아런델 판화들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그 방은 환상적인 색채로 눈부시게 빛났는데, 유행이 그녀에게 강요한 그 다채로운 색조들이 남태평양 어느 섬의 가난한 화가의 꿈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녀가 알고 있는지 나는 궁금했다.

Gone were는 도치 구문입니다. 정상 어순은 "The Morris papers were gone"이지만, **gone**을 앞으로 빼서 강조합니다.

Gone were [the Morris papers]

Gone [the severe cretonnes]

Gone were [the Arundel prints that had adorned...]

세 번의 "Gone"이 리듬을 만듭니다. 한국어 번역도 "~도 사라지고"를 반복해서 같은 효과를 냅니다.

주어-동사 일치: **papers were**, **cretonnes (were)**, **prints were**. 복수 주어에는 **were**가 맞습니다. 관계절 **which fashion had imposed**는 삽입구로, 주동사 **were**와는 별개입니다.

이 도치는 **변화의 극적 효과**를 위한 것입니다. 옛것들의 완전한 소멸을 강조합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Her face, **thin and not much lined**, was of the sort that ages gracefully, so that you thought in youth she must have been a much handsomer woman than in fact she was.

야위고 주름이 많지 않은 그녀의 얼굴은 우아하게 나이 드는 부류여서, 젊었을 때는 실제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thin and not much lined는 두 개의 형용사구가 **and**로 병렬 연결된 구조입니다.

Her face, [thin] and [not much lined], was...

└ 형용사

└ 부정 + 과거분사

"not much lined"에서 **lined**는 과거분사가 형용사화된 것입니다. "주름이 많이 생긴"의 반대로 "주름이 많지 않은".

이 병렬 구조는 **점진적 묘사**를 만듭니다. 먼저 "야위다", 그 다음 "주름이 많지 않다" — 두 특징이 합쳐져서 "우아하게 나이 드는" 얼굴을 그립니다.

한국어에서도 "야위고 주름이 많지 않은"으로 같은 병렬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4. 수동태 (Passive Voice)

If you haven't read his book your education **has been shamefully neglected**, and you must repair the omission at once.

그분의 책을 읽지 않으셨다면 교양이 부끄럽게 부족한 거니까, 당장 그 빈틈을 메우셔야 해요.

has been neglected는 현재완료 수동태입니다. 구조는 **have/has + been + 과거분사**입니다.

your education [has been] [shamefully neglected]

현재완료 부사 + 과거분사

현재완료를 쓴 이유: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단순과거 **was neglected**였다면 "그때 방치되었다"가 되어, 지금은 어떤지 모호해집니다.

shamefully는 도덕적 판단을 담은 부사입니다. 단순히 "부족하다"가 아니라 "부끄럽게 부족하다" — 화자의 강한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어 "부끄럽게 부족한"이 이 뉘앙스를 잘 살렸습니다. 현재완료의 "지속성"도 "부족한 거니까"에서 느껴집니다.

5.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When I was ushered into the drawing-room I found that Mrs. Strickland had a visitor, and when I discovered who he was, I guessed that I had been asked to come at just that time not without intention.

응접실로 안내되었을 때 스트릭랜드 부인에게 손님이 와 있었는데, 그가 누구인지 알고 보니 내가 바로 그 시간에 오도록 초대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When I was ushered는 시간절에서 수동태를 쓴 구조입니다. **usher** 는 "안내하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When [I was ushered into the drawing-room]

↳ 수동태: 누군가가 나를 안내했다

능동태로 바꾸면 "When someone ushered me" 또는 "When the servant ushered me"가 되겠지만, 수동태를 쓴 이유는 **안내하는 사람보다 안내받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분사 **ushered** 는 "공식적으로 안내받다"는 격식 있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들어갔다"가 아니라 "안내되어 들어갔다" — 상류층 집안의 예의를 보여줍니다.

한국어 "안내되었을 때"가 이 수동적 뉘앙스를 정확히 전달합니다.